

# HEALTH & WELFARE REVIEW

보건복지연구

Vol.7 No.1 / December 2022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 ORIGINAL ARTICLE

- 5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양식이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임 운
- 17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부모 아동학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주복
- 31     The Global Distribu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he Meaning of Forming a Global Korean  
        Network  
        Hwang, Byungsoo
- 47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주 추이 분석  
        김규찬
- 5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민경 · 김민영 · 박소정 · 박영선 · 유정기 · 이성은 · 임예찬 · 주수연 · 최선하
- 71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생들의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차이분석  
        한태용 · 이행욱 · 김사랑
- 85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만5세 유아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방식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  
        정경희 · 김현정
- 95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상일 · 김현정
- 107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중심 평가  
        박수지
- 123    학습 · 놀이 ·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나라 · 김연희 · 이희정 · 임미연 · 김윤희 · 민유경 · 김현성 · 전재희



##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양식이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sup>1)</sup>

임 운(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양식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도를 연령별, 경제적 층별, 직업별 등의 단위로 살펴보고, 생활양식이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12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및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노후인식 평균은 3.04로 나타났고, 성공적인 노후인식의 하위영역인 건강관리 인식(평균 3.10), 경제인식(평균 3.02), 대인관계 인식(평균 3.00), 여가생활 인식(평균 3.04)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20대(평균 2.36), 30대(평균 3.56), 40대(평균 2.69), 50대(평균 3.6) 등으로 나타나 30대와 50대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20대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고졸이하(평균 2.97), 대졸이상(평균 3.0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인식을 하고 있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수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1명(평균 2.84), 2명(평균 3.06), 3명(평균 3.03) 등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2명이상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노후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공적인 노후인식은 건강관리인식, 경제적 인식, 대인관계 인식, 여가생활 인식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경제적 인식은 건강관리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인관계 인식은 경제적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곱째, 여가생활 인식은 대인관계 인식, 경제적 인식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노후인식은 생활양식의 하위변수인 건강중심 생활유형, 활동중심 생활유형, 가족생활 중심 생활유형 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생활 중심 생활유형은 건강중심 생활유형과 통계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성공적인 노후인식, 가족중심 생활양식, 건강관리 중심 생활양식, 경제 중심생활양식

1) 이 논문은 2021년도 강릉원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결혼이주여성의 비약적인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린나이에 결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인 한국남성들도 자신들의 생활패턴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들로 자신만의 문화를 주장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처해 있다.

낮은 결혼비율,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결혼이주여성 가족에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와 기본적인 어려움인 언어, 문화, 사고방식, 음식, 종교의 편견 등으로 인하여 다른 두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 내에서 기본적인 견해 차이뿐만 아니라 사소한 생활습관, 의사소통의 오해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기대만큼 풍요롭지 못한 경제상황과 빠른 적응을 요구하는 시댁식구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지치며 적절한 정보의 부족으로 가중된 적응의 어려움을 결혼이주여성들은 호소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지속기간은 부부관계 만족감에 의해 촉진되며, 부부관계 만족감은 부부동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갈등이나 시집 가족과의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생활양식과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생활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는 초석이 된다.

1990년 초반에 시작된 결혼이주는 30여년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50대가 되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노후생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후준비 양상은 개인의 생활양식,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 부부간의 관계의 질,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노후에 대한 준비 의식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이민자라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적응의 문제, 문화 차이에 의한 어려움, 언어, 새로운 체제, 아울러 배우자 및 부모와의 갈등, 자녀양육의 부담 등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 가족 자신들을 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지금까지 주로 노년기의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조기은퇴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 연령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후인식의 조사를 통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노후 인식에 대한 의식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노후인식의 자신들의 생활양식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지를 조사해 봄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a mode of living)으로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양식(a unique pattern of living)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활양식은 단순히 생활의 유형 또는 양식의 의미를

뛰어 넘어 행동과 의식을 결합한 총체적 상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활양식(lifestyle)이라는 용어 Adler(1969)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목표를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연구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Max Weber(1968)는 생활양식의 개념을 재화의 소비양식, 직업, 양육, 교육 패턴 등에 의해 형성된 계층이면서도 생활양식, 생활태도, 인생관 등에 유사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특정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status group'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양식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활동(activity)과 자신의 주위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관심(interest), 그리고 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의견(opinion)의 총체로 나타내어진다. 정남주(2006)는 인간행동 전반에 나타나는 차별적인 행동양식으로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파생물 즉,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생활양식으로 보았다.

William Lazer(1963)는 생활양식을 시스템적 사고라고 정의하면서, 총체적이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 생활양식은 전체사회나 그의 일부분에서 비롯되는 차별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양태를 말하였는데, 어떤 문화나 집단의 생활양식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생활양식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구성인자나 특징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활양식은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동태적 생활로부터 발전되고 생성되는 양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다라고 정의하였다(강용관과 강진희, 2001재인용). Engel, Blackwell과 Kollat(1978)는 생활양식을 사람들이 생활하고 시간과 돈을 소비해 나가는 유형이며 그것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간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생활양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생활전반이나 의·식·주생활 및 여가생활에 관한 분류가 일반적이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양식의 유형과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2. 성공적인 노화

성공적인 노화개념은 노화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어떠한 시각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달리 정의되어 오고 있다. Schultz와 Heckhausen(1996)은 전생애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일생동안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절절히 대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Rowe와 Kahn(1997)은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로 낮은 질병률 및 질병에 의한 장애의 위험이 없고 높은 수준의 정신적,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인생에 참여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보았다. 성혜영과 유정현(2002)은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사회관계지향 및 기능중시, 주관적 만족과 부부관계 형성, 복지 및 편함 추구의 형태로 구분하면서 이들 3가지 유형의 공통 요소는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시하며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영희와 이해정(2005)은 성공적인 노화를 성공적 노후로 해석하면서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로 신체와 정신건강, 자기수용과 자율, 자기 통제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및 생산적 활동과 경제적 준비 및 복지 등을 포함하면서 다차원적 요소가 균형적이고 통합적으로 갖춰질 때 성공적인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유희정(2007)은 노년기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며 성공적으로 노화한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정순돌(2007)은 성공적인 노화는 노화로 인한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현재의 삶이 모습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 3.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건강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생활만족도, 여가만족도 그리고 가족지지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Rowe와 Kahn(1997)은 적극적인 생활참여를 통한 만족으로 꼽았다. 정영린(1997)은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즐겁고 유쾌한 정서적 상태, 태도 및 욕구의 만족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조진희(2008)은 여가활동의 참여가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여진과 안정신(2010)은 사회적 관계란 친족, 이웃, 가족으로 대별되는 대인관계 및 사회참여를 의미하는데 한국노인의 경우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노인은 배우자와 친밀감이 높았으며, 자녀, 손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관계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정순돌(2007)은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가족 지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노인은 자녀를, 남성노인은 배우자를 중시하였다.

### 2)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우울, 외로움, 자기초월감 등을 들 수 있다. 박인옥 등(1998)은 노년기의 우울은 주로 노화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상실과 신체적 질병이나 죄 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노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문제, 자녀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울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조진희(2008)에 의하면, 우울이 없는 노인은 우울이 있는 노인보다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이 2.6배 높았으며, 신영희와 이해정(2009) 또한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녕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김순미(2000)에 의하면 노인의 외로움은 신체적 노화, 사회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와의

사별,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해 젊은 시절과는 다르다.

자기초월감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실존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인간의 본질로써 자신 너머와 접촉하려고 하며 이러한 접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거나 의미를 만들어간다. 초월감이 형성된 노인은 일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여할 것에 관심을 가진다(Frankle, 1963; McCarthy, 2009). 여성노인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와 자기초월감에는 강한 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자기초월감은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간주되었다(김은주와 김영희, 2011; McCarthy, 2009). 노년초월은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초월의 자발적 과정으로, 노인들 자신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을 뜻하며 노인이 노화자체를 긍정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이끌어준다.

### 3) 건강 요인

건강 요인은 건강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신영희와 이해정(2009)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대상자의 과반수를 넘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Laditaka 등(2009)은 성공적인 노화는 긍정적인 정신자세와 좋은 육체적 건강을 가지고 사회적인 참여를 하여 오래 사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신윤희와 정승은(1997)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의 적응과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홍석태(2007)는 신체적 노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나 노화의 속도나 신체적 쇠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므로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꾸준히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적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양식이 성공적인 노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12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중에서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설문대상자들에게는 설문담당자가 설문내용을 이해시키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별로 20대가 26명(23.2%), 30대가 25명(22.3%), 40대가 35명(31.3%), 50대가 26명(23.2%)로 나타나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혼인상태별로 기혼이 106명(94.6), 이혼 또는 사별이 6명(5.4%)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03명(92.0%), 대졸이상인 9명(8.0%)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별로는 1명이 45명(40.2%), 2명이 58명(51.8%), 3명이 9명(8.0%)로 나타났다.

#### 2. 측정 변수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양식의 주요 요인들을 설문을 통해 요인분석을 하여 독립변인으로 건강중심 생활양식, 활동중심 생활양식 그리고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 등으로 정하고 건강중심 생활양식에

대하여 5문항, 활동중심 생활양식에 대하여 5문항 그리고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에 대하여 5문항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인식의 주요요인들을 경제적, 건강,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요인, 건강관리 요인, 심리적 요인을 대인관계 요인과, 여가생활 요인으로 정하고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6문항, 건강관리 요인에 대하여 7문항, 대인관계 요인에 대하여 6문항, 그리고 여가활동 요인에 대하여 6문항을 설정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5단위 리커트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여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과 성공적인 노화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위하여 t-test분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생활양식과 성공적인 노화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빈도(인원수)	백분율(%)	계(%)
연령	만 20-29세	26	23.2	112(100.0)
	만 30-39세	25	22.3	
	만 40-49세	35	31.3	
	만 50-59세	26	23.2	
혼인상태	기혼	106	94.6	112(100.0)
	이혼/사별	6	5.4	
학력	고졸이하	103	92.0	112(100.0)
	대졸이상	9	8.0	
자녀수	1명	45	40.2	112(100.0)
	2명	58	51.8	
	3명	9	8.0	

## IV. 분석결과

### 1. 측정도구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 분석방법인 Cronbach  $\alpha$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성공적인 노화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변인별 신뢰도(Cronbach  $\alpha$ )는 경제가 .756, 건강관리가 .890, 대인관계가 .858, 여가생활이 .661로 나타나 건강관리와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대한 신뢰도는 .889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대한 독립변수인 생활양식에 대한 하위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건강중심 생활양식 .821, 활동중심 생활양식 .661,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 .684로 나타났으며 생활양식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820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별 항목의 신뢰도

변인	문항	신뢰도 (Cronbach $\alpha$ )
생활양식	건강중심 생활양식	.821
	활동중심 생활양식	.661
	가족생활중심 생활양식	.684
부분 전체		.820
성공적인 노화인식	경제적 인식	.756
	건강관리 인식	.890
	대인관계 인식	.858
	여가생활 인식	.661
부분 전체		.889
전체		.940

<표 3> 성공적인 노후 인식과 하위영역의 평균

	인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외도	첨도
성공적인 노후 인식	112	1	4	3.04	.756	-.718	-.125
건강관리 인식	112	1	4	3.10	.849	-.640	-.274
경제적 인식	112	1	4	3.02	.890	-.585	-.809
대인관계 인식	112	1	4	3.00	.870	-.609	-.293
여가생활 인식	112	1	4	3.23	.885	-.718	-.125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인 노후 인식

#### 1) 성공적인 노후 인식과 하위영역의 평균

성공적인 노후 인식과 하위영역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후인식 평균은 3.04이었고, 건강관리 인식 평균이 3.10, 경제인식 평균이 3.02, 대인관계 인식 평균이 3.00, 여가생활 인식 평균이 3.04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후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평균을 왜도, 첨도를 통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이 3미만,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인 노후인식

일월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인 노후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노후인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연령( $F=41.68, p<.001$ ), 학력( $F=11.96, p<.001$ ), 자녀수( $F7.20, p<.001$ )로 나타나 혼인상태에서

는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연령, 학력, 그리고 자녀수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20대(평균 2.36), 30대(평균 3.56), 40대(평균 2.69), 50대(평균 3.6) 등으로 나타나 30대와 50대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20대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고졸이하(평균 2.97), 대졸이상(3.0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인식을 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수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1명(평균 2.84), 2명(평균 3.06), 3명(평균 3.03) 등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2명이상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노후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상관관계 분석

#### 1)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노후인식 하위변수와의 상관관계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노후인식 하위변수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하여 'spearman 상관관계'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성공적인 노후인식은 건강관리인식( $r=.583, p<.01$ ), 경제적 인식( $r=.899, p<.01$ ), 대인관계 인식( $r=.441, p<.01$ ), 여가중요 인식( $r=.291, p<.01$ )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인식이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관리 인식, 대인관계 인식 여가중요 인식으로 순으로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공

적인 노후인식은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대인관계의 형성, 여가 활동준비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인식으로 건강관리 인식( $r=.220, p<.05$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인관계 인식과 여가중요 인식과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경제적 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인식은 경제적 인식( $r=.495, p<.01$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관리인식과 여가중요 인식과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인식이 건강관리 인식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도 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혼이주여성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중요인식은 대인관계 인식( $r=.605, p<.01$ ), 경제적 인식( $r=.304, p<.05$ )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관리인식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건강관리 보다는 경제적 요건과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하여 'spearman 상관관계'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성공적인 노후 인식은 생활양식의 하위변수인 건강중심 생활양식, 활동중심 생활양식,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 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은 건강중심 생활양식( $r=-.216, p<.05$ )과

<표 5>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노후인식 하위변수와의 상관관계

	노후인식	건강관리인식	경제적 인식	대인관계 인식	여가중요 인식
노후인식	1.000				
건강관리인식	.583**	1.000			
경제적 인식	.899**	.220*	1.000		
대인관계 인식	.441**	.823	.495**	1.000	
여가중요 인식	.291**	.341	.304*	.605**	1.000

\*= $p<.05$ , \*\*= $p<.01$ , \*\*\*= $p<.001$

〈표 6〉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

	노후인식	건강중심 생활양식	활동중심 생활양식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
노후인식	1.000			
건강중심 생활양식	.034	1.000		
활동중심 생활양식	-.076	-.085	1.000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	-.001	-.216*	-.112	1.000

\*=p<.05, \*\*=p<.01, \*\*\*=p<.001

통계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양식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 경제적 층별, 직업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별로 살펴보고, 생활양식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도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의 주요발견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노후인식 평균은 3.04이었고, 건강관리 인식 평균이 3.10, 경제적 인식이 3.02, 대인관계 인식 평균이 3.00, 여가생활 인식이 3.04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이 평균이상으로 나타났고 성공적인 노후인식의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도 평균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공적인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20대(평균 2.36), 30대(평균 3.56), 40대(평균 2.69), 50대(평균 3.6) 등으로 나타나 30대와 50대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20대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0대는 자녀양육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50대에서 신체의 노화와 함께 노후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노화에 대한 생각을 초래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고졸이하(평균 2.97), 대졸이상(3.0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인식을 하고 있었다.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이 얻는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수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은 1명(평균 2.84), 2명(평균 3.06), 3명(평균 3.03) 등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2명이상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노후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의 문제가 노후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다섯째, 성공적인 노후인식은 건강관리인식( $r=.583, p<.01$ ), 경제적 인식( $r=.899, p<.01$ ), 대인관계 인식( $r=.441, p<.01$ ), 여가중요 인식( $r=.291, p<.01$ )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인식이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관리인식, 대인관계 인식, 여가활동 필요 인식으로 순으로 성공적인 노후인식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인식은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대인관계 형성, 여가 활동준비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경제적 인식은 건강관리 인식( $r=.220, p<.05$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인관계 인식과 여가활동 중요인식과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경제적 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대인관계 인식은 경제적 인식( $r=.495, p<.01$ )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관리인식과 여가활동 중요인식과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인식이 건강관리 인식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도 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혼이주여성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여가활동 중요인식은 대인관계 인식( $r=.605$ ,  $p<.01$ ), 경제적 인식( $r=.304$ ,  $p<.05$ )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관리인식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건강관리보다는 경제적 요인과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성공적인 노후 인식은 생활양식의 하위변수인 건강중심 생활양식, 활동중심 생활양식,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 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가족생활 중심 생활양식은 건강중심 생활( $r=-.216$ ,  $p<.05$ )과 통계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예상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결혼생활 유지 등의 문제를 대비하고 성숙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시기와 맞물리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과 자녀교육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건강관리인식( $r=.583$ ,  $p<.01$ ), 경제적 인식( $r=.899$ ,  $p<.01$ ), 대인관계 인식( $r=.441$ ,  $p<.01$ ), 여가중요 인식( $r=.291$ ,  $p<.01$ )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노후준비에 있어 경제적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대인관계 확대 프로그램, 다양한 여가활용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강용관과 강진희(2001). "중국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관광형태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13집: 119-143.
- 김순미(2000). "노인의 고독에 대한 개념분석", 『삼육대학교 논문집』31집: 201-210.
- 김은주와 김영희(2011). "Successful Aging Theory에 근거한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예측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제17권 4호: 378-387.
- 김희경(2012).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한국노년학』제32권 3호: 819-834.
- 박인옥, 김진세, 이강준, 정인파(1998). "한국노인의 우울요인", 『노인정신의학』제2권 1호: 47-63.
- 성혜영과 유정현(2002). "성공적인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제22권 2호: 75-93.
- 신영희와 이해정(2009). "일도시 노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제29권 4호: 1327-1340.
- 신윤희와 정승은(1997). "재가노인의 기본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7집 1호: 194-205.
- 원형중(2005).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 정책", 『한국여성체육학회지』제 19권 3호: 79-96.
- 유희정(2007).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경험 연구", 『한국노년학』제27권 3호: 617-634.
- 정남주(2006). "레저스포츠 활동의 문제와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과 구상",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1호: 203-214.
- 정순돌(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노인복지연구』제36권: 201-220.
- 정여진과 안정신(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제30권 2호: 535-550.

- 정영린(1997).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진희(2008).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우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석태(2007).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dler, A(1969). *The collected clinical works of Alfred Adler*(Vol. 6). Journal Articles: 1927-1931, USA :AlfredAdler Institute.
- E., Black & W., Kollat(1978). *D. P. Consumer behaviour*(3rd ed.). Hinsdale, I L: The Drtden Press.
- Frankle, V.(1963).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Pocket books.
- Laditaka, S. B., Corwin, J. S., Laditaka, N. J., Liu, I., Tseng, W., Wu, B., Beard, L. R., Sharkey, R. J., && Ivey, L. S.(2009). “Attitudes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 Americans: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The Gerontologist* 49: 1-39.
- Lazer William(1963). Life style Concept & marketing in stephen A Greys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 Max Weber(1968). *Wittich, Economy and Society*(3vols). Bedwinster Press, N.Y., Vol.1. pp3 05-306,
- McCarthy, V. L.(2009). *Exploring a new theory of successful aging among low-income older adults in an independent and assissted living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Kentucky, USA.
- Rowe, J. W., &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Schultz, R., & Heckhausen, J.(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7): 707-714.

---

## Abstract

# The Effec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on the Elderly's Successful Aging Perception

Lim, Un

(Gang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effected the elderly's successful aging perception. Data was collected from 112 who are living in Wonju.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include: First, the mean of the elderly's successful aging perception was 3.04. Second, the means of thirties and fifties were higher than those of twenties and forties. Third, the mean of women who have not college degree was lower than that of women who have college degree, and the mean of women who have tow or three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women who have one child. Fourth, the successful aging perception was connected to health manage perception, economic perception, human relationship perception and extra activities perception. Lastly,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was not connected to the elderly's successful aging perception, but family oriented life style which was one subcategory of life style was connected health oriented life style, the one subcategory of life style.

**Key words:** Married Female Immigrant, Successful Aging Perception, Family Oriented Life Style, Health Management Life Style, Health Management Perception

---

임 운: E-mail: cloud@gwnu.ac.kr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공분야는 영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영어듣기학습에서의 듣기전략 사용과 성별이 모의 TOEIC 듣기성적에 미치는 영향”(교원교육, 2019), “강원도 원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교원교육 2017), “TOEIC 듣기평가에서 성취도에 따른 듣기전략별 남녀 대학생의 사용정도의 차이에 관하여”(교원교육, 2016)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음향분석을 통한 발음지도”(한국문화사, 2013),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도서출판 신정, 2019) 등이 있다.



##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부모 아동학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 주 복(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문초록

지난 16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을 국제비교에서 하위그룹에 위치하도록 만든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과 아동의 행복감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9년 제1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2,150명의 조사대상 아동(초등학교 5학년) 중 조사에 참여한 1,4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에서 부모애착의 하위요소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은 모두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의 아동학대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교우관계( $B = .378$ )가 아동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래로부터 집단괴롭힘( $B = -.105$ )은 아동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버지의 신뢰감과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의 아동학대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며 아동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며,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학대경험은 학교에서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상호작용하여 아이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로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집단괴롭힘도 학교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부모 아동학대, 행복감, 부모애착, 교우관계, 집단괴롭힘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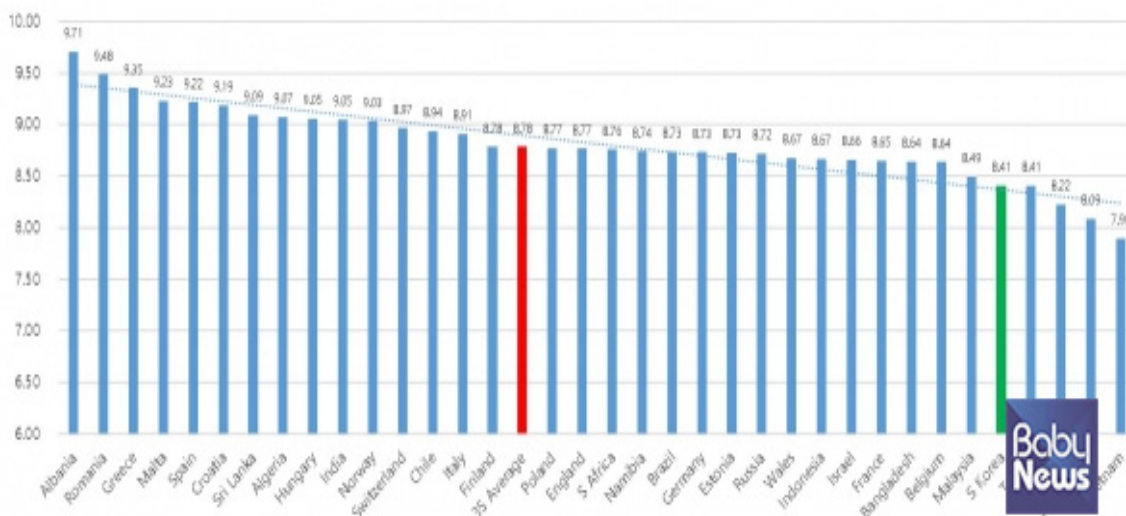
뉴데일리/NewDaily(2022. 9. 27)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 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 명까지 급락했다"면서 기존의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처럼 16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출산율 증가시키는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우림(2021, 요약 p.10)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지원 대상을 ①아동양육가구, ②산모·신생아, ③영유아, ④아동·청소년, ⑤청년 및 신혼부부, ⑥여성, ⑦직장, ⑧일반 사회, ⑨기타 등 9개 대상으로 나누어 대상별 투입된 저출산 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투입한 전체 예산 155 조 6,377억 원 중 아동·청소년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5.62%인 8조7,401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관심이나 정책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가 조사에 참여한 35개 국가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국제아동삶의질조사(ISCWeB)에서 한국을 포함해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 35개국 아동(초등학교 5학년 기준, 2019년) 1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물질적 수준, 시간 사용, 학습, 대인 관계, 안전한 환경, 자신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분해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8.41점으로 대만과 공동 31위였으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네팔(8.21점), 홍콩(8.09점), 베트남(7.90점) 등 3개국이었다(중앙일보 2021. 6. 19).

또한 보건복지부(2021)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0년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9%이었다. 또한 2020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약 0.19%를 차지하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82.1% (25,380건), 대리양육자가 9.5% (2,930건), 친인척이 5.4%(1,661건), 타인이 1.8%(5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학대사례 중 친부에 의해



〈그림 1〉 아동 행복도 국제비교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발생한 사례가 43.6%(13,471건)로 가장 많으며, 친모 35.4%(10,945건), 계부 1.9%(578건), 계모 1.0%(3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2.9%(882건)로 가장 높았다.

이상과 같이 현재 자라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이 하위 수준에 이르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과 아동의 행복감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린 시절 행복감은 이후 시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aha, Huebner, & Valois, 2010)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기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2009)이 초등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은 99.38점(128점 기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2017)의 아동의 행복감 국제비교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행복수준은 OECD 회원국 중 2위였으나 주관적 행복수준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정형편보다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5; Parker, 1979; 정옥분, 2015; Kali, 2016; 윤연정, 이미숙, 2019; 최자은, 문수배, 2016),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습지도, 감독 등의 양육 참여에 초점을 둔 연구(김희화, 2005; 권희경, 2017; 우혜진, 유연옥, 2017) 등이 주류였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관계 욕구이다. 인간은 누구누가와 연결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갈망한다. 즉, 친근하고 따뜻하고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의미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개인의 관계 욕구는 가장 잘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상의 경험들이 누적될수록 개인은 자신이 온전한 존

〈표 1〉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례건수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증가율	59.6%	19.6%	10.0%	22.1%	2.9%
사망자수	36	38	28	42	43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1쪽, 70쪽

〈표 2〉 아동학대자 유형 (단위 :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1,715(100)	18,700(100)	22,367(100)	24,604(100)	30,045(100)	30,905(100)
부모	9,348(79.8)	15,048(80.5)	17,177(76.8)	18,920(76.9)	22,700(75.6)	25,380(82.1)
친인척	562(4.8)	795(4.3)	1,067(4.8)	1,114(4.5)	1,332(4.4)	1,661(5.4)
대리양육자	1431(12.2)	2,173(11.6)	3,343(14.9)	3,906(15.9)	4,986(16.6)	2,930(9.5)
타인	187(1.6)	201(1.1)	294(1.3)	360(1.5)	663(2.2)	565(1.8)
기타	166(1.4)	454(2.4)	441(2)	304(1.2)	364(1.2)	369(1.2)
파악안됨	21(0.2)	29(0.2)	45(0.2)	-	-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재구성

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충만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평가하게 된다(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반면, 5-6학년 아동의 경우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이행되어 가는 초기 청소년기로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기이다(윤영전, 이미숙, 2019: 72).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부모와 아동간 상호작용,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래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연구(문은식, 문명화, 2021; 김예슬, 이주연, 2022), 학교환경이나 놀이에 초점을 둔 연구(김지연, 이경열, 이지현, 신보원, 이하연, 2020) 등 다양한 요인을 대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부모애착, 부모의 아동학대, 부모의 성취압력, 학교에서는 교우관계와 집단괴롭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행복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의 상호작용 결과인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부모의 학대, 부모의 성취압력, 교우관계, 집단괴롭힘 등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변인 중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부모의 학대, 부모의 성취압력, 교우관계, 집단괴롭힘 등이 아동의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부모의 성취압력, 교우관계, 집단괴롭힘과 아동의 행복감 사이에서 조절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2019년 제1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과 같이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고, 표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력이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총 2,150명의 조사대상 아동(초등학교 5학년) 중 조사에 참여한 1,4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아동들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725명(51.3%), 여자가 687명(48.7%)이었다. 참여한 아동의 평균 월령은 136.44개월(SD=1.52)이었으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565만원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경인권이 31.0%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이 17.8%, 대전·충청·강원권이 14.7%, 광주·전라·제주권이 13.2%, 서울권이 12%, 대구·경북권이 11.3%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가.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 & Lepper(1999)가 제작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Surveys+and+documentation에서 2015년 인출한 MCS(2008)의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번역하여 적용한 제12차 년도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4개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755$ 로 나타났다.

#### 나.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G. C., & Greenberg, M.T.(1987)가 사용한 척도를 이정립 외 (2017)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고, 번안본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조사대상인 초등 4학년에 맞도록 연구진이 문장을 수정하여 적용한 제12차년도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12개 문항을 부와 모에 따로 답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부모애착은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등 3개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문항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즉,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측정된 12개 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Chronbach's  $\alpha = .700$ 과 Chronbach's  $\alpha = .707$ 로 나타났다.

#### 다. 부모의 아동학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하묘연(2000)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새롭게 작성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4문항 중 2문항을 추출하였다. 원도구에서는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의 4점 리커트로 측정하였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에 대한 빈도측정을 위해 ①전혀 없음 ②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한 달에 한두번 ④일주일에 한두번 ⑤거의 매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정

도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2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의 아동학대를 측정된 2개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498$ 로 나타났다.

#### 라. 부모의 성취압력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강영철(2003)이 사용한 측정도구 중 일부 문항의 문장을 윤문한 오아름(2017)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 - 항상 그렇다(5)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된 15개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95$ 로 나타났다.

#### 마. 교우관계

아동의 교우관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1991) 연구에서 사용했던 학교적응 측정항목 21문항 중 교우관계를 묻는 5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로 4점 리커트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교우관계를 측정된 5개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683$ 로 나타났다.

#### 바. 또래의 집단괴롭힘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의 집단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Olweus(1993)가 사용한 척도를 안정민(2001)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그 척도를 김옥귀(2013)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문항을 사용하였으나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7번 문항을 추가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1차 년도부터 측정 문항을 의문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을 위한 척도는 없다(0점), 1년에 1-2번(1점), 1달에 1번(2점), 1달에 2-3번(3점), 1주에 1-2번(4점), 일주일에 여러 번(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의 집단괴롭힘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집단괴롭힘을 측정한 7개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03$ 로 나타났다.

### III. 연구결과

#### 1. 아동의 행복감, 부모와의 관계, 교우관계 수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5점(SD=.44)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13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해에 실시한 국제아동삶의질조사(ISCWeB)에서 나타난 한국 아동의 행복도 8.41점(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로 하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민상(2020: 61)이 2019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OECD(2015)의 How's Life에 제시된 아동 행복도의 결과에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를 대입해 비교해 보았을 때 OECD 가입국가 아동의 행복도 평균이 7.6점이었으나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평균은 6.6점으로 터키와 함께 맨 마지막 순위에 위치해 있다.

부모와 애착관계의 하위요소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5점 만점에 3.52점(SD=.79), 소외감은 3.34점(SD=.75), 신뢰감은 4점(SD=.78)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와 신뢰감이 4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5점 만점에 3.94점(SD=.74), 소외감은 3.45(SD=.76), 신뢰감은 4.19점(SD=.71)으로 나타나 아버지보다 애착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4.19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애착관계가 더 많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들로부터 받는 성취압력은 5점 만점에 2.31점(SD=.66)으로 보통 이하의 압력을 받고 있어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공에 대해 강요를 크게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또래들과의 교우관계는 4점 만점

〈표 3〉 아동의 행복감, 부모와의 관계, 교우관계 수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행복감	3.25	0.44	
부_의사소통	3.52	0.79	
부_소외감	3.34	0.75	
부_신뢰감	4	0.78	
모_의사소통	3.94	0.74	
모_소외감	3.45	0.76	
모_신뢰감	4.19	0.71	
성취압력	2.31	0.66	
교우관계	3.25	0.43	
	빈도	비율	
부모아동 학대	없음	1,036	74.1
	있음	362	25.9
집단괴롭힘	없음	965	69.0
	있음	433	31.0

에 3.25점(SD=.43)으로 높은 교우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동들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정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약 26%로 우리나라 아동의 4명당 1명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아동학대자 중 82.1%가 부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또래들의 집단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31%로 나타나 학교 내에서 집단괴롭힘 현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2.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부모의 학대, 성취압력, 교우관계, 집단괴롭힘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 아동의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성취압력,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와 집단괴롭힘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부모의 학대 경험과 집단괴롭힘의 경험은 명목척도인 관계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표 4〉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부모의 학대, 성취압력, 교우관계, 집단괴롭힘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영향

모형		B	t	VIF	R2	F
모형1	(상수)	1.565	19.460		.248	448.056**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519	21.167	1.000		
모형2	(상수)	1.249	15.225		.311	307.213**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434	17.600	.905		
	부모애착-부_신뢰감	.148	11.198	.905		
모형3	(상수)	1.086	12.630		.327	220.226**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415	16.893	.890		
	부모애착-부_신뢰감	.105	6.930	.676		
	부모애착: 모_신뢰감	.094	5.671	.691		
모형4	(상수)	.970	10.888		.338	172.844**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409	16.748	.887		
	부모애착-부_신뢰감	.090	5.869	.646		
	부모애착: 모_신뢰감	.092	5.557	.690		
	부모애착-부_소외감	.061	4.580	.914		
모형5	(상수)	1.081	11.756		.347	144.107**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94	16.092	.870		
	부모애착-부_신뢰감	.086	5.648	.644		
	부모애착: 모_신뢰감	.088	5.355	.688		
	부모애착-부_소외감	.061	4.574	.914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095	-4.433	.954		
모형6	(상수)	1.023	11.060		.355	124.304**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82	15.539	.856		
	부모애착-부_신뢰감	.077	5.041	.631		
	부모애착: 모_신뢰감	.051	2.726	.527		
	부모애착-부_소외감	.068	5.084	.899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100	-4.687	.951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68	4.106	.609		
모형7	(상수)	.978	10.443		.359	108.213**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79	15.467	.855		
	부모애착-부_신뢰감	.081	5.269	.627		
	부모애착: 모_신뢰감	.038	1.956	.495		
	부모애착-부_소외감	.050	3.367	.729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099	-4.670	.951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71	4.293	.606		
	부모애착: 모_소외감	.041	2.807	.726		
모형8	(상수)	.919	9.600		.362	96.138**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79	15.506	.855		
	부모애착-부_신뢰감	.084	5.441	.625		
	부모애착: 모_신뢰감	.041	2.126	.493		
	부모애착-부_소외감	.051	3.481	.728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110	-5.121	.918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75	4.505	.603		

모형9	부모애착: 모_소외감	.042	2.862	.726	.366	86.621**
	더미변수 학대유무	.064	2.793	.904		
	(상수)	.889	9.240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78	15.493	.855		
	부모애착-부_신뢰감	.062	3.556	.486		
	부모애착: 모_신뢰감	.053	2.691	.466		
	부모애착-부_소외감	.050	3.420	.727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105	-4.873	.910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50	2.603	.454		
	부모애착: 모_소외감	.045	3.077	.721		
	더미변수 학대유무	.065	2.850	.903		
	부모애착-부_의사소통	.045	2.654	.493		

\* p<0.05, \*\* p<0.001

Durbin-Watson = 1.931

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모든 모형의 F값이 모두 유의수준(p<0.05)을 충족하고 있고, 오차항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값이 1.931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계수(VIF)도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모형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성취압력을 제외한 부모와의 애착관계, 부모의 아동학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와 집단괴롭힘 등 9가지 요인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설명력은 36.6%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볼 때, 가정에서 부모애착의 하위요소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은 모두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행복감에 바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교우관계(B= .378)가 아동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래로부터 집단적괴롭힘(B= -.105)은 아동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조절효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의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부모의 아동학대, 교우관계, 집단괴롭힘 각각에 조절변수인 부모의 아동학대를 곱하여 상호작용변수(부\_의사소통과학대, 부\_소외감과학대, 부\_신뢰감과학대, 교우관계와학대, 집단괴롭힘과학대 등)들을 생성하였다.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 아동학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중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제거된 부모의 성취압력을 제외한 후,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교우관계, 집단괴롭힘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부모의 아동학대)를 곱한 상호작용변수(부\_의사소통과학대, 부\_소외감과학대, 부\_신뢰감과학대, 교우관계와학대, 집단괴롭힘과학대 등)들을 '단계선택' 방식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모든 모형의 F값이 모두 유의수준(p<.05)을 충족하고 있고, 오차항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값이 1.953으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계수(VIF)도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중 성취압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부모의 아동학대)를 곱한 상호작용변수들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앞의 <표 4>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표 5〉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조절효과

모형		B	t	VIF	R2	F
모형1	(상수)	1.565	19.460		.248	448.056**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519	21.167	1.000		
모형2	(상수)	1.249	15.225		.311	307.213**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434	17.601	1.104		
	부모애착-부_신뢰감	.148	11.198	1.104		
모형3	(상수)	1.086	12.630		.327	220.226**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415	16.893	1.124		
	부모애착-부_신뢰감	.105	6.930	1.479		
	부모애착: 모_신뢰감	.094	5.671	1.448		
모형4	(상수)	.970	10.888		.338	172.844**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409	16.748	1.127		
	부모애착-부_신뢰감	.090	5.869	1.547		
	부모애착: 모_신뢰감	.092	5.557	1.449		
	부모애착-부_소외감	.061	4.580	1.094		
모형5	(상수)	1.081	11.756		.347	144.107**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94	16.092	1.149		
	부모애착-부_신뢰감	.086	5.648	1.552		
	부모애착: 모_신뢰감	.088	5.355	1.453		
	부모애착-부_소외감	.061	4.574	1.094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095	-4.433	1.048		
모형6	(상수)	1.023	11.060		.355	124.304**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82	15.539	1.168		
	부모애착-부_신뢰감	.077	5.041	1.584		
	부모애착: 모_신뢰감	.051	2.726	1.898		
	부모애착-부_소외감	.068	5.084	1.112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100	-4.687	1.052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68	4.106	1.642		
모형7	(상수)	.982	10.527		.359	108.346**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82	15.577	1.168		
	부모애착-부_신뢰감	.081	5.241	1.591		
	부모애착: 모_신뢰감	.054	2.884	1.903		
	부모애착-부_소외감	.070	5.242	1.115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111	-5.141	1.086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68	4.073	1.642		
	모_의사소통과학대	.017	2.912	1.067		
모형8	(상수)	.935	9.902		.363	96.341**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79	15.505	1.169		
	부모애착-부_신뢰감	.084	5.478	1.603		
	부모애착: 모_신뢰감	.040	2.098	2.025		
	부모애착-부_소외감	.052	3.489	1.374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110	-5.136	1.086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71	4.264	1.650		
	모_의사소통과학대	.018	2.974	1.067		
	부모애착: 모_소외감	.042	2.872	1.378		
모형9	(상수)	.904	9.523		.366	86.858**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78	15.493	1.170		
	부모애착-부_신뢰감	.062	3.567	2.059		
	부모애착: 모_신뢰감	.053	2.680	2.143		
	부모애착-부_소외감	.051	3.429	1.375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105	-4.892	1.094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45	2.351	2.196		
	모_의사소통과학대	.018	3.080	1.069		
	부모애착: 모_소외감	.046	3.093	1.388		
	부모애착-부_의사소통	.046	2.714	2.030		
	모형10	(상수)	.906	9.555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77	15.482	1.170		
부모애착-부_신뢰감		.078	4.166	2.418		
부모애착: 모_신뢰감		.052	2.621	2.144		
부모애착-부_소외감		.052	3.497	1.376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102	-4.729	1.099		
부모애착-모_의사소통		.028	1.358	2.540		
모_의사소통과학대		.075	2.900	20.564		
부모애착: 모_소외감		.045	3.043	1.388		
부모애착-부_의사소통		.048	2.837	2.036		
모형11	(상수)	.930	9.818		.370	79.365**
	학교적응_초5-6: 교우관계	.377	15.544	1.164		
	부모애착-부_신뢰감	.080	4.281	2.419		
	부모애착: 모_신뢰감	.062	3.607	1.660		
	부모애착-부_소외감	.049	3.356	1.370		
	더미변수 집단괴롭힘유무	-.082	-3.610	1.227		
	모_의사소통과학대(상호작용)	.093	3.862	18.033		
	부모애착: 모_소외감	.045	3.052	1.388		
	부모애착-부_의사소통	.058	3.897	1.564		
	부_신뢰감과학대(상호작용)	-.071	-2.983	17.783		
	집단괴롭힘과학대(상호작용)	-.014	-2.163	1.427		

\* p<0.05, \*\* p<0.001

Durbin-Watson = 1.953

용변수를 입력하지 않은 회귀분석결과 설명력은 36.6% 였으나 상호작용변수를 입력한 회귀분석결과 설명력이 37%로 0.4%정도 더 증가하여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아동학대는 어머니와 의사소통, 아버지의 신뢰감 그리

고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버지의 신뢰감과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상호작용하여 각각(부\_신뢰감과 학대 B= -.071, 집단괴롭힘과 학대 B= -.014)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의 아동학대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며 아동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며, 어머니나 어머니로부터 학대경험은 학교에서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상호작용하여 아이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IV. 논의 및 결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투입한 전체 예산 155조 6,377억 원 중 아동·청소년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5.62%인 8조7,40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관심이나 정책의 부족으로 2019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가 조사에 참여한 35개 국가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1%(25,380건), 대리양육자가 9.5% (2,930건), 친인척이 5.4% (1,661건), 타인이 1.8%(5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이 하위 수준에 이르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과 아동의 행복감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행복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의 상호작용 결과인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부모의 학대, 부모의 성취압력, 교우관계, 집단괴롭힘 등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변인 중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밝

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9년 제1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2,150명의 조사대상 아동(초등학교 5학년) 중 조사에 참여한 1,4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아동들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725명(51.3%), 여자가 687명(48.7%)이었다. 참여한 아동의 평균 월령은 136.44개월(SD=1.52)이었으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565만원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경인권이 31.0%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이 17.8%, 대전·충청·강원권이 14.7%, 광주·전라·제주권이 13.2%, 서울권이 12%, 대구·경북권이 11.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5점(SD=.44)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13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해에 실시한 국제아동삶의 질조사(ISCWeB)에서 나타난 한국 아동의 행복도 8.41점(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로 하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OECD(2015)의 How's Life에 제시된 아동 행복도의 결과에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를 대입해 비교해 보았을 때 OECD 가입국가 아동의 행복도 평균이 7.6점이었으나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평균은 6.6점으로 터키와 함께 맨 마지막 순위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과 재정지원 시 아동들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정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약 26%로 우리나라 아동의 4명당 1명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아동학대자 중 82.1%가 부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또래들의 집단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31%로 나타나 학교 내에서 또래의 집단괴롭힘 현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앞으로 아동의 행복감 증대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아동학대와 학교에서 또래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애착(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부모의 학대, 성취압력, 교우관계, 집단괴롭힘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부모애착의 하위요소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은 모두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행복감에 바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교우관계(B= .378)가 아동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에 또래로부터 집단적괴롭힘(B= -.105)은 아동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의사소통 등의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또래들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아동학대는 어머니와 의사소통, 아버지의 신뢰감 그리고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버지의 신뢰감과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상호작용하여 각각(부\_신뢰감과 학대 B= -.071, 집단괴롭힘과 학대 B= -.014)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아버지로부터의 아동학대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아동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며,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학대 경험은 학교에서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상호작용하여 아이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만큼 우리나라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며,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로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방지만이 아니라 집단괴롭힘도 학교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희경(2017),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중심으로, 『아동과 관리』, 21(1), 83-104.

김옥귀(201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이 우물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 응집력의 조절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김예슬,이주연(202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연합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김지연,이경열,이지현,신보원,이하연(2020), 아동이 인식하는 학교환경 및 방과후 놀이정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1271-1289.

김희화(2005),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6(1), 107-121.

문은식,문명화(2021), 부모-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 놀이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41(6), 261-283.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교 석사논문.

오아름(2017), 부모 학업성취 압력이 학습자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성취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우혜진,유연옥(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 36(2), 5-31.

염유식,김경미,이승원,김수미(2017),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

- 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염유식.김경미.이은주.이승원(201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민상(2020), 한국 아동들의 행복 격차, 「보건복지포럼」, 58-70.
- 윤연정.이미숙(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양육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4), 71-86.
- 정옥분(2015), 「청년발달의 이해(제3판)」, 서울:학지사.
-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최자은.문수배(2016),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 구조분석, 「인간발달연구」, 25(1), 147-167.
- 하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Kali, R.(2016), 「아동과 발달(제7판)」(권민균.김정민.최형성 공역), 서울:시그마프레스.
- Armsden, G. C., & Greenberg, M.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
- Parker, G.(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6), 555-560.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y,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Saha, R.,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R. F.(2010),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3(2), 149-165.
- MCS(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 뉴데일리/NewDaily 2022. 9. 27
- 중앙일보 2021. 6. 19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1쪽, 70쪽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 Abstract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Child Abuse

Cho, Joo Bog

In the past 16 years, a large amount of money has been investe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but in the absence of interest or policy on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arental abuse of children is increas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child's happiness and other factors that affect the child's happiness of parents' child abuse, which placed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lower group i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For this study, the 12th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was used for this study, and data from 1,412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ut of a total of 2,150 children (5th graders)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communication with mothers, feelings of alienation, and trust al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at child abuse by parents also had an effect on the happiness of children. It was found that peer relationship at school ( $B = .378$ ) had the greatest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and that group bullying from peers ( $B = -.105$ ) had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It was found that parental child abuse negatively affects children's happiness by interacting with father's trust and peer bullying.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child abuse from fathers destroys trust in fathers and reduces children's happiness, and experiences of abuse from fathers or mothers interact with peer bullying at school and reduce children's happines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at child abuse is a criminal act through continuous publicity and strict punishment for perpetrators to prevent further child abuse at home. In school, it will be said that attention and policy support are required so that collective bullying can be prevented at the same level as school violence, so that school life can be enjoyable.

**[Key words]** Parental child abuse, happiness, parental attachment, friendship, group bullying

---

---

---

# The Global Distribu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he Meaning of Forming a Global Korean Network

Hwang, Byungsoo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Currently, the life aspects and identity of 7.49 million Koreans living abroad across 18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nation-states and transforming into a transnational state due to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he concept of diaspora, characterized by forced migration from their home country, discrimination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strong attachment to their home country and instinct to return, may not be sufficient to explain those modern Koreans living abroad. Therefore, in the future, research on Koreans living abroad will be conducted in more diverse ways and from a more comprehensive point of view. It has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times to develop a network of overseas Koreans all over the world who have lived in isolation from each other in all parts of the world so far to become a cooperative body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nd a great Korean community. In particular, at this point in time where social problems are occurring because of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and low fertility along with the entr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significant in that Korea can find a new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by forming a transnational network that connects the home country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along with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Koreans living abroad.

**Key words:** Overseas Koreans, diaspora, Korean community, multi-cultural society, transnational network

---

## I. Introduction

The global Korean overseas community<sup>1)</sup>, which began to form in the mid-19th century, has now grown to about 7.49 million people in 180 countries<sup>2)</sup>. In the meantime, the Korean people have spread out worldwide as sugarcane workers in Hawaii and Mexico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s peasants, workers, and conscripts in Manchuria and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s workers, emigra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North America, Europe and Australia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after the 1960s.

However, the life aspects and identities of those who have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early settlement and have taken root in the local society and their descendants are now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and being transformed into a supranational due to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herefore, the concept of diaspora<sup>3)</sup>, which is characterized by forced migration from the home country,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of residence, strong attachment to the home country, and the simple instinct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may not be sufficient to explain modern Koreans living abroad with transnational life, and multiple identities.

The separation of Koreans residing abroad is actively progressing both out and inward, expanding the Korean ethnic community based on the

transnational network between Koreans living abroad and their home country. Until recently,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worldwide has grown to about 7.49 million, which is about 10% of the popu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oday, as we enter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 is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and social problems due to aging and low fertility. The method that Korea can find as a driving force for new development is to form a transnational network that connects the human resources of overseas Koreans with their home country and their country of residence. To this end,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migration motives and history of Koreans living abroad, their distribution patterns and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each region, and the type and level of social adaptation in the country of residence, etc. it is very significan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s living abroad and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global Korean network in the future.

## II. Characteristics of Korean Migration by Period and Region

Although the migration history of Koreans living abroad is short compared with other ethnic groups such as Jews, they have experienced a wide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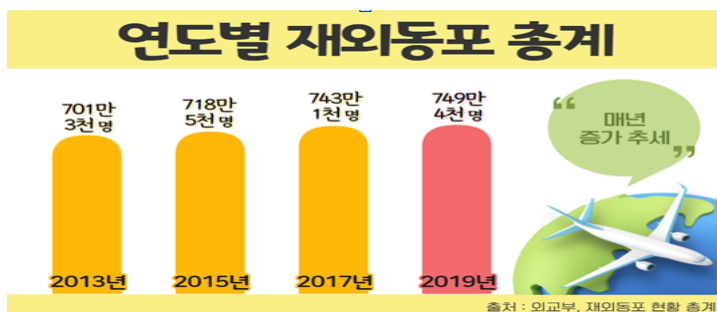
---

1) "Koreans living abroad" include both overseas Koreans who maintain Korean nationality (those who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a foreign country and overseas residents who hold Korean nationality) and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In this paper, the terms 'Korean overseas(Jaeoe-hanin)' and 'overseas Koreans(Jaeoe-dongpo)' are considered to have the same meaning and are used interchangeably depending on the context.

2) According to the tot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based 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2020,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worldwide is about 7.49 million, consisting of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nd overseas Koreans.

Source: <https://www.kyeonggi.com/2320358> (from the Internet Gyeonggi Ilbo "We are Koreans too... Overseas Korean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in their home country" (approved on 10.04. 2020))

3) The word diaspora was originally used to mean "wandering" of Jews, but is now interpreted in a broader sense to include the migration and exile of other peoples, migrant workers, and minority communities. The Korean diaspora refers to 'the separation of the Korean people, in which people of Korean ancestry leave their home country and migrate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Figure 1〉 Status of Overseas Koreans in the World

data: [https://blog.naver.com/hi\\_nso/222107344479](https://blog.naver.com/hi_nso/222107344479)

of migration and settlement, so that there is no place in the world where there are no Koreans. As of October 2020, it has formed a huge global Korean network with 7.49 million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about 18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migration history of Koreans living abroad can be roughly divided into four periods as follows: (Injin Yoon (2013), 18~30. Reference)

The first period was from the 1860s to 1910, when peasants and workers in the late Chosun Dynasty migrated across borders to China, Russia, Hawaii, Mexico, and Cuba to escape famine, poverty, and oppression. In the late 19th century, Chosun suffered severe hardship because of continuous drought, and as the Western Powers competed for supremacy in Chosun, wars and coups were frequent, leading to social chaos. Koreans who had gone to Manchuria in China and Primorsky Krai in the late Joseon Dynasty migrated for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s. And the 7,000 or so emigrants who arrived at the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USA around 1904,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mostly single men in their twenties. They invited 1,000 Korean women to Hawaii to form an emigrant family through a 'Photo Marriage' method. In 1905, about 1,000 people firstly left as contractors for the Eneken farm

in the Yucatan Peninsula of Mexico. Some of them relocated to Cuba in 1921 to escape the economic hard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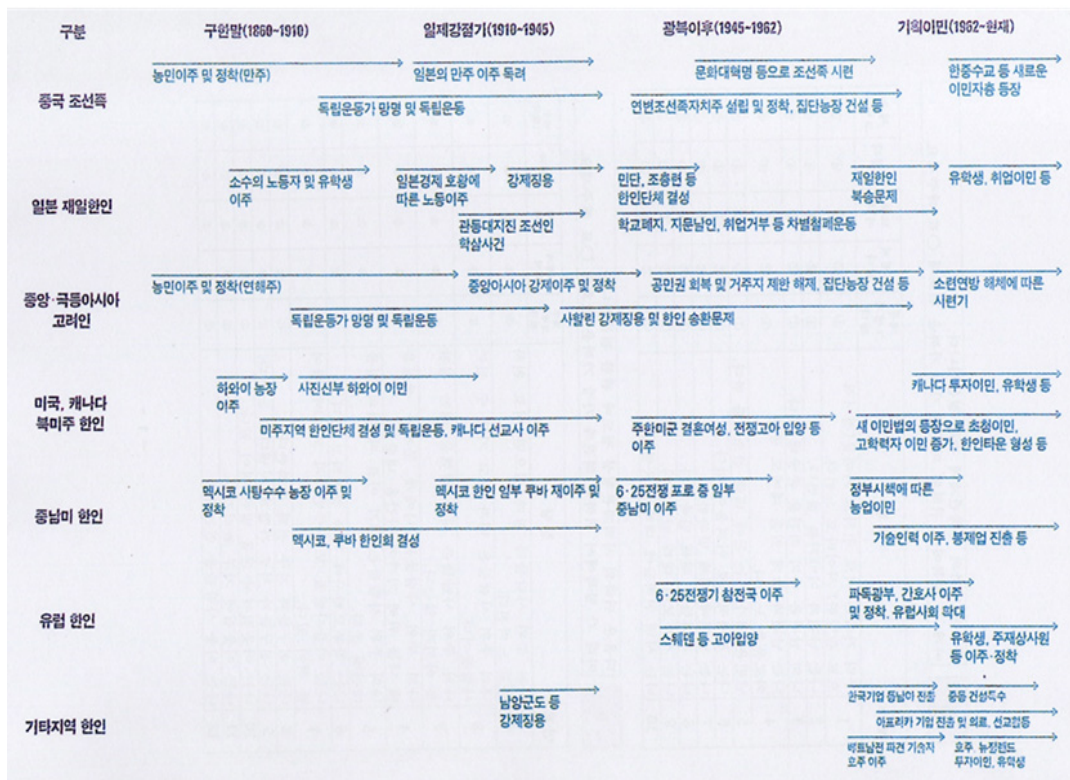
The second period is from 1910 to the liberation day of 1945. During this period, peasants and workers who were deprived of land and means of production under Japanese rule migrated to Manchuria and Japan. Also, during this period, political refugees and independence activists moved to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o launch independence movements. During the First World War, in response to Japan's economic boom, Koreans came to Japan as workers. And a large number of Koreans were taken to mines and battlefields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of 1937 and the Pacific War of 1941. The number of Koreans residing in Japan soared in this way, reaching about 2.3 million in August 1945, when Japan was defe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n plummeted to 600,000 in 1947 as many Koreans returned to their homeland after the war.

The third period is from 1945 to 1962, when the Korean government first established the immigration policy. During this period, war orphans, women married to US soldiers, children of mixed race, and students who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or Canada for the purpose of adoption, family reunification, and study abroad. Their size was about 6,000 Korean women who were spouses of the US military and about 5,000 children who were war orphans, mixed race children, or adopted children. About 6,000 international student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like Korean women married to American soldiers, laid the foundation for serial immigration where they could invite their families when the immigration door to the United States was opened in 1965. Under the Cold War system,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was divided into Chong-ryon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Min-dan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North Korea implemented an active and offensive policy of attracting all overseas Koreans including Zainichi ones to it.

From 1959 to 1984, a total of 90,000 Zainichi Koreans moved to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North Korean repatriation project, which coincided with the interests of Japan and North Korea. Most of them were discriminated against as an impure class, and many were imprisoned in political prison camps, leading to miserable lives.

The fourth period is from 1962 to the present, and from this point on, migration for the purpose of settlement began. Except for China, Japan,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most of the overseas Korean e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are people who migrated and settled there during this period. In 1962,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collective immigration and contract immigration to South America, Western Europe, the Middle East, and North America. The fundamental purpose of immigration policy at that time was to reduce



〈Table 1〉 The migration history of Koreans living abroad at a glance

Source: Injin Yoon, 201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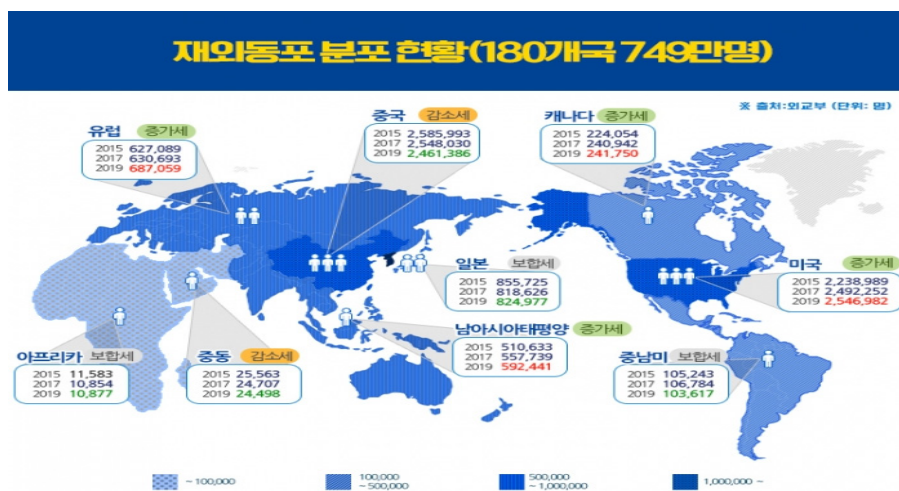
population pressure by sending the surplus population abroad and to earn foreign currency through remittances from Koreans working abroad. Starting with 103 agricultural emigrants who left for Brazil in 1963, they were invited by Latin American countries to Argentina, Paraguay, and Bolivia. Also, from 1963 to the 1970s, about 5,000 miners and 10,000 nurses emigrated to West Germany as contract workers. The soldiers and technicians dispatched to the Vietnam War from 1955 to 1975 also relocated to the Middle East,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after the end of the wa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society overseas. In the mid-1960s,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Act which was amended, the middle class who worked in white-collar jobs migrated most actively to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Canada. Afterwards, the immigration procession which peaked in the Middle East as construction workers in the 1980s, when the Middle East special was in full swing, began to decrease after the Seoul Olympics in 1988. On the contrary, reverse immigration also increased. Migration, however,

began to increase again, and migration to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increased in the form of business or employment migration rather than family invitations.

Here's a quick look at this diagrammatically:

### III. Regional Distribution of Overseas Koreans and Aspects by Local Adaptation

As discussed earlier, the separation of Koreans living abroad was caused by different factors for each period in their home country and country of residence. The migration motives,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human resources of Korean emigrants at each period differed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As a result, Korean expatriates from each region of the world were incorporated into the society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in different ways, and the aspects of the social problems they faced were quite different.



〈Figure 2〉 Distribution of Overseas Koreans by Region  
 data: <https://www.kyeonggi.com/2320358>

As of October 2020, the Korean communities, which are estimated at 7.49 million people in 180 countries, has a long history that has surpassed five generations in the 'history of Korean emigrants abroad', even if it is assumed that 30 years is one generation in general. And despite all kinds of adversity, each of them is filled with the wisdom of life that has brought about co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s living abroad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ir home country, their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Koreans living abroad themselves.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the home country at the time of migration determine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migrants and their motives for migration. Likewise, the migration and ethnic policies of the country of residence determine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migrants and the structure of opportunities there. Under these macroscopic and structural conditions, individual migrants are not passive beings, but active actors who seek to raise their status within a limited opportunity structure by actively using the human and social and cultural capital that they can mobilize.

According to these factors, as shown in the figure below, the emigration history and distribution patterns of Koreans living abroad can be examined by place(migration country). As such, the identities of Koreans living abroad have diversified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the influence they have on their home countries and countries of residence

has also changed.

First of all, Asia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region are the regions where Koreans living abroad first started emigrating. Overseas Koreans living here are still the most active in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with their home countries. The history of overseas Koreans here, which has been going on for over 160 years, is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eir home country.

'Koreans living in China'<sup>1)</sup> are experiencing unemployment and poverty as they are marginaliz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in China. In addition, they are experiencing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in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because of a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movement at home and abroad.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is causing a crisis of becoming Chinese(Han) ethnicization due to the outflow of talent, a decrease in the level of national education, and an increase in the Chinese(Han) population.

However, Koreans in China who migrated to large cities such as Beijing, Xianyang, Shanghai, and Qingdao are engaged in urban occupations such as commerce, sales, service, and production jobs, adapting to the capitalist economic environment, and using voluntary associations and tribal media to form a loose urban community. The rural kin communities in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are, therefore, dismantled or weakened, but the urban kin communities are revitalized.

Korean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

1) Titles of Koreans Overseas: Koreans living abroad have various titles depending on the history and ethnic policy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For example, Koreans residing in China are referred to as 'Joseonjok', and Koreans living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referred to as 'Koryoin'. Koreans in Japan are called 'Zainichi Koreans', and recently they are also simply-called 'Zainichi'.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y are locally called 'Korean American' or 'Korean Canadian', and they use these terms with pride to reveal their dual identity.

States, including Central Asia, suffered from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of the dissolu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89, discrimination due to nationalism preferentially to indigenous peoples, which had risen after the independence of Central Asian countries in 1991, and local problems such as loss of national language and extinction of national culture. Koreans who have migrated to Primorsky Krai or the Volgograd region of Russia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employment, housing, income, and education.

Zainichi Koreans are not immediately threatened by economic problems, however, they are also experiencing social problems. Discrimination at work, public offi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rapid assimilation into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are recognized as major social problems now by 2nd-and-3rd generations' marrying Japanese and becoming naturalized more easily. In addition, the number of 1st and 2nd gener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3rd and 4th generation are increasingly acquiring Japanese citizenship and assimilating as Japanese. The next generation with weak ties to their home country is now the mainstream of the Korean-Japanese society. On the other hand, Koreans who came to Japan in 1989 as a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are called 'New Comers'. They have different occupations, lifestyles, and identities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the 'Ole Timer,' and are breathing fresh vitality into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The history of Korean emigrants to the Americas, which started as workers on sugar cane farms in Hawaii in the early 20th century, has been diversified through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economic revival and the hosting of the 1988 Seoul Olympic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has the closest diplomatic,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with Korea,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Compared with Koreans in other regions, Korean Americans live in a relatively affluent and free environment. It can be said that the problem of survival has now been overcome to some extent, and racism is prohibited at least in the realm of laws and institutions. Instead,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mental issues such as ethnic identity, extra-racial marriage, generational conflic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re emerging as issues. After the April 29 riots in 1992, relations with black people showed signs of improvement, but from today's point of view, the gap between perceptions between Koreans and blacks has not been narrowed, and they only contact each other when necessary. Moreover, Korean business owners are experiencing problems such as illegal employment of immigrants, low wages, excessive working hou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Latino immigrants, whom they hire a lot as employees.

Canadian Koreans have a shorter history of emigration and settlement than the United States, so they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Therefore, economic issues such as unemployment an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re still becoming an issue. In particular, the majority of Koreans who have recently moved to Canada are those in their 30s and 40s with high education, professionals, and white-collar workers. As Canadian employers require local work experience, they are unable to find a job in their field of study and are instead seeking to switch to self-employment or technical jobs.

Although they are not formal emigrants also, a larg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staying for the purpose of studying abroad early. Many of them are having difficulties adjusting to local society due to poor academic performance, emotional instability from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and poor home education.

Koreans in Latin America have a very severe immigration history, leaving a large gap between emigrant generations. The descendants of the early emigrants who migrated to Mexico in the early 20th century were assimilated into the local culture, making it difficult to find their identity as Korean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emigrated as agricultural migrants in the early 1960s and by family invitation and investment emigrants in the 1980s have great identity and pride as Koreans. As a result, there is no real exchange between the descendants of the early emigrants and the late emigrants, and the Mexican Korean society is mainly operated by the late emigrants.

Korean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including Mexico, focused on the clothing industry to establish an economic foundation and focus on educating their children, but their will to settle in Latin American countries was relatively weak. This lack of will to settle there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Korean-Latin American community because the countries concerned a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stable. In addition, many Koreans are concentrated in a limited industry, which leads to excessive competition among Korean merchants, and anti-Korean sentiment is also emerging in this area because Korean merchants do not comply with local laws.

Compared with the migration of Koreans to Asia

and the Americas,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to Europe is short and the number of Koreans is small. And the number of short-term residents is rather large to be called emigrants. After the Korean War, Koreans migrated to Europe in various stages, including the adoption of war orphans, labor emigration of miners and nurses, academic emigr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job emigration of business resident workers. There are many former miners and nurses in Germany, Switzerland, and Austria, and there are many foreign students and business resident workers in England, France, Italy and Spain. Until the 1980s, the majority of Koreans were in Germany, but from the 1990s, the UK became the center of European Korean society.

As European countries do not actively accept emigrants like American countries, the Korean community in Europe is unlikely to grow significantly in the future. However, as a free trade agreement (FTA) was signed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in 2011 to promote mutual trade, if tourists, international students, business expatriates and their families frequently visit, the number of settlers among them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The economic adaptation patterns of Koreans in Oceania, such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are similar to those of overseas Koreans in other regions. In the early days of entry, they engage in manual labor or personal service in factories, construction sites, and restaurants, and then start small-scale self-employment after raising some capital through self and family work. Since most Korean businesses are, however, concentrated in industries targeting Korean customers, their profit margins are falling due to cut-throat competition, and they are vulnerable to economic fluctuations in their home country

because they are mainly dependent on Korean tourists. Therefore, future tasks are to diversify business sectors and customer bases, improve professionalism and profitability, and develop capabilities to control excessive competition among Korean businesses.

In particular, the Korean community in New Zealand has a shorter history and fewer Koreans than the Korean community in Australia. As the domestic market is small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 way out of a prolonged recession, Koreans are increasingly relocating to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re are many Koreans who relocate to Australia for their children's college education in particular, so the Korean community in New Zealand is in a difficult situation.

As mentioned above, the adaptation patterns of Koreans scattered around the world to their country of residence vary greatly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Accordingly, we can classify into the following four types of criteria by considering the degree of maintaining the culture and identity of the home country and the degree of accepting the local society and culture of the resident country and participating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there. (Injin Yoon (2013): 245.)

- 1) Isolation: Rejecting the society and culture of the host country and not participating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while maintaining only the culture and identity of the home country.
- 2) Assimilation: Losing the culture and identity of the mother country, accepting the society and culture of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participating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 3) Acceptance: At the midpoint between 'isolation' and 'assimilation', an eclectic style of accommodating the society and culture of the host country and participating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while maintaining the culture and identity of the home country.
- 4) Marginalization: Not belonging to either side of the above.

〈Trends of Overseas Koreans' Cultural Adaptation Aspects by Major Distribution Area〉<sup>1)</sup>

- 1) Koreans in China : isolation type -> acceptance type -> assimilation type.
- 2) Korean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isolation type -> acceptance type -> assimilation type.
- 3) Koreans in Japan : isolation type -> acceptance type -> assimilation type.
- 4) Korean Americans : (initial) isolation type -> (current) acceptance type -> the trend is changing to assimilation type from the second generation of emigrants.
- 5) Korean Canadians : (initial) isolation type -> (current) acceptance type -> transition to assimilation type from the second generation of emigrants.
- 6) Latin American Koreans :  
(initial) isolation type -> (current) acceptance type.
- 7) Korean Australians : (initial) converted from isolation to accepting -> (current) a mixture of isolation and acceptance.
- 8) Koreans in Europe : (current) mixed pattern of isolation and acceptance.
- 9) Overseas adoptees : (current) assimilation type is dominant.

1) Injin Yoon (2013), 245-53 summary.

## IV. Formation of a Global Network of Koreans Living Abroad and Our Challenges

Although the history of Korean emigrants abroad for about 160 years has shown diversity by country and region, if we can roughly divide the time period,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old-emigrants' who migrated to Russia,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Mexico, and Cuba in the mid-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nd the 'new emigrants' who 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Canada, Brazil, Argentina, Paraguay, Germany, England, France, Australia, and New Zealand after the 1960s.

Old emigrants are people who emigrated because of negative conditions in their home country such as famine, oppression, war, and colonial rule. Their hierarchical background was mainly from the lower classes such as peasants, workers, and lower-class soldiers, and they had a strong tendency to stay temporarily rather than settle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On the other hand, new emigrants were as strongly attracted to the 'attraction factors' of their host country (high standard of living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much as the 'emission factors' from their home country. Many of these people were from the city, high-educated, white-collar workers, and middle-class workers, and many of them had the goal of permanent settlement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from the beginning. As a result, new emigrants achieved a rapid rise in status, such as acquiring a middle-class status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within the first generation of emigrants.

Another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old and new

emigrants is the distribution of regions where they migrated. While the old emigrants mainly migrated to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emigrants migrated not only to geographically distant regions such as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nd Europe, but also mainly to white cultures. Therefore, the new emigrants suffered a greater cultural shock than the old emigrants and had to adapt to the white-centered culture as a minority of color.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late 1980s, when the Cold War system was maintain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Korean community abroad maintained an isolated life without much interaction with each other. However, a change occurred when overseas travel was liberalized in 1989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in the early 1990s. As Koreans travel abroad more actively, Koreans living abroad began to mix old and new emigrant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cultures, and identities even though they had the same ethnicity.

For example, in Shokwandori in Tokyo, Japan, Wanging in Beijing, China, and Flushing in New York, USA, overseas Koreans born in Japan, China, or Korea coexist, creating a complex relationship of symbiosis and conflict. In addition,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entered South Korea, then defected from South Korea and joined the group, are also establishing a new foothold in the Korean community abroad.

The link among the overseas Korean communities has been strengthened because of the continuous emigration of overseas Koreans. Many Koreans who migrated to Brazil and Argentina in the 1970s did not settle there and r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garment sewing industry they

worked in South America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Fashion District', a clothing store located in downtown Los Angeles, USA later.

In addition, miners and nurses dispatched to West Germany in the early 1960s played a decisive role in establishing the economic and cultural found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by relocating to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after their contracts were terminated. They overcame the initial difficulties with strong vitality and solidarity, and succeeded as entrepreneurs, scholars, and pastors, giving vitality to the Korean society abroad.

The soldiers and engineers dispatched to the Vietnam War that lasted from 1965 to 1973 relocated to the Middle East,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after the war was ove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community abroad. The second-generation emigrants, who grew up on the economic foundation built up with sweat and tears by the first generations of emigrants, are now adults and grow up as leaders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or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in search of study, employment, and business opportunities.

The Korean diaspora, which began as they dispersed into different regions at different times, and the subsequent continuous emigrations were not initially intended, but as a result, a transnational network was formed between the home country,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Contemporary Koreans living abroad are living in a transnational space in which time and space are compress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th more dynamic and flexible multiple identities than in the past.

The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patterns that

Koreans living abroad show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are not the same depending on the period and country of residence, usually the isolation type prevails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but the acceptance or assimilation type increases as the residence period becomes longer. Even within the same group of Koreans living abroad, it is common that various types of adaptation coexist and have multiple ethnic identities. However, Koreans living abroad generally have in common that they try to accept the culture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and participate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in order to survive while living as 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As an ethnic minority of color, in a situation where they are differentiated and discriminated by the majority ruling group, Koreans there come to realize that complete assimilation into the society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is impossible. In this situation, Koreans tend to adopt a strategy of acceptance that maintains their national culture and identity while seeking to raise their status within the limited opportunity structure of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

As the period of residence becomes longer and the emigrant generation shifts from the 1st and 2nd generations to the 3rd and 4th generations, however, the proportion of Koreans' residence value shifts from the home country to the country of residence. For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emigrants, national culture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preserved, but something that needs to be learned anew. As the possibility of marriage among the same people decreases and contacts and exchanges with other ethnicities and races in the country of residence become more active,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emigrants move away from the ethnic community

and experience a weakening of their national identity. As a result, in the long run, the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pattern of Koreans changes from the acceptance type to the assimilation type.

After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by the way, new conditions emerged that could slow this overall trend. Due to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Koreans living abroad have transcended the barriers of time and space, and have changed into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freely travel between their home country and their country of residence. And their identity has taken on a flexible and multifaceted form that is not limited to either the home country or the country of residence.

As an example, the economic life, and family life of Koreans living in China is taking place in Northeast Asia as a transnational space, and Korean Americans born and raised in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in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have entered Korea. Therefore, the transnational network between the home country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may arouse a strong desire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the home country in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s living abroad, who may disappear as a result of assimilation into the mainstream social culture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t can be predicted that among the next generation Koreans living abroad, therefore,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will be revived and there will be more people who want to actively utilize the network with their home country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In general, Koreans living abroad maintain a strong ethnic identity and attachment not only to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ith relatively short emigration history, but also to Koreans from China, Japan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with a long emigration history. Ethnicity is not just a symbolic meaning, it has practical meaning in one's life opportunities such as occupation, marriage, friendship, and faith, and becomes an important basis for social relationships. Their ethnicity, however, tends to have a dual identity that emphasizes not only the lineage and traditional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but also the collective experienc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lso, in a transnational environment, Koreans living abroad are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families by utilizing networks with their home countries. Through employment, education, and marriage opportunities in their home country, the next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will become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ch in turn strengthens their attachment to and solidarity with their home country.

Despite the above general commona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society abroad will be further differentiated internally according to generations, emigration periods, social classes, etc. Differences and conflicts between social groups with conflicting values and lifestyles, such as first-generation emigrants and the next generation, old timers and newcomers, workers and capitalists, Koreatown residents and suburban residents, are expected to intensify. How to reconcile and integrate these differences and conflicts between internal groups and use them as a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abroad is a significant task for the Korean community abroad in the future. Also, it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of our times to develop the Korean community as a cooperative body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y connecting overseas Koreans from all over the



〈Figure 3〉 Measures to revitalize the Korean diaspora community abroad

자료: [http://www.hansang.or.kr/submu\\_1/index.php?mode=2](http://www.hansang.or.kr/submu_1/index.php?mode=2)

부서명	주요사업
동포단체지원부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연구소동부	홍보사업 문화사업 조사연구사업 자료실 운영 인권지원 사업
교육사업부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교사육성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차세대사업부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한상사업부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세계한상대회
e-한민족사업부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운영

〈Table 2〉 Current major projects according to the business details under the Act (Article 7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

data: <http://www.okf.or.kr/homepage/index.do> (Overseas Koreans Foundation website)

world who have lived in isolation from each other until now.

In order to achieve this great task, it is possible to think of ways to revitalize the overseas Korean diaspora community scattered around the world. As specific activities, tasks such as ‘building a global Korean network community through global diaspora research’, ‘building a knowledge information network of Koreans living abroad’,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global network of Koreans living abroad and their home countries’ can be sugges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global Korean network while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worl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cently announced an inclusive overseas Korean policy for 7.49 million overseas Korean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idential Business Report for 2022: Key Implementation Tasks and Implementation Plans'. The following three tasks below were officially announced to expand the digital projection service capabilities.<sup>1)</sup>

- 1)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NEWS No. 452 (issued on July 25, 2022)

Koreans through reorganization of existing-organizations and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and providing one-stop civil service

- 2)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ortal for consular services to provide domestic-level administrative services abroad and introduction of non-face-to-face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 for overseas citizens
- 3) Operation of 24-hour overseas safety protection center and consular call center to strengthen prevention and response to overseas disasters and incidents, and active use of digital private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unched in 1997, is also conducting various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Korean network while maintaining the ethnic identity of overseas Koreans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settling as exemplary members of the that society. All activities in the chart below are currently supported as major projects.

## V. Conclusion and Suggestions

The Korean society abroad is expected to be further differentiated internally according to generation, emigration period, social classes, etc. Now, we go beyond the limits of specific regional and fragmentary studies of Koreans living abroad, and share the history of the e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s living abroad and overseas adoptees in Asia, Africa, South-North America, Europe and Oceania.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ir adaptation to the local society and culture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Overseas Korean national elections have been held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April 2012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12.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increases, Koreans living abroad are no longer 'overseas' but are living as important social members in their home countries. Due to the increase in immigrants by globalization, our current Korean society, which has to find a new way of coexistence and integration between indigenous Korean and immigrants, should make the most of the useful lessons that can be learned from the history of Korean emigrants abroad. We need to take the new wisdom of other Koreans living abroad by reflecting on their experience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and integration.

Therefore, future research on Koreans living abroad should be conducted in various ways an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most significant task of the times is to develop a great Korean community as a cooperative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y networking overseas Koreans who have lived in isolation from each other in all parts of the world so far. In conclusion, we can make the most use of examples and experiences of Koreans living abroad in a multi-racial and multi-ethnic society for our country which is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now.

## References

- Back, T-H.(2001), "The Social Reality Faced by Ethnic Koreans in Central Asia", *Koryo Saram: Koreans in the Former USSR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2, 45-88.

- IOM(2008), *Situation Report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Bankok: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Noh, S., & Moon, M.(2012), "Acculturation Stress among Korean Immigrants", *Korean Immigrants in Canada: Perspectives on Migration, Integration, and the Family*(S. Noh, A. Kim, & M. Noh ed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33-148.
- Yamanaka, K.(2010),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for Immigrant Rights in Japan and South Korea: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Unskilled Immigration Policy", *Korea Observer*, 41(4), 615-647.
- Yu, E-Y., Choe, P., & Han, S-I.(2002),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0: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6(1), 71-107.
- 김영술(2008).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 연구 (장보고 상단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김용호(2001). 『민족통합의 새로운 개념과 이론의 정립 :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구상』, 한국세계지역학회.
- 윤인진(2008). 『코리아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인문사회과학총서 55),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2013). 『세계의 한인이주사』(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0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주)나남출판사.
- 이내영·윤인진,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2005-2015)』, 동아시아연구원.
- 이미선(2005). "해외입양인의 사후관리서비스에 관한 조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5.
- 임영상 외(2013).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재외한인학회총서 IV), 북코리아.
- 임채완 외(2013). 『코리아 디아스포라 : 이주루트와 기억』(전남대학교 세계한상 문화연구 5차 총서 (1)), 북코리아.
- 임채완·전형권(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구글 홈페이지 - <https://www.google.co.kr>
- 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 <https://terms.naver.com>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https://www.mofa.go.kr>  
위키백과 홈페이지 - <https://ko.wikipedia.org/wiki>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 [www.okf.or.kr](http://www.okf.or.kr)

## 국문초록

# 재외한인의 세계적 분포 양상과 글로벌 코리아네트워크 형성의 의미

황병수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걸쳐 740만명에 이르는 재외한인들의 생활세계와 정체성은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超)국가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모국으로부터의 강제이주, 거주국에서의 차별, 모국에 대한 강한 애착과 귀환본능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디아스포라(diaspora) 개념만으로는 이들 현대적 재외한인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일지 모른다. 고로 향후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방식과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지금까지 지구촌 도처에서 서로 고립된 존재로 살아온 세계 각국의 재외한인들을 서로 네트워크화하여 공존공영의 협력체이자 위대한 한민족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재외한인의 인적 자원 개발과 함께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주제어:** 재외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 한민족공동체, 다문화사회, 초(超) 국가적 네트워크

\* 필자 정보

**황병수** : hwan5827@gwnu.ac.kr,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담당분야는 국제사회 복지이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주 추이 분석

김규찬(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조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20년 초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글로벌 인구이동 동향 및 한국으로의 국제이주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세계 각국은 보건 규제와 함께 다양한 이동(여행 및 이주) 통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국제적 인구이동(mobility)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이주민의 수도 따라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부적 변동 유형은 이주민의 출신국과 이주민 유형 간 상당한 격차가 발견된다. 한편, 한국은 전면적인 국경폐쇄나 지역봉쇄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유입 및 체류외국인 규모가 급감했다. 그러나 이동(이주) 추이는 글로벌 유형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제이주 현상에 내재된 불평등과 팬데믹 대응에서 의료·보건 정책과 함께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어: 코로나-19, 인구이동, 국제이주, 이민정책

### I. 서론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발병, 확산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동은 현대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제를 포함한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얼마나 사람의 이동(mobility)에 의존해 있었는지 환기하는 극적인 경험이 되었다. Urry(2007)가 지적하듯이 지난 세기에 걸쳐 발달한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자본,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문화 그리고 사람의 이동은 매우 활발해졌다. 특히 사람의 국가 간 이동, 즉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가장 핵심적인 촉발요소(agent)로 볼 수 있다(Cohen and Kennedy, 2013). De Haas 등(de Haas, et al., 2020)은 점점 더 많은 지역과 국가들이

이민 송출국, 수용국, 경유국으로서 국제이주에 관여되고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다(조일준, 2016). 사람의 글로벌 이동은 경제 및 문화 활성화와 같은 여러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심각한 문제점 역시 동반된다. 예컨대, 마약, 무기, 폭력, 빈곤, 인종주의와 함께 종종 치명적인 전염병이 이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파된다(George and Page, 2004; Diamond, 1997).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22'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수는 1970년에서 2020년까지 50년 동안 약 세 배가 증가했다(McAuliffe and Triandafyllidou, 2021). 이러한 극적인 이주민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세계인구 대비 이주민의 비중은 같은 기간 2.3%~3.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엄밀히 말해, 난민을 포함하여 '이주민 폭등'의 내러티브

(narratives)는 신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국가에서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유출 및 유입 이주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Hollifield, 2014).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이주, 사회문제, 국가정책의 복합적이고 풀기 어려운 상호관계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영역이지만, 국제이주민이 매개가 된다는 면에서 명백히 이민정책의 영역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각국의 이민정책(출입국, 체류관리)의 효율성을 시험하는 계기였고, 실제로 국경관리를 포함한 이민정책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했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경제위기는 이주를 위축시켰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전면적인 감소는 없었으며, 전면적인 국경폐쇄를 포함한 극단적인 이민정책적 대응 역시 드물었다.

이 논문은 코로나-19(Covid-19)의 글로벌 확산이 시작된 이후 2021년 말까지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세계 및 한국으로의 국제이주가 실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규모와 유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pandemic)이 국제이주 흐름에 미치는 다면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것이 코로나-19 이후(post-Covid19) 이민정책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다. 이어지는 제II절에서는 글로벌 동향을, 제III절에는 한국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다.

## II. 글로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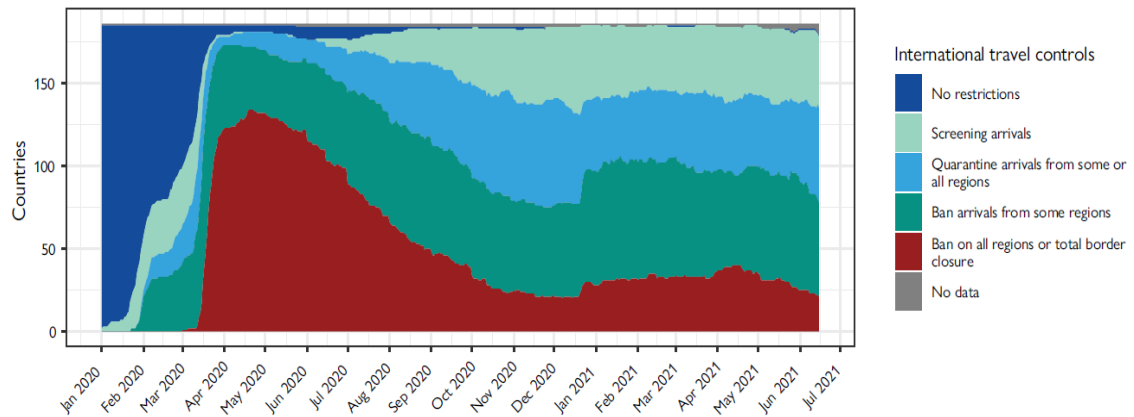
활발한 국제적 인구이동이 생성하는 대중적 이미지에 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96.4%)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국제이주민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70년 8천4백만 명에서, 1990년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2억 8천만 명에 육박했다(표 1 참조). 그렇다면 코로나-19는 국제이주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McAuliffe and Triandafyllidou(2021: 23)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확산 초기(2020년) 국제이주민의 수(저량)를 2백만 명 정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달리 말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2020년의 이주민 인구는 약 2억 8천 3백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00년에 걸쳐 가장 심각한 전염병으로 평가된다. 높은 전염력, 변이, 그리고 병의 중증도로 인해 정책가(policy makers)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정책적 선택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정책

〈표 1〉 국제이주민 수 추이(1970-2020)

년도	국제이주민 수(명)	세계인구 대비 국제이주민 비중(%)
1970	84,460,125	2.3
1975	90,368,010	2.2
1980	101,983,149	2.3
1985	113,206,691	2.3
1990	152,986,157	2.9
1995	161,289,976	2.8
2000	173,230,585	2.8
2005	191,446,828	2.9
2010	220,983,187	3.2
2015	247,958,644	3.4
2020	280,598,105	3.6

출처: McAuliffe and Triandafyllidou, 2021, p.23



〈그림 1〉 코로나-19관련 국제 이동 규제 조치들(2020년 6월~2021년 7월, 모든 국가)

출처: Hale et al., 2021, McAuliffe and Triandafyllidou(2021: 32)에서 재인용

대응의 주된 초점은 주로 바이러스 검사, 치료, 예방접종과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에 맞춰졌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적어도 확산 초기 정책 대응의 중요한 축은 전 세계에 걸친 ‘이동의 자유’에 대한 극적 제한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 영향으로 국제이주는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야기한 ‘비이동(immobility) 조치들’은 국제이주의 “거대한 방해자”(the “great disrupter” of migration)로 불릴 만 하다 (McAuliffe and Triandafyllidou, 2021: 32).

2020년은 모든 유형의 국가 간 이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며 인간 이동(human mobility)의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Benton et al., 2021). 코로나-19 팬데믹은 관광 및 사업목적 여행을 중단시켰으며 노동이주를 크게 제약하고 유학 및 가족재결합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인구 이동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초기에는 발병 지역을 오가는 이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국경폐쇄의 규모는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런 조치는 심지어 유럽에서 자유로운 인구 이동이 보장받는 지역, 즉 ‘셴겐지역(Schengen Area)’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0년 6월부터는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일정 기간 의무격리 등 보건 조치(health measures)가 서서히 국경폐쇄 조치를 대체했다. 일부 국가는 국경폐쇄를 유지(호주, 뉴질랜드)했지만, 카리비안 국가들을 포함해 국가경제에서 관광이 중요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광 여행을 재허용하

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는 전면적 국경폐쇄 대신 사증(visa)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별적으로 이동을 통제했다. 이후는 바이러스 변이 출현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별 대응이 혼재했다. 이동 규제와 보건 규제가 혼합되었다. 격리는 서서히 완화되면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보편화되었다. 미국은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모든 항공 승객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특정 국가나 지역을 오가는 이동 경로 통제도 일부 지속되었다. EU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더 강도 높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수정했다.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 조치 및 국경폐쇄는 이주민과 여행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Benton et al.(2021)에 따르면, 2020년 7월 중반까지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3백만의 사람들이 여권 및 비자 발급에 관한 영사서비스(consular assistance)를 받지 못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일부는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피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졌으며, 이동(이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과밀화된 난민 캠프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전체적인 이동의 제한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가능성 혹은 전망(mobility prospects)은 집단별로 상이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예컨대 비즈니스 여행자)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게 이동을 계속했으나, 상당수 여행자·이주자들은 급등한 항공료를 포함한 높은 비용과 격리와 같은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백신 접종자에게만 이동을 허락하면서 계층/집단 간의 이동성 격차는 더 커졌다.

생존을 위해 이동(mobility)을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졌다(Benton et al., 2021).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한은 내전, 빈곤, 환경재앙 등의 위기를 피해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주를 고려했던 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국경통제 및 이동규제로 타격을 입은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체류 중 실직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나라에 체류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편, 이동제한은 많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이동, 입국, 취업을 위해 브로커나 에이전시(agency) 등 중간매개자(intermediaries and facilitators)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Benton et al., 2021). 이는 부분적으로 이주민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이주 가능성과 경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국경폐쇄나 제한 상황에서 약탈적 브로커들에 의지하게 된 이주민과 난민들은 더 큰 비용과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2021년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들은 안전한 방식으로 국제적 인구이동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며,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인 입국통제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Benton et al., 2022). 2021년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도입했던 다양한 이동규제들을 유지했으나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 '예외규정(exceptions)'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자국민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해외로부터 귀국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외교인력, 보건인력, 사업가, 월경노동자들(cross-border commuters), 그리고 접종완료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점차 확대했다. 또한 백신접종이 여의치 않은 자녀들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격리의무와 기간도 완화했다.

2021년 중반이후 다양한 코로나-19 변종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국가들의 대응은 더욱 다양해졌다(Benton et al., 2022). 일부 국가는 최근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지역간, 국제적 인구이동을 고도로 통제했다.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고 통제가 해제된 국가들에서도 국제이주는 상당히 위축되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여행과 사업목적 여행은 거의 회복되었지만 팬데믹 이전을 밀돌고 있다. 유학목적 이주도 재개되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며, 한때 영사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적체·지연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터뷰 의무 면제나 원격 비자 처리의 도입 등과 같은 혁신은 이민시스템이 계속 기능하도록 도왔다. 팬데믹 외중에도 일손 부족을 심각하게 겪는 일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글로벌 수준에서 보자면,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적 인구 이동·이주는 다양한 정책적 조치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크게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동하는 자(movers)와 비이동자(non-movers)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견된다. 감염 검사, 격리 및 기타 요구사항에 수반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이주 기회와 경로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다. 반면, 백신 접종의 불공평한 접근과 이동제한 조치에 의해 크게 증가한 국경 통과 비용으로 말미암아 이주(희망)자들은 불확실성, 폭력, 착취 및 학대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 밀입국, 인신매매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 III. 한국 동향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가장 빠르게 이주민을 보내는 나라에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변모한 국가 중 하나이다(Kim, 2017). 1990년대 초부터 다양한 유형의 장·단기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일

〈표 2〉 출입국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입국자 수	계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국민		53,445,030	57,859,670	57,795,389	9,171,481	2,432,517
	외국인		26,962,672	31,048,750	35,752,704	5,530,350	2,127,176
전년 대비	계		0.5%	10.6%	5.2%	-84.3%	-69.0%
	국민		17.9%	8.3%	-0.1%	-84.1%	-73.5%
	외국인		-22.2%	15.2%	15.2%	-84.5%	-61.5%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20

부는 영구히 정착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이민 정착국으로의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발전, 민주주의의 정착, 한류의 전파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와 함께 세계화(globalization)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였다(신광영, 2006). 1996년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 이후에는 한국은 글로벌 경제체제에 빠르게 통합되었고, 자본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그리고 사람이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드나드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이민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 한국으로의 이주민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본 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21년 사이의 한국의 방역 및 이동통제의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고,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의 유형별 규모 변화를 분석한다.

### 1. 방역 및 이동통제의 방식

한국은 중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및 확산이 이루어진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 봉쇄(lock-down)나 국경 폐쇄와 같은 극단적 이동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출입국정책 강화,

정보 기술을 활용한 감염 모니터링과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대응 방안에 집중했다(IOM, 2020). 정부는 팬데믹 대응의 원칙으로서 개방(openness), 투명성(transparency), 포용성(inclusiveness)을 제시하며 인구와 상품의 이동억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IOM, 2020: 2).

방역정책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정책 차원에서의 대응도 극단을 피하고 유연했다(IOM, 2020). 2020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초기 중국 일부 지역, 일본 등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통제하기도 했다. 또한 90개 국과 무비자 입국 협정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백신이 활용가능해진 2021년부터는 사전 검사(음성)확인서 제출과 의무격리를 전제로 입국이 대체로 정상화되었다.

### 2. 출입국자 추이

상식적이지만 외국인이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경이 개방되어야 하고 출입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입국자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포함되며, 모든 외국인 입국자가 소위 '이주민(immigrant)<sup>1)</sup>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유량(flow)은 이주민의 저장(stock)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에 중요하다.

1) 국제적으로 이주민은 1년을 초과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하나, 한국정부는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거주기간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보아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이주민'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2009년 3,521만 명이었던 출입국자는 10년 만인 2019년 2.6배 이상 증가한 9,355만 명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출입국자 수는 1980년대 수준인 46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9). 이는 전년 대비 69% 감소한 수준이다. 2020년 대비 국민 출입국자는 73.5% 감소, 외국인 출입국자는 61.5% 감소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9). 이러한 출입국자 수 급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각국의 국경 통제, 여행 자제로 인해 국민의 출국자 수가 줄어들고,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및 사증발급 심사 강화 등 코로나-19 해외 유입 억제 조치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이 대폭 감소한 탓이다.

외국인 입국자 현황만 보면, 그동안 증가세를 이어오던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 2,659,845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15,220,658명이 줄어들었으며, 2021년 외국인 입국자는 1,044,545명으로 전년 대비 1,615,300명이 추가로 감소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30).

### 3. 체류외국인 추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지위와 성격을 갖고

〈표 3〉 체류외국인 자격별·연도별 현황

( 단 위 : 명 )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사증면제(B-1)	177,629	228,194	248,753	179,332	165,869
관광통과(B-2)	121,725	149,474	204,541	51,977	43,673
단기방문(C-3)	199,518	218,743	256,696	114,261	97,225
단기취업(C-4)	1,719	1,302	1,645	2,356	1,691
유학(D-2)	86,875	102,690	118,254	101,810	111,178
기술연수(D-3)	2,705	2,461	1,964	1,634	1,654
일반연수(D-4)	49,939	59,729	63,691	52,952	53,870
종교(D-6)	1,723	1,594	1,561	1,254	1,378
주재(D-7)	1,340	1,308	1,400	1,057	1,028
기업투자(D-8)	5,939	5,889	5,909	5,587	5,955
무역경영(D-9)	2,982	2,520	2,352	2,136	2,053
교수(E-1)	2,427	2,341	2,187	2,053	2,017
회화지도(E-2)	14,352	13,749	13,910	12,621	13,403
연구(E-3)	3,214	3,145	3,132	3,110	3,638
예술홍행(E-6)	3,704	3,633	3,549	3,011	3,285
특정활동(E-7)	21,206	21,884	21,314	19,534	20,675
비전문취업(E-9)	279,127	280,312	276,755	236,950	217,729
선원취업(E-10)	16,069	17,447	17,603	17,552	17,921
방문동거(F-1)	111,449	118,192	122,886	105,382	96,015
거주(F-2)	40,594	41,099	43,671	43,666	42,367
동반(F-3)	22,457	22,360	22,890	20,050	21,237
재외동포(F-4)	415,121	444,880	464,152	466,682	478,442
영주(F-5)	136,334	142,151	153,291	160,947	168,118
결혼이민(F-6)	155,457	159,206	166,025	168,594	133,987
기타(G-1)	21,197	29,822	36,507	33,196	30,158
방문취업(H-2)	238,880	250,381	226,322	154,537	125,493
기타	46,816	43,101	43,696	73,834	96,722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43

있는 '체류외국인'은 코로나-19 확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2).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7%로 증가했던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956,781명으로, 2020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이 결과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7년 4.21%에서 2021년 3.79%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42). 체류자격별로 보면, 단기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자격 소지가 202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정주자격인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한국의 이주민 증가를 견인해 왔던 주요 이주민 유형인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자격을 가진 체류외국인의 수는 2019년 56만 7천 명에서 2020년 45만 2천 명, 2021년에는 40만 6천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그러나 기술수준 별로 보면 대조가 발견되어 흥미롭다. 우선 단순기능인력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체 등의 인력난을 해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3회에 걸쳐 165,333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비전문취업 체류외국인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48).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단순기능인력의 입국이 코로나-19로 제한된 이유가 컸다. 구체적으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의 감소폭이 컸다. 다만 팬데믹 와중에 놓여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새롭게 추가된 계절근로(E-8) 자격소지자가 2021년에 383명 새로 도입된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비전문인력의 추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인력자격(C-4, E-1에서 E-7) 소지자는 2020년에는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45,14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결혼을 매개로 한 국내 이주(결혼이주)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급증했다. 상업적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결혼이민(F-6, 2011년 신설) 사증 발급 요건 강화(2014년) 조치 이후에도 결혼이민자 유입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결혼이민자의 수는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표 4> 취업자격 기술수준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계		567,261	452,297	406,669
전문인력	소계	46,581	43,258	45,143
	단기취업(C-4)	1,645	2,356	1,691
	교수(E-1)	2,187	2,053	2,017
	회화지도(E-2)	13,910	12,621	13,403
	연구(E-3)	3,132	3,110	3,638
	기술지도(E-4)	220	199	177
	전문직업(E-5)	624	374	257
	예술흥행(E-6)	3,549	3,011	3,285
	특정활동(E-7)	21,314	19,534	20,675
비전문인력	소계	520,680	409,039	361,526
	계절근로(E-8)	0	0	383
	비전문취업(E-9)	276,755	236,950	217,729
	선원취업(E-10)	17,603	17,552	17,921
	방문취업(H-2)	226,322	154,537	125,493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48로부터 저자 수정

부, 2022: 56).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이주 제한의 여파는 결혼이민자 유입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이후 신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가 감소함에 따라, 총 체류하는 결혼이민자(F-2-1, F-5-2, F-6) 규모는 2019년 166,025명, 2020년 168,594명, 2021년 168,611명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귀화나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규모는 제도 변경 등의 사유로 2019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때를 제외하면 2012년 이후 꾸준히 연평균 1만 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21년도의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총 13,637명으로 2020년도의 15,649명에 비해 12.9% 감소하였다. 한편 국적회복자는 전년도 1,764명 대비 2021년도 2,742명으로 55.4% 증가하였다. 2021년 귀화자의 감소는 2018년 '영주권 전치주의'를 포함한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귀화 신청자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귀화업무를 집중 처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65)

외국국적동포 현황을 보면,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는 2019년(코로나-19 이전) 878,439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에는 팬데믹 발생 이전 대비 11.4%(99,769명)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74). 2021년 12월 기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구성비는 재외동포(F-4) 61.4%(478,442명), 방문취업(H-2) 16.0%(124,691명), 영주(F-5) 14.6%(113,718명), 방문동거(F-1) 3.3%(25,871명) 순이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74).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국, CIS국가의 동포로 점차 확대되면서 2019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난민(refugees)의 경우,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신청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2014년 2,896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2017년 9,942건, 2018년 16,173건),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2019년 15,452건, 2020년 6,684건, 2021년 2,341건)하였다(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 2022: 100). 난민업무를 시작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73,383건이며, 난민인정 심사를 완료한 45,935건 중 인정은 831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1,947건, 불인정은 43,157건으로 집계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00).

불법체류 문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자 수 및 체류외국인 수는 2020년부터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국경봉쇄 및 항공교통 제한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율은 크게 높아졌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년 말 392,196명, 2021년 말에는 388,700명으로 2019년 말과 비슷한 39만 명 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불법체류율(불법체류 외국인/총 체류외국인)은 2018년 말 15%, 2019년 말 15.5%, 2020년 말 19.3%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1년 말에도 전체 체류외국인 감소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율이 19.9%로 증가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82).

정부는 그간 불법체류율을 관리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진출국자는 불법체류기관과 상관없이 입국금지 및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자진 출국자에게는 '자진출국확인서'발급하는 한편,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2, 9일) 단수비자를 발급하여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강동관, 2020). 코로나 기간에도 이러한 정책은 유지되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법체류 발생의 불가항력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 차례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진출국을 못한 경우에도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 4.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추이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장기체류 외국인은 상당한 기간을 지역사회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사회통합'이다. 한국정부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표 5〉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단 위 : 명 )

연도	구분	총체류자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율	
			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자		거소신고자
2017		2,180,498	251,041	82,837	167,140	1,064	11.5%
2018		2,367,607	355,126	90,067	264,044	1,015	15.0%
2019		2,524,656	390,281	95,815	293,150	1,316	15.5%
2020		2,036,075	392,196	108,665	281,857	1,674	19.3%
2021		1,956,781	388,700	125,022	262,251	1,427	19.9%
(전년대비)		-3.9%	-0.9%	15.1%	-7.0%	-14.8%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82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KIIP)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운영기관이 300개 이상이며, 참여자 수도 2009년 1,331명에서 2019년 56,535명 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중단없이 진행함에 따라 전년대비 18.9% 증가한 43,55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14). 전체참여자 43,552명 중 결혼이민자는 18,096명으로 4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은 6,442명으로 14.8%, 기타 체류자격 소지 재한외국인 등은 19,014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1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경우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특성상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21년 8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9.32% 증가한 7,237명이 참여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1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경우 이수 의무화 조치로 인해 2011년에 교육참여자가 16,701명으로 급증하였으나,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강화 및 국제결혼의 감소추세로 인하여 교육참여자가 2012~2015년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

환되었지만 2020년 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이동제한 등으로 참여자 수가 다시 감소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16).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발견되고 있으나(김태원, 2020), 저소득층, 근로빈곤층, 이주배경 인구의 삶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가부(2022) 실태조사에서 밝히듯이, 코로나로 인해 이주민들이 경제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통합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코로나-19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여러 국가와 지역은 일련의 국제이동 규제 조치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의 입국 및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입국 통제와 의무적 격리, 검사(양성) 및 백신 접종 증명 등의 조건 규제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노력들은 감염 확산을 예방 및 지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공항과 항만이 폐쇄되고 모든 유형의 인구 이동이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글로벌 경향을 보면, 특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이주는 다양한 방역

조치 및 이동억제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이동하는 자(movers)와 비이동자(non-movers)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백신, 격리, 항공료 등 국제적 이동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증가로 인해 고소득 국가 출신 및 전문직자들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이주 기회와 경로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던 반면, 저소득 국가 출신 이주민들은 종종 불법적이고 위험한 이주 방식과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불확실성, 폭력, 착취 및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국 상황을 보면, 출입국자 수가 급감하여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체류외국인 규모도 200만 명을 넘어선 2016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이 중 단기 및 비전문 체류외국인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직 체류외국인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대조를 보였다. 이 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제이주의 계급적 속성,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계절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류자격(E-8)이 코로나-19기간 신설되었고, 포스트 코로나-19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이주노동자 유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주요 이민자 유형인 결혼이민자, 동포, 난민의 경우도 코로나-19 기간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불법체류율은 높아졌는데,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기보다는 전체 체류외국인 감소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체류자 발생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체류기간 연장 조치는 불법체류자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19기간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지속된 것은 고무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인구이동의 변화 양상은 국제적으로, 사회 내적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불평등을 생생히 보여주었으며, 이주민들과 디아스포라들이 필수 인력으로서 수용국 사회의 경제를 지탱하고 송금 등을 통해 '글로벌 인간 개발(global human development)'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Benton et al., 2021: 13). 또한 코로나-19는 국가의

방역역량과 함께 한국의 이민정책의 제반 영역에 도전을 주며 효과성을 시험하는 시간이 되었다(김규찬, 2022 참조). 향후 연구에서는 이 팬데믹 기간동안 한국의 이민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추적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김규찬(2022) 「이민정책론」, 경기: 도서출판 공동체.
- 김태원(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5호, 2020-16, 보건사회연구원.
- 신광영(2006) '한국의 OECD 가입배경', 「월간참여사회」,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718962>.
- 조일준(2016)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서울: 푸른역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과천시: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과천시: 법무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Benton, Meghan, Jeanne Batalova, Samuel Davidoff-Gore and Timo Schmidt (2021). *COVID-19 and the State of Global Mobility in 2020*. Washington, D.C., and Geneva: Migration Policy Institu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Benton, Meghan, Samuel Davidoff-Gore, Jeanne Batalova, Lawrence Huang and Jie Zong (2022), *COVID-19 and the State of Global Mobility in 2021*. Washington, D.C., and Geneva: Migration Policy Institu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Cohen, Robin and Kennedy, Paul M. (2000), *Global Sociology*. Basingstoke: Palgrave.
- De Haas, Hein, Castles, Stephen, and Miller, Mark J. (2020).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6th ed.). London: Red Globe Press.

- Diamond, Jared. (1997). *Guns, Germs, and Steel*. New York: W W Norton & Co Inc.
- George, V. and Page, R.M. (2004). *Global social problems: Polity Pr.*
- Hale, T., S. Webster, A. Petherick, T. Phillips and B. Kira (2021),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Dataset*,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Oxford. (accessed 3 June 2021) Available at <https://covidtracker.bsg.ox.ac.uk/>.
- Hollifield, James F., Martin, Philip, and Orrenius, Pia (eds.). (201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3rd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IOM (2020), 'MOBILITY CRISIS AND RESPONSE IN THE TIME OF COVID-19: THE REPUBLIC OF KOREA'S APPROACH', ISSU Brief, IOM Republic of Korea.
- Kim, Gyuchan. (2017). 'Migration Transition in South Korea: Features and Factor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1), 1-32.
- McAuliffe, M. and A. Triandafyllidou (eds.), 2021. *World Migration Report 202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Geneva.
- Urry, John. (2007). *Mobilities*. Cambridge: Polity Press.

## Abstract

#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Gyuchan Kim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global pattern of human mobility and immigration into South Korea since the onset of Covid-19 pandemic. Since early 2020 states have adopted various mobility(travel and immigration) control measures along with public health measures. Consequently,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mobility and migration have significantly shrunk. However, there has been found differences in scale and pattern of (im)mobility among groups of people and migrants. As for South Korea, the Government has managed to avoid the extreme measures such as border-closure or lock-down. Nonetheless, the scale of inflow and stay of immigrants have declined. However, as seen in the global case, changes have differed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status. These results provide to us an opportunity to remind deeply rooted inequality behind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immigration policies as well as the medical/public health policies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Key words:** Covid-19, human mobility,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tion policy

---

김규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Bath에서 석사학위(MSc),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공분야는 이민정책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세계화, 국제이주, 이민·다문화정책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8), “Marriage Mi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Social Investment beyond the Nation State”(International Migration, 2018), “The patterns of ‘care migrantisation’ in South Korea”(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017) 등이 있다. 저서로는 「이민정책론」(2022, 공동체) 등이 있다.

\*E-mail: gyuchankim@gwnu.ac.kr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민경 · 김민영 · 박소정 · 박영선 · 유정기 · 이성은 · 임예찬 · 주수연(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최선하(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국문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명확한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네 곳의 대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임상실습을 1회 이상 경험한 학생으로 편의추출 되었으며 135명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5월 11일부터 5월 23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일원변량분석, Schffe 사후검증, 그리고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4 \pm 0.53$ 점 이었으며,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2.69 \pm 0.45$ 점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거주형태( $F=3.10$ ,  $p=.048$ ), 전공만족도( $F=11.70$ ,  $p<.001$ ), 건강상태( $F=3.61$ ,  $p=.008$ ), 전공선택 동기( $F=3.15$ ,  $p=.017$ ), 실습참여 태도( $F=5.30$ ,  $p=.002$ ), 실습 흥미도( $F=7.05$ ,  $p<.001$ )에서 차이가 있었다. 진로정체감에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거주형태( $F=3.28$ ,  $p=.041$ ), 전공만족도( $F=7.53$ ,  $p<.001$ ), 건강상태( $F=5.28$ ,  $p=.001$ ), 예상 임상재직 기간( $F=4.43$ ,  $p=.001$ ), 전공선택 동기( $F=3.19$ ,  $p=.016$ ), 실습참여 태도( $F=3.76$ ,  $p=.012$ ), 실습 흥미도( $F=9.21$ ,  $p<.001$ )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beta=0.40$ ,  $p<.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21%였다( $F=38.01$ ,  $p<.001$ ). 결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서 진로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자취하는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및 진로 지도·상담, 임상실습에 관한 흥미 유발과 적극적 참여 유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임상실습 만족도, 진로정체감, 간호대학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적은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간호학생은 학교수업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현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간호행위와 술기를 학습한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것은 간호사라는 진로를 결정하며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내는 선별자이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정체감은 간호수행능력, 적응능력,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올바른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전문직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한다(조희, 이규영, 2006).

간호대학생의 직업 정체성을 높여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특히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이미라, 김미자, 2018).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채은 외, 2020). 이에 전문직 간호사로서 안정적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안에서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임상실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적응, 전공만족도, 직업정체성(이미라, 김미자, 2018), 임상수행 능력(차주애, 2013) 등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

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중소도시 2곳에 위치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이다. 이 가운데 임상실습을 1회 이상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한 학생은 제외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9개로 산정하여 114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편의표집한 135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35부 전체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임상실습 만족도

이순희 외(2004)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저자에게 도구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교과 3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평가 3문항의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뜻한다. 이순희 외(2004)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을 제시하였고, 이 도구를 사용한 송정화(20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2) 진로정체감

Holland 외(1980)가 개발한 직업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중 하위척도인 진로정체감 검사 18문항을 김봉환, 김계현(1997)이 한국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권윤희, 김정남(2002)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도구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4점부터 '매우 그렇다' 1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역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김봉환, 김계현(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권윤희, 김정남(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이 도구를 사용한 김은주(20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22년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참여 중단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설문지침 등을 충분히 고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수집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으로 데이터화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사로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대상자는 2개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4개 대학에서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학년이 69명(51.1%), 여자가 118명(87.4%), 연령에서 20~23세가 102명(7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대 병원은 '없다' 122명(90.4%), 거주형태에서 자취가 66명(48.9%), 학업 성취도는 3.5~4.0 미만 57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65명(48.1%) 이었다. 희망 직종은 임상 간호사 98명(72.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중간이다' 52명(38.5%)가 가장 많았다. 가족 중 간호사 유무는 '아니오' 88명(65.2%)이었고, 취업 후 예상되는 임상 재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가 39명(28.9%)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59명(43.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습참여 태도는 '적극적이다' 73명(54.1%)으로 가장 많고, 실습 흥미도는 '흥미롭다' 66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5)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M±SD
학년	3학년	66	48.9	
	4학년	69	51.1	
성별	남성	17	12.6	
	여성	118	87.4	
연령(세)	20~21	42	31.1	
	22~23	60	44.4	
	24~25	11	8.1	
	26~27	6	4.4	
	28~29	8	5.9	
	30 이상	8	5.9	
자대 병원 유무	있다	13	9.6	
	없다	122	90.4	
거주형태	자취	66	48.9	
	가족과 거주	32	23.7	
	기숙사 거주	37	27.4	
학업성취도(학점)	2.5 미만	1	0.7	
	2.5~3.0 미만	6	4.4	
	3.0~3.5 미만	33	24.4	
	3.5~4.0 미만	57	42.2	
	4.0~4.5 이하	38	28.1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음	2	1.5	3.63±0.83
	만족하지 않음	8	5.9	
	보통	44	32.6	
	만족함	65	48.1	
	매우 만족함	16	11.9	
희망 직종	임상 간호사	98	72.6	
	간호, 보건직 공무원	12	8.9	
	소방공무원	3	2.2	
	산업간호사	3	2.2	
	보건교사	7	5.2	
	공공기관	11	8.1	
	연구원	1	0.7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1	0.7	3.57±0.89
	좋지 않음	12	8.9	
	중간	52	38.5	
	좋음	49	36.3	
	매우 좋음	21	15.6	
가족 중 간호사 유무	예	47	34.8	
	아니요	88	65.2	
예상 임상 기간	1년 미만	6	4.4	
	1년 이상 3년 미만	33	24.4	
	3년 이상 5년 미만	39	28.9	
	5년 이상 7년 미만	19	14.1	
	7년 이상 10년 미만	5	3.7	
	10년 이상	33	24.4	
전공선택 동기	취업률이 높아서	59	43.7	
	부모님, 지인 추천	17	12.6	
	본인의 흥미로	54	40.0	
	성적에 맞춰서	4	3.0	
	기타	1	0.7	
실습참여 태도	매우 적극적이지 않음	-	-	3.93±0.77
	적극적이지 않음	6	4.4	
	보통	27	20.0	
	적극적임	73	54.1	
	매우 적극적임	29	21.5	
실습 흥미도	매우 흥미롭지 않음	-	-	3.86±0.82
	흥미롭지 않음	8	5.9	
	보통	32	23.7	
	흥미로움	66	48.9	
	매우 흥미로움	29	21.5	

〈표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N=135)

특성	범위	최소값-최대값	M±SD
임상실습 만족도	1~5	1.55-4.84	3.54±0.53
진로정체감	1~4	1.36-3.79	2.69±0.45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간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임상 실습 만족도는 거주형태(F=3.10, p=.048), 전공만족도(F=11.70, p<.001), 건강상태(F=3.61, p=.008), 전공선택 동기(F=3.15, p=0.17), 실습참여 태도(F=5.30, p=.002), 실습 흥미도(F=7.0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전공만족도에서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이 매우 만족하지 않는 학생, 만족하지 않는 학생, 보통인 학생에 비해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건강상태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학생이 좋지 않은 학생과 중간인 학생에 비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실습참여 태도에서 매우 적극적인 학생이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실습 흥미도에서 매우 흥미롭게 느끼는 학생이 흥미롭지 않은 학생, 보통인 학생에 비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N=135)

특성	구분	임상실습 만족도		진로정체감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학년	3학년	3.58±0.50	0.99 (.332)	2.70±0.40	0.29 (.775)
	4학년	3.50±0.55		2.68±0.49	
성별	남성	3.63±0.40	0.77 (.439)	2.68±0.44	-0.09 (.928)
	여성	3.52±0.54		2.69±0.45	
연령(세)	20~21	3.54±0.52	0.47 (.801)	2.65±0.36	0.51 (.768)
	22~23	3.58±0.57		2.69±0.53	
	24~25	3.55±0.53		2.87±0.46	
	26~27	3.44±0.16		2.76±0.34	
	28~29	3.30±0.37		2.67±0.34	
	30세 이상	3.46±0.39		2.58±0.38	

진로정체감은 거주형태(F=3.28, p=.041), 전공만족도(F=7.53, p<.001), 건강상태(F=5.28, p=.001), 예상 임상기간(F=4.43, p=.001), 전공선택 동기(F=3.19, p=.016), 실습참여 태도(F=3.76, p=.012), 실습 흥미도(F=9.2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전공만족도에서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이 만족하지 않는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학생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 중간인 학생, 좋은 학생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다. 또한, 실습 흥미도에서 실습이 매우 흥미로운 학생이 흥미롭지 않은 학생과 보통인 학생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정도는 〈표 3〉과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최저 1.55점에서 최대 4.84점,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중간점수 보다 높았다.

자대 병원 유무	있다	3.65±0.45	2.43	2.81±0.45	1.04
	없다	3.52±0.45	(.121)	2.68±0.45	(.315)
거주형태	자취	3.43±0.46	3.10 (.048)	2.62±0.41	3.28 (.041)
	가족과 거주	3.58±0.65		2.86±0.51	
	기숙사 거주	3.60±0.50		2.67±0.44	
학업성취도 (학점)	2.5 미만	3.48±0	0.35 (.844)	2.28±0	0.25 (.911)
	2.5~3.0 미만	3.48±0.20		2.65±0.46	
	3.0~3.5 미만	3.47±0.50		2.71±0.44	
	3.5~4.0 미만	3.60±0.56		2.71±0.45	
	4.0~4.5 이하	3.52±0.55		2.69±0.45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음 <sup>a</sup>	3.37±0.20	11.70 ( $<.001$ ) a,b,c <sup>e</sup>	2.42±1.11	7.53 ( $<.001$ ) b <sup>&lt;e</sup>
	만족하지 않음 <sup>b</sup>	3.19±0.36		2.30±0.34	
	보통 <sup>c</sup>	3.39±0.53		2.50±0.46	
	만족함 <sup>d</sup>	3.51±0.43		2.80±0.35	
	매우 만족함 <sup>e</sup>	4.24±0.44		3.01±0.49	
희망 직종	임상 간호사	3.57±0.47	1.19 (.315)	2.76±0.41	1.58 (.159)
	간호, 보건직 공무원	3.38±0.70		2.51±0.58	
	소방공무원	3.72±0.15		2.57±0.31	
	산업간호사	2.96±0.24		2.30±0.29	
	보건교사	3.35±0.98		2.58±0.73	
	공공기관	3.60±0.49		2.50±0.42	
	연구원	3.16±0		3.00±0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sup>a</sup>	3.55±0	3.61 (.008) b,c <sup>&lt;e</sup>	2.50±0	5.28 (.001) b,c,d <sup>&lt;e</sup>
	좋지 않음 <sup>b</sup>	3.26±0.61		2.45±0.50	
	중간 <sup>c</sup>	3.46±0.42		2.63±0.42	
	좋음 <sup>d</sup>	3.54±0.49		2.67±0.40	
	매우 좋음 <sup>e</sup>	3.88±0.67		3.06±0.47	
가족 중 간호사 유무	있다	3.54±0.41	2.72	2.68±0.38	- .30
	없다	3.53±0.58	(.102)	2.70±0.49	(.764)
예상 임상 기간	1년 미만	3.44±0.41	0.30 (.913)	2.80±0.39	4.43 (.001)
	1년 이상 3년 미만	3.49±0.69		2.45±0.54	
	3년 이상 5년 미만	3.62±0.48		2.72±0.40	
	5년 이상 7년 미만	3.55±0.29		2.65±0.27	
	7년 이상 10년 미만	3.51±0.43		2.93±0.41	
	10년 이상	3.50±0.55		2.69±0.45	
전공선택 동기	취업률이 높아서	3.37±0.53	3.15 (.017)	2.55±0.48	3.19 (.016)
	부모님, 지인 추천	3.62±0.50		2.72±0.43	
	본인의 흥미로	3.68±0.50		2.84±0.38	
	성적을 맞춰서	3.83±0.22		2.82±0.62	
	기타	3.39±0		2.50±0	
실습참여 태도	매우 적극적이지 않음	-	5.30 (.002) a <sup>&lt;d</sup>	-	3.76 (.012)
	적극적이지 않음 <sup>a</sup>	3.27±0.19		2.67±0.38	
	보통 <sup>b</sup>	3.44±0.38		2.53±0.51	
	적극적이다 <sup>c</sup>	3.47±0.53		2.67±0.42	
실습 흥미도	매우 적극적이다 <sup>d</sup>	3.86±0.56	7.05 ( $<.001$ ) a,b <sup>&lt;d</sup>	2.91±0.43	9.21 ( $<.001$ ) a, b <sup>&lt;d</sup>
	매우 흥미롭지 않음	-		-	
	흥미롭지 않음 <sup>a</sup>	3.24±0.52		2.29±0.39	
	보통 <sup>b</sup>	3.30±0.41		2.58±0.40	
	흥미로움 <sup>c</sup>	3.56±0.50		2.66±0.42	
매우 흥미로움 <sup>d</sup>	3.54±0.56	3.01±0.43			

〈표 4〉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N=135)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F(p)	R <sup>2</sup>	adj. R <sup>2</sup>	Durbin-Watson
	B	SE	$\beta$						
(상수)	1.26	.23		5.39					
임상실습 만족도	.40	0.6	.47	6.16	38.01	<.001	0.22	0.21	2.08

진로정체감은 최저 1.36점에서 최대 3.79점, 4점 만점에 평균 2.69점으로, 중간점수 보다 조금 높았다.

#### 4.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F=38.01, p<.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진로정체감을 21% 설명하였으며, 임상 실습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면 진로정체감은 0.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 IV. 논의

이 연구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거주형태, 건강상태,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실습참여 태도, 실습 흥미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형태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자취하는 학생에 비해 가족과 거주하거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구혜자(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가족이나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는 동료는 지지체계로 작용하여 임상실습 기간 중 느끼는 불안이나 무력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임상실습 기간 중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라도 가족 이외의 지지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서 선행

연구(이현정, 2016; 김금이, 이보영, 2014)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므로 임상실습 기간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시작 전부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선행연구(김금이, 이보영, 2014; 구현영, 임형석, 2013; 구혜자, 2008)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관계가 있다.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인 간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임상실습 경험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학과에서는 간호학 전공에 대해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공선택 동기에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진로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고 직업선택에서 자기 확신이 높으므로 임상실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결과이다(한수정, 2000). 실습참여 태도와 실습 흥미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 하며, 자신의 진로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므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진로정체감은 거주형태,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예상 임상 기간, 전공선택 동기, 실습참여 태도, 실습 흥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학년과 학업성취도는 진로정체감과 관계가 없었으며, 건강상태와 전공선택 동기는 진로정체감과 관계가 있었다. 이미라와 김미자(2018)는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정체성이 높고,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는 다르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적성과 취미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실습에 만족할수록 직업정체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은주(2020)도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평균성적이 높을수록 높으며,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인의 흥미에 맞아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자신의 미래 비전에 대한 명확한 동기가 있으므로 진로정체감이 높다고 생각한다. 학과 선택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전공만족도)과 미래의 직업에 대해 실습하는 과정의 만족감(임상실습 만족도)이 높다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4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에 비해 진로정체감 점수가 낮은 것은 4학년 학생들이 실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국가시험 합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다소 낮게 나온 것이라 풀이된다.

또한 성격에 따라 진로정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성적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학생들이 갖는 미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취업 및 미래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본인의 흥미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학교생활이나 학과 교육과정 등에서 학과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4 \pm 0.53$  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미라와 김미자(2018)는 3.42점, 이송현(2016)은 3.10점, 차주애(2013)는 3.29점을 보고하여, 이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가 더 높다.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2.69 \pm 0.45$ 점 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유미옥(2022)은 2.62점, 김은주(2020)는 2.81점을 보고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 점수는 2.48점부터 2.79점을 보고(임영순 외, 2016; 이순희, 차은정, 2017; 이지영 외, 2018)하여 이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점수는 이 범주에 속한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타 전공 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조사했을 때,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은 2.94점(정경아, 조지현, 2015), 안경광학과 대학생은 3.10점(서은선, 정경아, 2015)으로 이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점수가 더 높았다.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고 하였는데(유미옥, 2022; 임영순 외, 2016; 이순희, 차은정, 2017), 이 연구대상자는 3, 4학년이며,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과 대학생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간호학과 학생의 진로정체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정체감도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직업 정체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정체성도 높다고 하였으며(이미라, 김미자, 2018), 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월, 장연, 2021)에서도 임상실습 만족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향상된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서영숙, 정추영, 2020).

임상실습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이 지각한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강익화, 김혜순, 1994),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와 실습병원 만족도(채선옥, 1997),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행위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실습내용 만족도(정혜경, 1999), 실습지도자 활용의 교수 효율성(최공옥 외, 2002), 프리셉터 활용(이점덕, 2006) 등이 있었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습내용을 구체적이고 유의하도록 구성하며, 현장지도자와 실습지도교원의 교육자·안내자 역할이 강조된다. 학생 측면에서는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고, 임상실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형성하며,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에 만족하면 미래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자신감이 생기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진로정체감이 형성될 것이다. 반면,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이나 간호사의 무례한 행동을 경험하면 진로정체감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과 병원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간호학생 자신의 노력도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거주형태,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실습참여 태도, 실습 흥미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 진로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측면에서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고, 지지체계를 형성하며,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자취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실습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미리 설명하여 흥미를 자극하고, 실습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며, 부족한 경험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키우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 즉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한 연구, 그리고 간호교육과정 안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강월, 장연(2021). “치기공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진로정체감과 관계”, 『대한치과기공학회지』, 43(4): 194-201.
- 강익화, 김혜순(1994). “간호학생이 지각한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계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6(2): 144-155.
- 구현영, 임형석(2013).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311-321.
- 구혜자(2008). “간호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05-215.
- 권윤희, 김정남(2002).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금이, 이보영(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885-896.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은주(2020). “간호대학생의 태움 인지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 정추영(202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8(1): 1377-1385.
- 서은선, 정경아(2015). “일 대학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시과학회지』, 17(3): 213-226.
- 송정화(2020).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양상에 따른 수행자신감과 임상실습만족도”.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채은, 김명류, 김순영(2020).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287-298.
- 유미옥(202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2): 643-653.
- 이미라, 김미자(201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6): 197-208.
- 이송현(201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2004).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0(2): 219-231.
- 이순희, 차은정(2017).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 성폭력 및 우울,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 550-560.
- 이점덕(2006). "프리셉터 지도를 받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김민선, 김세진, 이선경, 양수정과 박선아(2018).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병원 내 폭력, 간호사의 무례함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융합』, 40(5): 713-738.
- 이현정(2016).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융합적인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4): 75-83.
- 임영순, 권혜진, 노기욱, 배가령(201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한 언어폭력과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8(4): 2315-2328.
- 정경아, 조지현(2015). "일 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143-155.
- 정혜경(1999).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 이규영(2006).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63-173.
- 차주애(201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선옥(1997).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비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조사", 서라벌대학 『논문집』, 12권: 255-268.
- 최공욱, 조현숙, 김정엽, 김병연, 장순자(2002). "간호학생 임상실습교육에서 실습 지도자 활용의 교수 효율성과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8(1): 73-83.
- 한수정(2000).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복돋우기 (Empowerment)와 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32-146.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 Abstract

#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Kim, Min-Kyeong\*·Kim, Min-Yeong\*·Park, So-Jeong\*, Park·Young-Seon\*·You Jeong-Ki\*·Lee,  
Seong-Eun\*·Lim, Ye-Chan\*·Ju, Su-Yeon\*·Choi, Sun-Ha\*\*

\*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135 nursing students who had been experiencing at least one time clinical practice at a hospital. Data was collected using on-line questionnaires from May 11th to May 23th, 2022 and analyzed using SPSS 25.0. **Results:**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as 3.54 points out of 5 points.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was 2.69 points out of 4 points.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ype of residence ( $F=3.10$ ,  $p=.048$ ), satisfaction with major ( $F=11.70$ ,  $p<.001$ ), health status( $F=3.61$ ,  $p=.008$ ),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 $F=3.15$ ,  $p=.017$ ), attitude to practice participation ( $F=5.30$ ,  $p=.002$ ), and interest in practice ( $F=7.05$ ,  $p<.001$ ).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ype of residence ( $F=3.28$ ,  $p=.041$ ), satisfaction with major ( $F=7.53$ ,  $p<.001$ ), health status ( $F=5.28$ ,  $p=.001$ ), expected clinical period ( $F=4.43$ ,  $p=.001$ ),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 $F=3.19$ ,  $p=.016$ ), attitude to practice participation ( $F=3.76$ ,  $p=.012$ ) and interest in practice ( $F=9.21$ ,  $p<.001$ ). Als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had an effect on career identity ( $\beta=0.404$ ,  $p<.001$ ), and its explanatory power was 21% ( $F=38.01$ ,  $p<.001$ ). **Conclusion:** It is possible to form a positive career identity by increasing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guide nursing students to maintain good health and to have an active attitude and interest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Nursing student

■ 교신저자

최선하 : 소속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자우편: choish@gwnu.ac.kr



##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생들의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차이분석

한태용(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교수)

이행옥(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사량(강릉원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물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 및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상자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체육시설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하였고,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상관분석과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 중 청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이용빈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과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이용시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이용형태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성별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곱째, 월평균소득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신뢰성과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덟째, 이용종목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홉째, 이용요일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째, 이용량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 및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한째, 이용시간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두째, 이용형태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셋째,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넷째, 이용량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다섯째, 이용시간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체육시설물,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스, 만족도)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현대인들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주어진 여가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스포츠를 가장 높게 활용하고 있다(백광, 남동현, 2004). 특히,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시기인 대학의 만족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이며, 다양한 체육활동은 대학생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만족 성취 도구가 될 수 있다(김성기, 2010).

이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주역을 길러 내는 대학에서 여가교육 환경으로서의 체육시설물은 전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 및 홍보, 이미지 형성 등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공경호, 2004). 이러한 측면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체육을 통하여 다양한 여가교육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은 대학생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기대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학교 만족감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입생의 학교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채재성, 2002).

그리고 대학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 발전을 유지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가시대를 대비하고 대학생들의 높아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물 운영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를 이용자 특성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체육시설물의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서비스스케이프(servicecape)는 서비스 환경 내 유무형의 요소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말하고(박해원, 최영철, 2022), 인적서비스(human service)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맹두열, 2012). 이와

관련하여 윤준호(2013)는 체육시설물 이용자들은 서비스스케이프의 물리적 환경에 의존하여 만족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였고, 유명원(2017)은 인적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용자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체육시설물의 운영과 활성화 측면에서 대학생의 행동을 파악하고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의 체육시설물은 각기 다른 문화, 계층,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이용자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만족은 긍정적인 소비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대학의 홍보의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현필, 2018).

그러므로 앞으로 다기능적인 대학 체육시설물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특성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에 비하여 대학 체육시설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 체육환경이 대학생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 대학이 갖추어야 할 발전적 변화에 총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학 체육시설물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 환경과 만족도를 파악하여 스포츠, 레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공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차이분석으로 대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대학 체육시설물 운영을 위한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물 서비스 케이프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물 인적서비스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체육시설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350명의 모집단을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으로 표집하였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의 작성을 통해 수집된 설문지 응답 중 미기입과 성실도를 고려하여 320명을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 체육시설물 이용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 및 만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였으며, 서비스스케이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황지현(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편의성(6문항), 심미성(7문항), 청결성(4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고, 인적서비스는 이상운(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유형성(5문항), 신뢰성(4문항), 공감성(4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만족은 김상현, 윤양진, 구수용(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6문항으로 보완하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사례수 (N)	백분율 (%)
성별	남학생	197	61.6
	여학생	123	38.4
학년	1학년	171	54.4
	2학년	88	27.5
	3학년	43	13.4
	4학년	18	5.6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236	73.8
	50~100만원 미만	60	18.8
	100~150만원 미만	16	5.0
	150~200만원 미만	3	0.9
	200만원 이상	5	1.6
이용종목	풋살	32	10.0
	배드민턴	101	31.6
	농구	18	5.6
	체력단련실(헬스장)	169	52.8
이용빈도	주1회	250	78.1
	주2회	42	13.1
	주3회	12	3.8
	주4회	11	3.4
	주5회 이상	5	1.6
이용요일	월요일	43	13.4
	화요일	66	20.6
	수요일	61	19.1
	목요일	56	17.5
	금요일	80	25.0
	토요일	11	3.4
	일요일	3	0.9
이용량	1시간 미만	127	39.7
	1~2시간 미만	163	50.9
	2~3시간 미만	27	8.4
	3~4시간 미만	1	0.3
	4시간 이상	2	0.6
이용시간	am9시 이전	14	4.4
	am9~am12시 이전	29	9.1
	am12~pm3시 이전	74	23.1
	pm3~pm6시 이전	151	47.2
	pm6시 이후	52	16.3
이용형태	혼자	96	30.0
	동기	66	20.6
	선후배	24	7.5
	친구	75	23.4
	가족	2	0.6
	기타	57	17.8
계		320	100.0

여 사용하여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의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고, 각 항목의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편의성	c1	.693						
	c2	.688						
	c3	.598						
	c4	.752						
	c5	.805						
	c6	.767						
심미성	a1		.859					
	a2		.871					
	a3		.844					
	a4		.798					
	a5		.804					
	a6		.808					
	a7		.798					
청결성	cl1			.921				
	cl2			.910				
	cl3			.859				
	cl4			.911				
유형성	t1				.954			
	t2				.960			
	t3				.953			
	t4				.944			
	t5				.957			
신뢰성	r1					.951		
	r2					.957		
	r3					.955		
	r4					.934		
공감성	e1						.917	
	e2						.950	
	e3						.866	
만족도	s1							.732
	s2							.875
	s3							.884
	s4							.817
	s5							.861
	s6							.822
고유값		3.114	4.781	3.244	4.548	3.606	2.494	4.168
분산%		51.895	68.299	81.111	90.963	90.138	83.117	69.458
신뢰도		.808	.922	.920	.975	.964	.898	.909

적재값을 0.5이상으로 하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서비스스케이프의 편의성, 심미성, 청결성 17문항과 인적서비스의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의 13문항 및 만족의 6문항인 총 36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근거에 맞는 요인화가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의 적재값들은 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도 .808~.975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수집된 설문지에서 유효한 표본만을 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 V. 23.0으로 분석하였다. 즉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위해서 빈도분석과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위해서 요인분석, 신뢰도를 위해서 Cronbach's  $\alpha$  계수, 상관분석을 하였고,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문제 검증을 수행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상관관계 분석결과

각 연구단위 간 척도들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요인	1	2	3	4	5	6	7
편의성	1.000						
심미성	.506**	1.000					
청결성	.559**	.694**	1.000				
유형성	.389**	.547**	.518**	1.000			
신뢰성	.328**	.528**	.511**	.825**	1.000		
공감성	.299**	.504**	.442**	.775**	.822**	1.000	
만족도	.466**	.619**	.594**	.652**	.660**	.679**	1.000

p<.01\*\*

〈표 3〉에서 볼 때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요인 간의 관계에서 모든 항목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첫째, 성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남학생	197	3.73	±.64	.298
	여학생	123	3.71	±.56	
심미성	남학생	197	3.64	±.69	.056
	여학생	123	3.78	±.61	
청결성	남학생	197	3.87	±.68	.023*
	여학생	123	3.95	±.58	

p<.05\*

<표 4>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 중 청결성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육시설물에 높은 청결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학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1학년	171	3.72	±.59	.750
	2학년	88	3.76	±.64	
	3학년	43	3.71	±.65	
	4학년	18	3.59	±.54	
심미성	1학년	171	3.71	±.63	.172
	2학년	88	3.77	±.75	
	3학년	43	3.64	±.64	
	4학년	18	3.40	±.47	
청결성	1학년	171	3.95	±.60	.439
	2학년	88	3.86	±.73	
	3학년	43	3.88	±.62	
	4학년	18	3.72	±.56	

<표 5>에서 볼 때 학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월평균소득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볼 때 월평균소득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이용종목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월평균소득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50만원 미만	236	3.73	±.59	.737
	50~100만원 미만	60	3.74	±.68	
	100~150만원 미만	16	3.65	±.68	
	150~200만원 미만	3	3.55	±.50	
	200만원 이상	5	3.40	±.54	
심미성	50만원 미만	236	3.74	±.65	.112
	50~100만원 미만	60	3.51	±.68	
	100~150만원 미만	16	3.83	±.80	
	150~200만원 미만	3	4.04	±.82	
	200만원 이상	5	3.48	±.52	
청결성	50만원 미만	236	3.92	±.61	.374
	50~100만원 미만	60	3.79	±.73	
	100~150만원 미만	16	4.10	±.61	
	150~200만원 미만	3	3.75	±1.08	
	200만원 이상	5	3.70	±.73	

<표 7> 이용종목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풋살	32	3.71	±.66	.978
	배드민턴	101	3.72	±.61	
	농구	18	3.77	±.58	
	체력단련실(헬스장)	169	3.74	±.60	
심미성	풋살	32	3.78	±.67	.506
	배드민턴	101	3.77	±.63	
	농구	18	3.63	±.65	
	체력단련실(헬스장)	169	3.66	±.69	
청결성	풋살	32	3.92	±.59	.889
	배드민턴	101	3.93	±.64	
	농구	18	3.80	±.65	
	체력단련실(헬스장)	169	3.90	±.66	

스케이프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이용빈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이용빈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주1회	250	3.67	±.60	.027*
	주2회	42	3.89	±.63	
	주3회	12	3.87	±.68	
	주4회	11	3.84	±.45	
	주5회 이상	5	4.33	±.42	
심미성	주1회	250	3.70	±.66	.013*
	주2회	42	3.79	±.64	
	주3회	12	3.86	±.57	
	주4회	11	3.03	±.55	
	주5회 이상	5	3.82	±.80	
청결성	주1회	250	3.91	±.65	.243
	주2회	42	3.97	±.59	
	주3회	12	3.89	±.71	
	주4회	11	3.47	±.52	
	주5회 이상	5	4.00	±.70	

p<.05\*

〈표 8〉에서 볼 때 이용빈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과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5회 이상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생이 높은 편의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3회와 주5회 이상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생이 높은 심미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용요일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이용요일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월요일	43	3.93	±.56	.087
	화요일	66	3.77	±.56	
	수요일	61	3.63	±.54	
	목요일	56	3.59	±.78	
	금요일	80	3.76	±.58	
	토요일	11	3.54	±.52	
	일요일	3	4.00	±.28	
심미성	월요일	43	3.53	±.78	.256
	화요일	66	3.66	±.66	
	수요일	61	3.73	±.63	
	목요일	56	3.68	±.65	
	금요일	80	3.84	±.66	
	토요일	11	3.49	±.38	
	일요일	3	3.76	±.64	
청결성	월요일	43	3.78	±.69	.463
	화요일	66	3.89	±.59	
	수요일	61	3.90	±.61	
	목요일	56	3.88	±.71	
	금요일	80	4.03	±.63	
	토요일	11	3.75	±.69	
	일요일	3	3.66	±.28	

〈표 9〉에서 볼 때 이용요일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곱째,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볼 때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이용량에서 4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이 높은 편의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이용시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볼 때 이용시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0.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1시간 미만	127	3.62	±.64	.003*
	1~2시간 미만	163	3.80	±.54	
	2~3시간 미만	27	3.67	±.69	
	3~4시간 미만	1	3.00	±.00	
	4시간 이상	2	5.00	±.00	
심미성	1시간 미만	127	3.73	±.68	.272
	1~2시간 미만	163	3.70	±.66	
	2~3시간 미만	27	3.51	±.57	
	3~4시간 미만	1	3.28	±.00	
	4시간 이상	2	4.42	±.80	
청결성	1시간 미만	127	3.92	±.67	.831
	1~2시간 미만	163	3.90	±.64	
	2~3시간 미만	27	3.82	±.47	
	3~4시간 미만	1	3.50	±.00	
	4시간 이상	2	4.25	±1.06	

p(<.05)\*

표 11. 이용시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am9시 이전	14	3.41	±1.01	.175
	am9~am12시 이전	29	3.57	±.61	
	am12~pm3시 이전	74	3.74	±.53	
	pm3~pm6시 이전	151	3.77	±.62	
	pm6시 이후	52	3.75	±.53	
심미성	am9시 이전	14	3.32	±1.03	.010*
	am9~am12시 이전	29	3.46	±.59	
	am12~pm3시 이전	74	3.65	±.69	
	pm3~pm6시 이전	151	3.82	±.63	
	pm6시 이후	52	3.66	±.59	
청결성	am9시 이전	14	3.60	±1.05	.331
	am9~am12시 이전	29	3.81	±.70	
	am12~pm3시 이전	74	3.92	±.63	
	pm3~pm6시 이전	151	3.95	±.60	
	pm6시 이후	52	3.87	±.60	

p(<.05)\*

세부적으로는 이용시간에서 pm3~pm6시 이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시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보다 높은 심미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이용형태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볼 때 이용형태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선후배와 함께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높은 편의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이용형태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편의성	혼자	96	3.71	±.61	.008**
	동기	66	3.83	±.62	
	선후배	24	3.95	±.68	
	친구	75	3.76	±.55	
	가족	2	3.16	±.47	
	기타	57	3.49	±.57	
심미성	혼자	96	3.58	±.75	.074
	동기	66	3.82	±.70	
	선후배	24	3.97	±.62	
	친구	75	3.68	±.55	
	가족	2	3.28	±.40	
	기타	57	3.69	±.59	
청결성	혼자	96	3.82	±.70	.213
	동기	66	3.89	±.66	
	선후배	24	4.12	±.55	
	친구	75	4.00	±.55	
	가족	2	3.85	±.70	
	기타	57	3.90	±.65	

p<.01\*\*

###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첫째, 성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성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남학생	197	3.84	±.77	.001**
	여학생	123	4.01	±.66	
신뢰성	남학생	197	3.79	±.78	.042*
	여학생	123	3.99	±.73	
공감성	남학생	197	3.66	±.79	.155
	여학생	123	3.79	±.75	

p<.01\*\*, p<.05\*

<표 13>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유형성과 신뢰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볼 때 학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학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1학년	171	3.95	±.71	.223
	2학년	88	3.92	±.79	
	3학년	43	3.80	±.70	
	4학년	18	3.62	±.72	
신뢰성	1학년	171	3.94	±.72	.158
	2학년	88	3.84	±.81	
	3학년	43	3.75	±.84	
	4학년	18	3.58	±.80	
공감성	1학년	171	3.72	±.7	.434
	2학년	88	3.75	±.82	
	3학년	43	3.68	±.81	
	4학년	18	3.42	±.80	

셋째, 월평균소득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서 볼 때 월평균소득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신뢰성과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월평균소득 100~150만원의 학생이 높은 신뢰성과 공감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월평균소득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50만원 미만	236	3.95	±.73	.193
	50~100만원 미만	60	3.70	±.77	
	100~150만원 미만	16	3.97	±.58	
	150~200만원 미만	3	4.06	±1.00	
	200만원 이상	5	3.76	±.55	
신뢰성	50만원 미만	236	3.93	±.75	.019*
	50~100만원 미만	60	3.59	±.78	
	100~150만원 미만	16	4.07	±.65	
	150~200만원 미만	3	3.66	±1.52	
	200만원 이상	5	3.60	±.37	
공감성	50만원 미만	236	3.77	±.74	.020*
	50~100만원 미만	60	3.47	±.87	
	100~150만원 미만	16	3.89	±.67	
	150~200만원 미만	3	3.11	±1.34	
	200만원 이상	5	3.26	±.72	

p<.05\*

넷째, 이용종목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서 볼 때 이용종목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공감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배드민턴 종목에 참여하는 학생이 다른 종목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높은 유형성과 공감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이용종목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풋살	32	3.82	±.76	.005**
	배드민턴	101	4.11	±.70	
	농구	18	3.66	±.79	
	체력단련실(헬스장)	169	3.83	±.72	
신뢰성	풋살	32	3.81	±.81	.107
	배드민턴	101	4.00	±.76	
	농구	18	3.69	±.83	
	체력단련실(헬스장)	169	3.81	±.75	
공감성	풋살	32	3.76	±.80	.008**
	배드민턴	101	3.87	±.79	
	농구	18	3.24	±.86	
	체력단련실(헬스장)	169	3.66	±.74	

p<.01\*\*

다섯째, 이용빈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이용빈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주1회	250	3.94	±.73	.110
	주2회	42	3.88	±.75	
	주3회	12	3.48	±.78	
	주4회	11	3.54	±.64	
	주5회 이상	5	4.04	±.58	
신뢰성	주1회	250	3.92	±.77	.131
	주2회	42	3.79	±.72	
	주3회	12	3.50	±.87	
	주4회	11	3.47	±.79	
	주5회 이상	5	3.85	±.74	
공감성	주1회	250	3.77	±.76	.104
	주2회	42	3.55	±.83	
	주3회	12	3.30	±.78	
	주4회	11	3.45	±.71	
	주5회 이상	5	3.60	±.92	

<표 17>에서 볼 때 이용빈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이용요일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에서 볼 때 이용요일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공감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수요일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요일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높은 유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요일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요일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높은 공감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이용요일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월요일	43	3.82	±.73	.008**
	화요일	66	3.67	±.66	
	수요일	61	4.40	±.72	
	목요일	56	3.82	±.78	
	금요일	80	4.12	±.72	
	토요일	11	3.72	±.59	
	일요일	3	3.80	±.80	
신뢰성	월요일	43	3.72	±.78	.142
	화요일	66	3.76	±.76	
	수요일	61	4.01	±.73	
	목요일	56	3.81	±.84	
	금요일	80	4.01	±.75	
	토요일	11	3.61	±.63	
	일요일	3	3.75	±.75	
공감성	월요일	43	3.56	±.77	.005**
	화요일	66	3.48	±.72	
	수요일	61	3.90	±.76	
	목요일	56	3.57	±.84	
	금요일	80	3.92	±.78	
	토요일	11	3.69	±.37	
	일요일	3	3.66	±.66	

p<.01\*\*

일곱째, 이용량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에서 볼 때 이용량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 및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4시간 이상 이용량을 보이는 학생이 높은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이용시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볼 때 이용시간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pm3~pm6시 이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시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보다 높은 유형성과 신뢰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이용형태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 볼 때 이용형태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동기와 함께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높은 신뢰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이용량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1시간 미만	127	3.93	±.75	.001*
	1~2시간 미만	163	3.95	±.71	
	2~3시간 미만	27	3.41	±.59	
	3~4시간 미만	1	3.60	±.00	
	4시간 이상	2	5.00	±.00	
신뢰성	1시간 미만	127	3.93	±.79	.003*
	1~2시간 미만	163	3.89	±.73	
	2~3시간 미만	27	3.37	±.75	
	3~4시간 미만	1	3.75	±.00	
	4시간 이상	2	4.87	±.17	
공감성	1시간 미만	127	3.77	±.76	.000***
	1~2시간 미만	163	3.75	±.77	
	2~3시간 미만	27	3.08	±.65	
	3~4시간 미만	1	3.66	±.00	
	4시간 이상	2	5.00	±.00	

p<.001\*\*\*, p<.05\*

표 20. 이용시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am9시 이전	14	3.65	±1.08	.010*
	am9~am12시 이전	29	3.68	±.70	
	am12~pm3시 이전	74	3.90	±.72	
	pm3~pm6시 이전	151	4.04	±.72	
	pm6시 이후	52	3.70	±.61	
신뢰성	am9시 이전	14	3.57	±.99	.015*
	am9~am12시 이전	29	3.72	±.81	
	am12~pm3시 이전	74	3.93	±.73	
	pm3~pm6시 이전	151	3.98	±.77	
	pm6시 이후	52	3.62	±.65	
공감성	am9시 이전	14	3.38	±.91	.175
	am9~am12시 이전	29	3.64	±.74	
	am12~pm3시 이전	74	3.73	±.77	
	pm3~pm6시 이전	151	3.79	±.81	
	pm6시 이후	52	3.56	±.67	

p<.05\*

표 21. 이용형태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유형성	혼자	96	3.82	±.77	.362
	동기	66	4.07	±.77	
	선후배	24	3.95	±.75	
	친구	75	3.86	±.62	
	가족	2	3.50	±.70	
	기타	57	3.89	±.74	
신뢰성	혼자	96	3.69	±.78	.043*
	동기	66	4.07	±.75	
	선후배	24	3.88	±.80	
	친구	75	3.85	±.68	
	가족	2	3.50	±.70	
	기타	57	3.98	±.82	
공감성	혼자	96	3.60	±.73	.067
	동기	66	3.95	±.76	
	선후배	24	3.69	±.84	
	친구	75	3.60	±.77	
	가족	2	3.50	±.70	
	기타	57	3.76	±.83	

p<.05\*

#### 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첫째,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2.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남학생	197	3.64	±.68	.041*
	여학생	123	3.83	±.60	

p<.05\*

<표 23>에서 볼 때 학년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3. 학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1학년	171	3.72	±.49	.683
	2학년	88	3.71	±.73	
	3학년	43	3.78	±.55	
	4학년	18	3.55	±.66	

셋째, 월평균소득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월평균소득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50만원 미만	236	3.75	±.65	.425
	50~100만원 미만	60	3.59	±.69	
	100~150만원 미만	16	3.78	±.77	
	150~200만원 미만	3	3.44	±.50	
	200만원 이상	5	3.53	±.50	

<표 24>에서 볼 때 월평균소득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이용종목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이용종목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풋살	32	3.73	±.62	.577
	배드민턴	101	3.79	±.64	
	농구	18	3.74	±.75	
	체력단련실(헬스장)	169	3.67	±.66	

〈표 25〉에서 볼 때 이용종목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이용빈도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이용빈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주1회	250	3.74	±.66	.139
	주2회	42	3.68	±.68	
	주3회	12	3.54	±.39	
	주4회	11	3.28	±.62	
	주5회 이상	5	4.00	±.77	

〈표 26〉에서 볼 때 이용빈도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이용요일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이용요일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월요일	43	3.63	±.68	.597
	화요일	66	3.68	±.60	
	수요일	61	3.75	±.67	
	목요일	56	3.69	±.70	
	금요일	80	3.81	±.68	
	토요일	11	3.43	±.46	
	일요일	3	3.77	±.53	

〈표 27〉에서 볼 때 이용요일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곱째, 이용량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이용량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1시간 미만	127	3.78	±.70	.007*
	1~2시간 미만	163	3.70	±.62	
	2~3시간 미만	27	3.38	±.50	
	3~4시간 미만	1	3.33	±.00	
	4시간 이상	2	4.83	±.23	

〈표 28〉에서 볼 때 이용량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4시간 이상 이용량을 보이는 학생이 높은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이용시간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이용시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am9시 이전	14	3.23	±.91	.032*
	am9~am12시 이전	29	3.64	±.63	
	am12~pm3시 이전	74	3.80	±.68	
	pm3~pm6시 이전	151	3.76	±.65	
	pm6시 이후	52	3.63	±.55	

p<.05\*

〈표 29〉에서 볼 때 이용시간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pm12~ pm3시 이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시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보다 높은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이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이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만족도	혼자	96	3.57	±.68	.112
	동기	66	3.84	±.70	
	선후배	24	3.87	±.70	
	친구	75	3.70	±.57	
	가족	2	3.50	±.94	
	기타	57	3.78	±.62	

p<.05\*

〈표 29〉에서 볼 때 이용형태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IV. 논의

###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분석

대학생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물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편의성, 심미성, 청결성) 차이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청결성에 높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육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에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남학생의 경우 타 스포츠센터의 이용경험이 여학생보다 비교적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체육시설물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물 내부와 입구, 통로,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기타 운동 공간 등의 청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이용빈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는 자주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이 이용빈도가 낮은 학생에 비해 높은 편의성과 심미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시설물 이용시간이나 요일을 늘리고 체력단련실(헬스장) 기구의 보충과 이동 동선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날씨에 맞는 온도, 환기, 조명 등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는 체육시설물 이용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이용량이 적은 학생에 비해 높은 편의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빈도가 많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요일을 늘리고 체력단련실(헬스장) 기구의 보충과 이동 동선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이용시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는 오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오전에 이용하는 학생보다 높은 심미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 이용시간에도 날씨에 맞게 온도, 환기, 조명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이용형태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별 차이는 선후배와 함께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형태로 이용하는 학생보다 높은 편의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체육시설물이 선후배간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기능적인 공간계획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대학생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물 인적서비스 요인별(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차이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육관 담당 직원의 친절, 목소리, 표정, 용모, 복장, 적극적인 응대 등의 높은 유형성과 전문성, 신뢰, 능숙함, 서비스 등의 높은 신뢰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타 스포츠센터의 이용경험이 여학생보다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인적서비스에 민감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체육관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세심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월평균소득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는 100~150만원의 학생이 다른 월평균소득에 비해 체육관 담당 직원에 대하여 높은 신뢰성과 학생에 대한 관심, 욕구와 흥미 파악, 배려 등의 높은 공감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소득이 높은 학생은 비교적 고급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민간스포츠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양한 소득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관심의 인적서비스 제공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이용종목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는 배드민턴 종목에 참여하는 학생이 다른 종목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높은 유형성과 공감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과 같은 종목에서 체육관 담당 직원의 인적서비스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체육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 종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이용요일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는 수요일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요일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높은 유형성을 경험하고, 금요일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높은 공감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요일에 담당직원의 학생에 대한 관심, 욕구와 흥미 파악, 배려,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이용량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는 4시간 이상 이용량을 보이는 학생이 담당 직원에 대한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등의 모두에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시간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담당 직원과 친숙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 운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이용시간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는 pm3~pm6시 이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시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보다 담당 직원에 대한 높은 유형성과 신뢰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시간에 담당 직원의 전문적인 도움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곱째, 이용형태에 따른 인적서비스 요인별 차이는 동기와 함께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높은 신뢰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분석

대학생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물 만족도 차이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량에 따른 만족도는 4시간 이상 이용량을 보이는 학생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셋째, 이용시간에 따른 만족도는 pm12~pm3시 이전에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이 다른 시간에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남학생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많은 시간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과 오전보다는 오후에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때 시간에 상관없이 시설, 사용방법,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전략을 강구하여 대학생들이 많은 시간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물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 및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요인 중 청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이용빈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과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이용시간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심미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이용형태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중 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성별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곱째, 월평균소득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신뢰성과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덟째, 이용종목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공감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홉째, 이용요일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째, 이용량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 및 공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한째, 이용시간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유형성과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두째, 이용형태에 따른 인적서비스 중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셋째,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넷째, 이용량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다섯째, 이용시간에 따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 전체 구성원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연구대상자를 대학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공경호(2004). 대학 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오산대학학생생활연구 논문집*, 9, 4-5.

김상현, 윤양진, 구수용(2018). 대학의 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저해요인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7(4), 505-516.

김성기(2010). 대학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환경분석 조사연구: D 대학 체육관의 거주 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6), 3-10.

맹두열(2012). 노인복지서비스 품질이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해원, 최영철(2022). 필라테스 센터의 서비스스케이프 척도 적합도 검증: Rasch 모형 적용. *한국체육과학회지*, 31(1), 979-986.

박현필(2018).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인적서비스와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백광, 남동현(2004). 대학 스포츠센터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마케팅전략. *한국스포츠리서치*, 15(1), 127-138.

유명원(2017). *태권도장의 인적서비스품질과 관계마케팅이 관계품질 및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윤준호(2013). *골프리조트의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상윤(2021). *상업 스포츠센터의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 고객만족 및 구전의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채재성(2002). 대학 체육시설의 기능과 운영방안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431-445.

황지현(2021). *피트니스센터의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재이용의도 및 구전의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30(6), 559-571.

## Abstract

#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by Student at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Campus

Han, TaeYong, Lee, HangOk, Kim, SaRyang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servicescape of sports facilities, human service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campus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using the sports facilities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campu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22 an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3 program, and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leanliness among servicescape according to gender.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venience and aesthetics among servicescape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use.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venience among servicescap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use.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esthetics among servicescapes according to the hours of use. Fif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venience among servicescapes according to the type of use. Six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ngible and reliability among human services according to gender. Seven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ability empathy among human services according to monthly average income. Eigh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ngible and empathy among human services according to the event of use. Nin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ngible and empathy among human services according to the day of use. Ten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ngible and reliability among human servic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use. Eleven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ngible and reliability among human services according to the hours of use. Twelf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ability among human services according to the type of use. Thirteen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Fourteen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use. Fifteen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hours of use.

**Key Words:** Sports facilities, Servicescape, Human service, Satisfaction

---

##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만5세 유아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방식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

정경희(하늘채어린이집 원장)·김현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의 부모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교육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를 탐색한다. 연구대상은 W시 M유치원 만 5세 유아 28명 중 사전 조사에서 다른 유아들에 비해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상위 15% 유아와 부모이다. 유아의 공격성과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행동 측정을 위해 각각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도입 단계, 전개(공격성에 대한 이해 및 훈련 바람직한 자녀 양육기술 이해 및 훈련)단계 및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총 4회기, 각 회기의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SPSS 12.0 Program으로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유아의 공격성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의 폭이 넓어졌으며, 거부제재,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으로 변화되었다.

주제어: 부모교육프로그램, 공격성, 부모의 인식, 양육행동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다. 공격성은 사회 속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타나는 행동으로 어떤 사회, 문화 속에서나 존재한다. 즉, 공격성은 운동경기, 시합, 경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인이 사회에서 살

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된다면 부적응 행동,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동으로 인정된다. 최근 신문이나 TV 방송 매체에서는 연일 폭력이나 공격적 행동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폭력이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의 생활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격성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돌 무렵의 시기로 유아기의 발달 특성상 때리고 물고 할퀴는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시험하

는 한 방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된 공격성은 안정적으로 지속되므로 어린 시기에 잘못 형성된 공격성은 그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한다(곽금주, 1993). 즉,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이어서 유아기에 습득된 행동의 연장 또는 확대된 경향으로 여러 사회심리적인 문제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emblay, 2000).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공격성의 변인 중 크게 유아변인(김순자, 2007; 김유진, 2005; 신유림, 2008; 윤진주, 강신영, 이복주, 2005)과 부모변인(김민정, 도현심, 2000; 김여가, 1997; 박윤조, 송하나, 2008; 서지영, 2003; 윤진주, 2006)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 중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인 중 가장 큰 요소는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최초로 접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부모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이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유아를 양육하는 방식 중에서 유아의 공격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변인은 부모가 공격성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기여하는 변인은 아동에 대한 냉정하고 거부적인 태도라고 한다(김여가, 1997).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공격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공격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인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유아의 공격적 행동의 감소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연구는 바람직한 부모역할과 공감적 대화법, 문제해결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김여경, 2003)와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와 실제, 대화의 기본태도, 자녀와의 일상대화, 효과적인 대화방법, 칭찬과 격려하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박효숙, 2000)정도로 그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어떤 행동을 공격성이 높은 행동으로 볼

것인지, 공격성 있는 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기초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모교육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치원 현장에서 부모교육의 방법을 개선하고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공격적인 유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기초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만 5세 유아의 공격성에 변화를 주는가?
- 연구문제 2.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공격적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변화를 주는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원주시에 위치한 M어린이집 햇님반 만 5세 유아 28명 중 사전에 유아의 공격성을 유아 개별면접과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선정되었다.

사전 조사에서 햇님반 28명의 유아 중 다른 유아들에 비해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상위 15% 유아와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상위 15% 유아의 성과 부모의 기본 인적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유아관련 척도와 부모관련 척

〈표 1〉 사전 조사에서 선정된 헛님반 유아와 부모의 기본 인적사항

이름	성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
김 0 0	여	만 32세	2년제 대학 졸	주부
정 0 0	남	만 37세	4년제 대학 졸	회사원
한 0 0	남	만 36세	4년제 대학 졸	주부
이 0 0	여	만 42세	2년제 대학 졸	회사원

도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유아관련 척도에는 유아의 공격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부모 관련 척도에는 부모의 공격성에 대한 인식과 양육 행동 측정을 위한 질문지가 포함된다.

유아의 공격성은 교사와 또래에 의해, 부모관련 변인은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다. 유아의 공격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혼자 질문지를 읽고 답할 수 없으므로 유아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 1) 유아관련 척도

유아관련 척도는 유아의 공격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공격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는 Crick, Casa와 Mosher(1997)의 공격성 척도인 PSBS-P(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Peer Form)를 김민정(2008)이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 질문지인 PSBS-P는 외현화 공격성(4문항), 관계적 공격성(4문항), 친사회적 행동(4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관련된 외현화 공격성(4문항)과 관계적 공격성(4문항)을 합한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질문지에 해당 유아의 이름에 X표를 한 후, 같은 반유아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각 문항에 대해 혹시 헛님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행동한다고 생각되는 친구의 사진을 3명까지 지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진에서 지목된 유아의 이름을 질문지에 표시하며, 검사를 진행하였다. 각 유아의 공격성점수는 그 유아의 행동이 문항에 해당된다고 표시된 숫자들을 모두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부모관련 척도

부모 관련 척도에는 부모의 공격성에 대한 인식 및 양육행동 측정을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공격성에 대한 인식은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자녀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공격성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간단하게 진술하게 하였다. 즉,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머니의 간단한 서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김문정(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chaefer(1965)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박영애(1995)가 수정·변안하여 온정·수용(40문항), 거부·제재(28문항), 허용·방임(12문항) 등 총 8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문항수를 줄이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10문항씩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총 3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5점 Likart식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양육행동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로 점수를 합산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각각 10점에서 40점이다.

## 3. 연구절차

### 1) 1단계: 사전검사 실시

사전 검사는 2022년 3월에 1단계에서 선정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오전 9시-오후 1시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법을 통해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유아의 공격행동 관찰을 위한

관찰자로는 연구자 외 유아교육을 전공한 1명의 관찰자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공격행동 항목들을 익히도록 해서 관찰자들 간 측정의 일치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관찰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5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관찰시간은 자유놀이시간 60분 동안 각 유아 당 10초씩 관찰하고 5초 동안 기록하였다. 유아 당 관찰 회수는 40회로 매일 매일 관찰아동의 순번이 바뀌도록 조정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유아 편에 부모에게 배부 회수되었으며 총 24부 모두 회수되었다.

## 2) 2단계 : 집단 선정

집단 선정은 사전 검사에게 1:1 유아면접과 교사 공격행동 관찰에 의해 조사된 공격성 점수를 기초로 상위 15%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부모교육의 대상은 한반 전체이며 공격성 점수를 기초로 선정된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하였다.

## 3) 3단계 :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공격적 유아의 부모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공격적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능력을 기르고 보다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익히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부모는 유아의 문제행동 개선과 더불어 자신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형태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함으로써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생활과 더불어 부모의 긍정적인 사회생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관련 연구들을 기초로 개발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의 내용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세 단계, 즉 도입 단계, 전개 단계 및 마무리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 단계인 첫 회기에는 강사와 참여 부모들 간, 부모 상호간의 래포 형성과 응집력 증진, 자기 노출의 분위기를 통해 상호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단계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입 시간에는 낯선 분위기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강사와 참여 부모들 서로 간의 소개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의 필요성, 구성, 내용 및 진행 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소개한다. 강의 및 토론 시간에는 공격적인 상황을 실제로 살펴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는 공격적인 아이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휴식시간에 우리 아이 공격성 테스트를 직접 작성해볼 수 있게 한다. 이어지는 강의 시간에는 태어나서 유아기까지 공격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단계를 알아보고 각 단계별 부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부모로서 나의 양육행동과 언어유형이 유아의 공격행동과 연관지어 살펴보고 이어지는 실습시간에 양육행동 척도를 통하여 자신의 양육행동을 체크해본다. 그리고 마무리 시간에는 본 회기에 대한 복습과 함께 다음 회기를 위한 과제 제시와 광고 시간을 가진다.

전개 단계는 공격성에 대해 이해하고 훈련하며, 바람직한 자녀양육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전자는 2회기에, 후자는 3-4회기에 속한다.

### 가. 공격성에 대한 이해 및 훈련

전개 단계 가운데 2회기와 3회기는 공격성에 대한 이해 및 훈련을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부모로 하여금 유아의 공격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회기의 강의 및 토론 시간에는 공격적 행동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서 공격적 행동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그리고 유아의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유아·부모·환경 변인에 대해 알아본다. 공격적인 유아의 특성과 유아의 부정적 목표 행동이 있음을 알아보고 각 부정적 목표 행동에 따른 대처방법을 습득한다. 휴식 후 공격적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보면서 각 공격적 행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조를 나누어서 토의해보고 각 상황에 따라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 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기술 이해 및 훈련

전개 단계 가운데 3-4회기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기술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단계로서, 각 회기별로 모델링, 제한 설정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3회기의 강의 및 토론 시간에는 공격성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 가정의 환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유아에게 부모로서 감정 완화하는 모습을 모델링해주는 방법을 통해 부모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감정완화방법과 경청, 공감과 같은 대화법을 학습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방법을 알아본다. 그런 후 공격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물이 무엇이 있는지, 대체물을 사용할 때의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실습 및 토론 시간에는 우리 집의 공격성을 조장하는 요소에 대해 조원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집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또한 함께 익힌 정서 조절법을 화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호흡과 함께 직접 연습해본다. 마지막으로 공감하기 활동지를 함께 보면서 유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유아의 감정을 공감해줄 것인지 역할극을 통해서 연습하여 본다. 4회기에서는 강의 및 토론 시간에 공격적 행동의 감소를 위한 제한설정하기를 통하여 양육의 단호한 태도를 이해하고 선택권주기 등의 방법으로 유아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양육기술을 익힌다. 실습 및 토론 시간에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한설정하기와 선택권 주기에 대해 실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해결 상황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익힌다.

#### (2) 프로그램의 운영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만 5세 유아의 부모로서, 원주시에 위치한 M어린이집 햇님반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특히 사전 조사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상위 15% 이상의 유아의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전공자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자이다. 본 프로그램은 2022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1회씩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각 회기의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 4) 4단계 : 사후 검사 실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인 4회기를 마친 직후인 2022년 4월 27일-5월 1일에 선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1:1 개별 면접법을 통한 검사와 공격행동 관찰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부모는 질문지를 배부하여 1주 이내에 모두 회수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교사 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해 측정된 공격성 점수를 기초로 백분위 점수를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종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유아의 공격성과 부모의 공격성에 대한 인식 및 양육행동의 부모관련 변인의 사전 사후 검사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 1.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공격성의 변화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공격성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유의 수준 .05에서 사전, 사후 검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에 따라 공격성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변화

공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공격성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공격성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공격성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김OO 어머니. 2022. 5. 6)

“공격성은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 말이 잘 되지 않아 친구를 때리거나 꼬집고, 장난감을 뺏는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OO 어머니. 2022. 5. 6)

“육구충족이 되지 않아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OO 어머니. 2022. 5. 6)

“친구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갈 때 막 밀어버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행동이 공격성이 아닐까요?”

(조OO 어머니. 2022. 5. 6)

이렇게 공격성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인식했던 어머니들의 생각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접한 후에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처음에 공격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행동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행동 이외에도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도 공격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내가 모르게 사용했던 말 속에 들어있던 공격적인 요소들을 우리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 아파했을 것을 생각하니, 이제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OO 어머니. 2022. 5. 27)

“저는 공격성은 무조건 때리거나 폭력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저의 권위와 권력으로 아이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에게 규칙을 정해주면 아이는 그냥 꼭 그 규칙을

〈표 2〉 유아의 공격성의 변

	교 사		보 고	
	김 0 0	정 0 0	한 0 0	이 0 0
사전	29	24	20	17
사후	18	10	14	14
	또 래		보 고	
	황 0 0	조 0 0	이 0 0	양 0 0
사전	12	9	8	7
사후	7	4	5	5

\*p<.05 \*\*p<.01, \*\*\*p<.001

지켜야 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만의 방법으로 금지와 규제를 시켰었는데, 요즘 아이가 놀이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런 금지와 규제의 방법을 친구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격성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박OO 어머니. 2022. 5. 27)

“강의를 들으면서 공격성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공격을 하려던 의도를 갖지 않고서도 자기도 모르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이를 나무랐던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본 후에 꼭 짚어서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 같아요.”

(이OO 어머니. 2022. 5. 27)

“저희 아이는 공격성이 낮은 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침착한 아이라 생각했는데 부모교육을 듣고 난 후에 친구와 노는 것을 관찰해보니, 친구랑 잘 놀고 있다가 친구가 여러 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무시당하면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집에 와서 동생을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들을 해요. 자주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왜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겠더라고요.”

(조OO 어머니. 2022. 5. 27)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공격성 있는 유아의 부모는 ‘공격성’이라는 문제행동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공격성의 범주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의 내재적인 의미까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즉 어머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성이 드러나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유아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김민정, 2008; 김여가, 1997; 박중규, 2000; 박효숙, 2000)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공격적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격성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뒤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인 공격적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 5세 유아의 공격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행 결과 부모교육프로그램에 통해 사전조사에서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던 유아의 공격성은 감소되었다. 이는 공격성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김민정, 2008; 김여경, 2003; 도현심·권정임·박보경·홍성흔·홍주영·황연은, 2003; 이정혜, 2004; Walker et al., 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교육함과 동시에 부모를 대상으로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이처럼 유아의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교육기간 동안 어머니를 대상으로 공격성의 유형과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및 부모로서 공격성이 나타났을 때 대처기술을 알아보고 연습을 실제 역할을 나누어서 해 본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방치된 공격성이 유아의 성장 후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여 부모에게 공격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학기 초 유아들이 변화에 민감한 5월이

라는 시기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도 효과적이었다. 유아의 공격성에 대해 어머니와 교사가 함께 생각해본 후 각각 공격성이 나타나는 상황에 맞게 유아의 공격성을 조절해보는 경험은 시기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아들이 더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향상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공격적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행결과 공격적 유아를 둔 어머니의 공격성에 대한 인식은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공격성’이라는 문제행동의 개념이 확장되었고, 유아가 공격성을 드러냈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적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본 프로그램 참여 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부모로 하여금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양육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온정·수용적 양육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격적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할 때 관련된 문헌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알아보고 부모와 함께 직접 실천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강의만 하는 지루한 형식에서 탈피하여 강의와 더불어 토론, 역할극, 실습이라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어머니가 공격성에 대한 개념과 양육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 반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운영하여 실제 그 반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언급하고 보여줌으로써 어머니의 참석율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2.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유아의 공격성을 줄이는데에 효과가 있었다. 공격성이 높았던 상위15% 이상의 유아는 어머니가 본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공격성이 줄어들었고, 교실에서 자유선택활동을 할 때 전보다 안정된 모습으로 놀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공격성에 대한어머니의 인식의 폭이 넓어졌으며, 거부제재,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가정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유아의 공격성 감소를 돕기 위해 부모와 함께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곽금주(1995). 아동의 공격성. 조복희(편).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 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순자(2000). 유아의 초기 환경이 공격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립 논총, 6, 131-157.

김여가(1997).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여경(2003).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증재를 위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진(2005).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유아의 추론과 행동.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현심, 권정임, 박보경, 홍성흔, 홍주영, 황영은(2003).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4), 103-121.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윤조, 송하나(200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11, 139-149.

박중규(2000). 아동의 방해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의 치료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효숙(2004).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지영(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유림(2008). 유아기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 성차 및 언어, 사회적 능력과의관련성. 유아교육연구, 28(2), 95-111.

Shaffer, D. R.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California*: Brools/Cole.

Tremblay, R. A. (2004). The development of human physicalaggreton: How important is early children. In L. A. Leavitt & D. M. B. Hall(Eds.),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Emerging evidence on the toddler years*(pp. 221-238). New Brunswick, NY: Johnson and Johnson Pediatric Institute.

## Abstract

#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on Aggression of 5-Year-Old Children and Parents' Parenting Style and Perception

Jeong, Kyung-hee (Director, Haneulchae Daycare Center) and Kim, Hyeon Jeong (Professor, Early Childhood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parental education programs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parental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prepare ways to improve parental education program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top 15% of 28 5-year-old children from M Kindergarten in W City and their parents who showed higher levels of aggression than other children in the pre-survey. Each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parental awaren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children's aggression and aggression.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was conducted in the introductory stage, the development stage (understanding and training of aggression and understanding of desirable child rearing skills), and the final stage. There were a total of 4 sessions, and each session took about 2 hour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the data obtained from the pre- and post-tests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with the SPSS 12.0 Program,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Second,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changed the mother's parenting style. The mother's awareness of aggression widened, and parenting behaviors of rejection/sanction, permissiveness/neglect were changed to compassionate/accepting parenting behaviors.

**Key words:** Parent Education Program, Aggression, Parenting Style and Perception

---



#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상일(아이마음어린이집 원장) · 김현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하여 보육교사가 역동적으로 읽기 및 행동 표현을 포함한 통합적인 놀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능력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W시에 위치한 P어린이집의 만 1세 영아반 남아 5명, 여아 4명 모두 9명의 영아들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3주 동안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적 놀이 활동은 영아들에게 흥미로운 상황을 제공해주어 영아가 더욱 놀이에 집중하게 하고 그들이 듣고 느낀 것을 다양한 신체 움직임 요소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적 놀이 활동을 경험한 영아는 창의적 신체표현능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주제어: 그림책, 통합적 놀이활동, 창의, 신체표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육 현장에서 영아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의 하루일과를 놀이 활동을 하며 지낸다. 영아들은 놀이를 통해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이에 몰입하고 놀이를 즐긴다. 학자마다 놀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영아기 놀이의 정의적 특성은 탐색 놀이, 감각운동놀이, 사회적놀이, 기능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알아가는 한편 반복하여 놀이하게 된다(김이경, 2021). 이처럼 놀이를 통한 영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해서 놀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현대에 중요한 과제로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놀이 환경은 영아의 놀이가 활성화되는 배경이자 영아가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영아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으로 귀결되어 매우 중요하다(이미선, 021).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영아의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은 부모나 보육교사 등 더 성숙하고 더 유능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되므로 영아 발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보육환경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량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적 측면을 잘 이해하고 영아의 개별 특성과 발달 변화의 정도를 정확히 관찰하여 개별 영아에게 적절한 놀이지도를 하여야 한다(김숙현, 김정준, 2019). 보육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영아가 무엇에 흥미를 갖고 놀이하는지를 지원하고 지지해야 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림책과 연계한 통합적 놀이 활동은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보육교사 그리고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사가 영아와 상호작용하면서 영아가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 적극적 지원과 지지로 영아가 신뢰감과 자율성을 획득하고,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수 방법에는 그림책을 보육교사가 영아와 함께 읽고 후속 활동으로 영아와 함께 게임이나 음률, 조형, 극놀이와 같은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된다(이화진, 서현아, 2011). 따라서 보육교사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속 활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 교육과 함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지미정, 2015). 보육교사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관찰하여 확인하고, 따뜻한 미소와 공감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영아의 놀이를 격려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 이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하여 보육교사가 역동적으로 읽기 및 행동 표현을 포함한 통합적인 놀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능력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발달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활동에 관한 연구 중에는 영아들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 등 다양한 발달영역과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가 주류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보육교사의 질은 그 어떤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통합적 놀이 활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또한, 보육 현장에서 어떻게 그림책을 활용하여 영아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영아기 이후 신체 능력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색하는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육교사 자신도 자기만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 지원과 지지 역할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용어 정의

### 가. 그림책

영아를 위한 그림책은 호기심, 상상력, 독창성이 있는 내용으로 반복적이고 리듬감이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 그림책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지어 상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심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삶을 풍요롭게 하므로 영아시기에는 그림책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송순옥, 최미숙, 2013). 이 연구에서 그림책(picture book)은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책으로서 영아 그림책은 내용이 쉽고, 영아에게 가치 있는 연령에 적합한 그림책을 말한다.

### 나. 통합적 놀이 활동

Bredenkamp과 Rosegran(1995)는 통합이란 영유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 개 이상의 교과 또는 학문 영역을 연결하여 영아 스스로 탐색하고 해석하는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주제나 개념을 조직화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은 그림책을 읽은 후 영아와 보육교사의 경험이나 사고, 교육내용과 발달 간의 통합을 통해서 영아에게 흥미 있는 신체, 언어, 조형, 음률, 동작, 극놀이 등을 그림책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유란, 2019). 즉 그림책을 읽고 한 가지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 신체, 언어, 게임, 이야기 나누기의 다양한 방법의 교수 활동을 통해 영아의 이해 수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양지혜, 이경옥, 2013)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은 사람, 동물, 자연현상 등 매우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교과와 내용의 통합과 환경 및 영아의 흥미를 확장하는 공간의 통합을 포함한다. 영아 교육에서 통합은 교육에 투입되는 활동의 통합이라 정의한다.

#### 다. 창의적 신체표현력

창의적 신체표현력은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다. 또한 창의성을 성격적 특성이나 인지적 기능 같은 단일차원의 특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격, 지능, 지식, 사고유형, 환경, 동기 등의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특성으로 본다(강연홍, 2014).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신체표현력은 동작의 다양성, 동작의 방향성, 동작의 흐름변화, 동작의 시간성, 동작의 표현성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정의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W시에 위치한 P어린이집의 만 1세 영아반 남아 5명, 여아 4명 모두 9명의 영아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성별 표는 <표 1>과 같다. 만 1세반 담임 선생님 K교사는 경력 6년의 보육교사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타 어린이집에서 2년 근무하고 4년

동안 본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H교사는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본 원에서는 1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 영아의 성별

성 별	남	여	총
인 원	5	4	9

### 2. 연구절차

#### 1)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의 구성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은 사람, 동물, 자연현상 등 매우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러한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신체표현 놀이는 영아에게 친숙한 그림책을 접해봄으로써 즐겁고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놀이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흥미 있는 주제를 탐색하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와준다(양지혜, 이경옥, 2014).

#### 2) 그림책의 놀이적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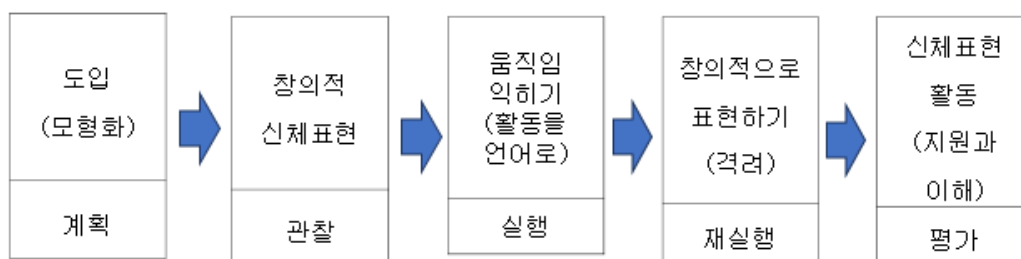
영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하고 다른 활동과 연계성 있는 그림책을 제시하면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을 통한 통합적 놀이가 창의적 신체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흥미로워하는 그림책 3편을 선정하였다. <표 2>와 같다.

그림책 감상하기, 움직임 익히기(활동을 언어로), 창의적인 신체표현 관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신체표현 격려), 신체표현 활동 지원과 이해 5단계로 실행하였다. 각 단계별 실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그림책에 관심 갖기'에서는 영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림책, 영상을 통해 영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단계 그림책 감상한 후 움직임을 익히는데 활동을 언어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영아들에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그림책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창의적으로 신체표현을 하는지 관찰을 해본다. 4단계 창의적으로 신체표현을 격려 해주며 영아들의 신체표현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5단계는 그림책을 통한 창의적 신체표

〈표 2〉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림책 선정 이유

선정된 그림책	그림책을 선정한 이유	비고
두드려 보아요	대소근육을 이용하여 두드려보기, 반복되는 의태어를 통하여 영아들의 신체 표현이 가능하다.	
구두구두 걸어라	씩씩하게 걸어보기, 천천히 걷기 등 다양한 신체놀이가 가능하다.	
후후후	비눗방울 만들어 불어보기, 배를 만들어 물 위에 띄어보며 움직여보기, 큰 튜브에서 노 저어보기 등 다양한 신체놀이 표현이 가능하다.	

〈표 3〉 통합적 놀이 활동 수업단계



현 지원과 이해를 하며 평가를 통해 그림책에 흥미를 가지고 확장시키는 단계이다.

### 3) 예비연구

본 활동을 위해 실시하기 전 만 1세 영아들에게 2022년 4월 11일에 예비활동을 실시하였다. 영아들에게 오전에는 그림책 ‘두드려 보아요’를 들려주자 관심을 보인다. 오후에는 영상을 통해 ‘두드려 보아요’를 제공해주자 영상매체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4) 교사훈련

본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신체놀이에 영향을 주는 그림책, 그림책을 선정한 근거, 활동의 내용

및 방법, 교사의 역할 등 연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였다. 오전 자유놀이시간에는 담임교사인 K교사와 H교사가 자유롭게 그림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며 오후 자유선택놀이시간에는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림책을 통한 신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 5)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2022년 5월 9일 ~ 2022년 5월 27일까지 3주 동안 주 2회씩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오전, 오후 자유놀이시간에 영아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림책의 활동별 내용은 〈표4〉과 같다.

〈표 4〉 그림책의 활동별

선정된 그림책	활동내용	활동기간
두드려 보아요	① 그림책 감상하기 ② 푹푹 두드리며 손유희를 해보기 ③ 음률을 넣어 놀이 익히기	5월 2주
구두구두 걸어라	① 그림책 감상하기 ② 다양한 모양으로 걸어보기 ③ 발바닥 모양을 따라 걸어보기	5월 3주
후후후	① 그림책 감상하기 ② 후후후 비눗방울 불어보기 ③ 비눗방울 잡아보며 대소근육 움직여보기	5월 4주

### III. 연구 결과

그림책에 기초한 통합된 놀이 활동이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위한 활동에서 교사는 영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통해 이해를 하고 신체놀이에 연계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림책을 감상한 후 놀이로 전환하기,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해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익혀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정된 그림책의 계획 및 놀이 활동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활동 : 두드려 보아요

‘두드려 보아요’는 5월 9일 ~ 5월 13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영아들의 놀이특징, 주의 집중력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오전, 오후 자유선택놀이시간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영아들이 쉽게 신체놀이를 익힐 수 있었다. ‘두드려 보아요’ 활동내용은 <표5>와 같다.

영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해볼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영아들이 문에 관심을 보이면서 두드리는 신체표현을 연결하였고 재미있어 하였다. 교사가 그림책을 통하여 다양한 악기와 여러 가지 물체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소리를 탐색하기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는 여러 악기들을 의도하여 음률 영역에 준비하였다. 영아들은 교사가 “똑똑”하면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두드리거나, 아님 자기 손으로라도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내었고 신체표현을 하였다.


교사가 먼저 “똑똑” 하니 영아가 음률 영역으로 가서는 리듬악기를 들고 책상이랑 교구장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옆에 친구는 놀던 자리에서 자기고 있던 장난감을 두드리는 신체표현을 하였다.  
2022. 5. 11

‘두드려 보아요’ 그림책을 감상한 후 페트병을 이용하여 마라카스를 만들어 음률 영역에 두고 두드려 보면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두드려 볼때의 강도도 느껴보며 대소근육을 조절해보기도 한다.  
2022. 5. 13

‘두드려 보아요’ 그림책은 영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신체표현 동작들이 나와 다양한 악기 두드림과 물체를 두드리며 대소근육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함으로 소리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영아들이 매우 흥미로워 하였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흥미를 보이며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행동을 보임으로 그림책을 보고 일상생활에서 신체표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 그림책 1 : 두드려 보아요

활동명	두드려 보아요		대상연령	만 1세
활동기간	5월 9일 ~ 5월 11일		활동시간	오전, 오후 자유놀이시간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들의 색깔 이름을 알아본다.</li> <li>· 신체의 대소근육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물체를 두드려 본다.</li> <li>·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소리를 탐색한다.</li> </ul>			
활동자료	리듬막대, 페트병, 다양한 악기			
활동단계	<b>활동내용</b>			
도입	그림책 탐색 및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두드려 보아요」를 영아와 보육교사가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눈다.</li> <li>- 이 아이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li> <li>- 이문은 무슨 색깔까요?</li> <li>- 어떻게 두드릴까?</li> <li>- 똑! 똑</li> </ul>		
전개	창의적 신체표현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악기 중 리듬 막대를 두드려 소리를 들어 보기</li> <li>- 페트병을 이용하여 소리를 탐색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 다양성을 알고, 두드려 본다.</li> <li>*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낸다.</li> <li>- 친구의 신체 중 등에 푹푹, 두드려본다.</li> <li>- 다음 친구가 문을 열어주면, 그다음 친구가 푹푹, 등을 두드린다.</li> </ul>
	놀이 확장하기 (언어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의 반복되는 언어를 말해볼 수 있다.</li> <li>- 푹푹, 문 좀 열어주세요. (음료를 넣어 말해본다.)</li> <li>- 누가 찾아왔나요.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li> <li>- 네, 네 들어오세요~/ 네~네 들어갑니다</li> </ul>
	활동사진	
마 무 리	평가	<p>슬기반 친구들의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하여 문을 두드려 보고 벽도 두드려 보고 창문도 두드려 보며 다양한 신체표현을 할 수 있었고 각각이 들려주는 소리에 재미를 느꼈으며 친구의 등을 두드리며 친밀감도 형성하고 영아들이 흥미로워했다.</p>

## 2.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활동 2 : 구두구두 걸어라

‘구두구두 걸어라’ 그림책은 다양한 신발 모양을 통해 영아들이 걸을 수 있고 힘 조절을 할 수 있으며, 의성어, 의태어의 반복으로 영아들에게 재미난 리듬감을 주어 걸을 때 재미나게 동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두구두 걸어라’ 활동내용은 <표 6>와 같다.

‘구두구두 걸어라’ 그림책을 보면서 다양한 신발에 관심을 보였고, 그것을 신어보면서 다양하게 걸음걸이도 해보며 신체표현을 하였고, 발자국 모양이 있는 곳은 밟으면서 입으로 음을 내면서 걷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노래 부르며 자연스럽게 걷거나 뛰는 모습을 보면서 영아들이 매우 흥미로워했다.

‘구두구두 걸어라’ 그림책을 영상매체로 감상하던 중 한 영아가 다양한 의태어 소리가 나니깐 재미있어한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따라 “깡충 깡충”한다. 또 다른 친구는 “영차 영차”를 따라 하기도 하고, 구두가 “잘 자”라고 하며, 잘 때는 어떤 영아는 매트에 가서 눕기도 하고 같이 “잘 자라”라고 인사도 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책을 감상하니깐 매우 재미있어 하였다.

2022. 5. 18



발바닥 모양을 바닥에 내려놓고 영아들이 따라 걸어 도 보고, 발바닥 모양의 간격이 넓은 곳과 좁은 곳은 아이들이 점프를 하거나 몇 번 반복해 뛰어보기도 하고 토끼처럼 깡충 해 보는 영아도 있고 다양한 신체표현을 하며 그림책에서 보았던 것들을 놀이와 동작으로 표현하며 매우 흥미로워 했고, 교실 바닥에 발바닥 모양을 붙여 놓아 몇 일 동안 영아들에게 제공해주었다.

발바닥 모양의 그림대로 영아들이 따라 하며 재미있어 하여, 마블링처럼 되어 있는 교구를 이용하여 영아들이 걷는 모양대로 마블링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관찰해 보았고, 교사와 영아의 발자국 모양대로 마블링의 변화도 관찰해보았다. 그러면서 한 영아가 “선생님 발이 크다”라고 하며 말하고 변하는 마블링이 재미있으니 점프를 하며 다양한 신체 동작을 해보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었다.

2022. 5. 20

다양한 신발을 신어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발바닥 모양의 그림대로 좁게도 넓게도 걸어보고 점프도 해보고 힘 조절을 해보며 빠르게 느리게도 걸어 보며 힘 조절을 하는 동안 영아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표 6〉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활동 2 : 구두구두 걸어라

활동명		구두구두 걸어라	대상연령	만 1세
활동기간		5월 16일 ~ 5월 20일	활동시간	오전.오후 자유놀이시간
활동목표		·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다. · 대근육을 사용하여 빠르게, 느리게 힘 조절할 수 있다. 다양한 신발을 신어보고 걸어보기		
활동자료		다양한 신발(구두, 운동화, 샌들) 발동작 그림 자료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그림책 탐색 및 상호작용	* 그림책「구두구두 걸어라」를 영아와 보육교사가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그림책 속에 구두는 어떻게 뒀을까? - 우리도 그림책 속의 구두처럼 걸을 수 있을까? - 어떻게 두드릴까? - 푹! 푹!		
전개	창의적 신체표현활동 놀이	* 다양한 신발(구두)을 신고 걸어보기 - 각자 자기 신발을 신고 실외로 나가서 걸어본다 - 발바닥 모양을 따라서 걸어본다. - 빠르게, 느리게, 까치발로 걸을 수 있다 - 깡충깡충 토끼처럼 뛰어본다..  * 징검다리를 만들어 걸어보기 -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다 -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팔을 이용할 수 있다 - 필요하면 보육교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놀이확장하기 (언어표현하기)	* 그림책의 반복되는 언어를 말해볼 수 있다. - 구두구두 걸어라. (음률을 넣어 말해본다.) - 쿵쿵 걸어보자. 깡충깡충 뛰어보자 - 발을 세워 푹푹 걸어보자.		
		 		
마무리	평가	- 여러 가지 신발을 이용하여 다양한 걸음걸이를 해보았다. - 걸음걸이에 음률을 넣어 재미난 걸음걸이도 해보고 뛰어보기도 하며 균형 감각을 이용할 때는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모습이 보였다.

### 3.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활동 3 : 후후후

‘후후후’ 그림책을 감사하며 영아들이 좋아하는 비눗

방울에 관심이 더 생겼고, 이 책을 읽으면 바로 실외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영아들이 바로 비눗방울을 가지고 나가자고 한다. 영아들이 책에서처럼 자기들도 불어본다고 ‘후’ 해본다. ‘후후후’ 활동내용은 〈표7〉과 같다.

〈표 7〉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활동3 : 후후후

활동명		후후후	대상연령	만 1세
활동기간		5월 23일 ~ 5월 27일	활동시간	오전.오후 자유놀이시간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눗방울을 불어보기.</li> <li>- 비눗방울 불어볼 때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비눗방울을 만들어보고, 비눗방울 따라가 보기</li> </ul>		
활동자료		비눗방울, 다양한 도구의 모양 틀,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그림책 탐색 및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후후후」를 영아와 보육교사가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눈다.</li> <li>- 그림책 속에 비눗방울은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li> <li>- 후후후~힘을 조절하여 불어볼 수 있을까?</li> <li>- 국수, 호빵이 뜨거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li> </ul>		
전개	창의적 신체표현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눗방울 따라가 보기</li> <li>- 크고, 작은 비눗방울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li> <li>- 빠르게, 느리게, 까치발로 걸을 수 있다.</li> <li>- 비눗방울 따라서 높게 뛰어보자, 낮게 기어보자</li> <li>- 비눗방울 잡아보기, 손을 위로 높게 옆으로 움직여가면서 대소근육을 움직여보자.</li> <li>*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li> <li>- 뜨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li> <li>-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li> </ul>		
	놀이 확장하기 (언어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의 반복되는 언어를 말해볼 수 있다</li> <li>- 비눗방울이 동동. (음률을 넣어 말해본다.)</li> <li>- 밀리밀리 동동동, 깡충깡충 뛰어보자.</li> <li>- 종이배가 동실동실, 동실동실 떠가요.</li> <li>- 국수를 남남, 남남, 꿀찍~</li> <li>- 호빵을 호호호~불어보자.</li> <li>- 앓, 뜨거워 조심조심</li> </ul>		
		 		
마무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서 대소근육 뿐만 아니라 얼굴, 호흡의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다. 적극적으로 영아들이 참여하였으며 비눗방울을 따라서 맘껏 뛰고, 뛰면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li> </ul>		

‘후후후’ 그림책은 영아들이 매우 흥미로워 하였으며 놀이를 하면서도 영아들이 자유롭게 그림책을 가져와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읽어달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비눗방울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불어 달라고 하고 영아들 자신이 불어본다고 입을 내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누 방울이 바람에 날리면 자신들이 터트리기 위하여 달려가 손뼉을 치는 동작을 하는 영아들이 대부분이었다.

‘후후후’ 그림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바로 손을 잡고는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입 모양을 ‘후’한다. 밖으로 나가 비누방울 놀이가 하고 싶은거다. 그림책을 재미있어 하면서도 비누방울도 하고 싶고 바깥놀이도 하고 싶은 영아들의 속내가 보였다. 만1세다보니 비누액이 위험하여 교사들이 붙여주는데 그림책을 통하여 자신의 입모양을 ‘후’하며 교사보고 갖다대달라고 하는 영아들도 있다.

2022. 5. 25

‘후후’ 반복하면서 바람 부는 흉내를 내어 의태어 소리가 반복되니 영아들이 입모양을 따라 하기도 하고 소리를 따라 하기도 하면서 매우 흥미로워했다.

비누방울이 ‘동동’ 하니 영아들이 따라 하기도 하고 뛰어보며 ‘동동’ 거리기도 하고 뛰어 다니는 신체표현을 하며 다양한 동작들이 나왔으며 비누방울이 날아가는 모양을 보며 ‘동동’ 하는 영아도 있고 비누방울과 함께 뛰어가 펄쩍 동작을 해보는 영아들도 있고 그림책을 통하여 다양한 신체표현을 하였다. 민들레 꽃을 발견하고는 입으로 후 하고 불며 씨를 날려보기도 하였다.

2022. 5. 27

영아들이 그림책을 통하여 다양한 신체표현을 하였고, 재미난 말들이 반복되어 읽어주니 따라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같이 표현을 하며 재미있어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 1세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놀이 활동의 참여 여부가 영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아는 단순히 그림책 읽기 활동을 경험한 것보다 보육교사가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활동 시 신체 움직임을 제시하고, 신체움직임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고 음악, 미술, 동작, 영상자료 등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영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합적 놀이 활동은 영아들에게 흥미로운 상황을 제공해주어 영아가 더욱 놀이에 집중하게 하고 그들이 듣고 느낀 것을 다양한 신체 움직임 요소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적 놀이 활동을 경험한 영아는 창의적 신체표현능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의성어, 의태어, 음률, 동작, 신체표현 활동 등의 통합적인 놀이가 영아의 창의적인 신체표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지만 그림책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창의적 신체표현이 만1세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고, 교사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으며, 영아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며 그 내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영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교사의 몫이라고 보았다.

#### 참고 문헌

- 김숙현, 김정준(2019). 보육교사의 교사역량과 교수물 입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 유아교육연구, 21(3), 1-23.
- 김이경(2021). 근거이론 기반 놀이치료자의 0~3세 영유아 놀이치료 경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세종: 경성문화사.
- 송순옥, 성연정(2017). 그림책을 활용한 만2세 영아의 신체활동이 기본운동능력 및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45-66.
- 이미선(2021).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교수창의성, 놀이신념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교사 영유아 상호작용과 교실환경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지혜, 이경옥(2014).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장애학회, 5(1), 95-112.

이화진, 서현아(2011). 그림책 읽기 후속활동이 영아의 언어 및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 생활 과학회, 22(3), 455-469

## Abstract

# The Effect of Integrated Play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on Children's Creative Body Expression

Lee, Sang-il (Director, Imaum Daycare Center) Kim, Hyeon Jeong (Professor, Early Childhood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play activities including dynamic reading and behavioral expression by nursery teachers using picture books for 1-year-old infants affects the development of infants' creative body expression skills. To this end, 9 infants, 5 males and 4 females, from a 1-year-old infant class at P daycare center located in W c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effect of integrated play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for 3 weeks on infants' creative body expression skills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tegrated play activities provided an interesting situation for infants, allowing them to concentrate on play more and express what they heard and felt through various body movement elements. A positive effect could be seen.

**Key words:** Picture books, integrated play activities, creativity, physical expression

---



##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중심 평가<sup>1)</sup>

박수지(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품질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세종시가 2020년 실시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자료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중심 품질평가는 공공서비스 영역의 신공공관리 접근을 기초로 하여 과정품질, 결과품질, 환경품질로 구분하여 개관하였다. 과정품질 측정을 위해서는 SERVQUAL 척도를 수정한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의 4개 차원 총 12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결과품질 측정을 위해서는 CSI를 국내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번역 및 수정한 CSI-K 척도의 서비스 공급자와 결과에 대한 만족도 2개 차원 총 2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환경품질로는 접근성, 편리성 등의 서비스 이용현황으로 개관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중심 품질은 시설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이용자 중심 평가, 과정품질, 결과품질, 환경품질, SERVQUAL, CSI-K

### I. 서론

품질에 대한 관점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에 대한 의견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Groenroos(1984)는 서비스의 품질을 결과품질과 과정품질 2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결과 품질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 얻은 것 즉 무엇(what)을 받았는지에 대한 품질을 의미하며, 과정품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정도 즉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SERVQUAL 모형은 2차원의 품질 차원에서 과정품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Rust와 Oliver(1994)는 서비스 품질을 '서비스 상품

(product)', '서비스 전달(delivery)', '서비스 환경(environment)'의 3차원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는 Groenroos가 제안한 2차원 품질과 비교할 때 '서비스 상품'은 결과품질에, '서비스 전달'은 과정품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환경'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정보 수집의 용이성, 등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때 위의 품질 차원 외에 사회품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 척도인 SSI(Seoul Service Index, 2005)는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의 항목을 사회품질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정부산하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평가 모형인 KCI-PS(Korean

1) 본 논문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연구보고서「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박형준 외, 2021)의 제5장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분석 및 제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Customer Satisfaction Index-Public Sector) 또한 품질의 차원에 사회품질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공익성, 안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자 중심의 평가인 과정품질과 결과품질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현황에 해당하는 서비스 접근성, 이용의 편리성, 정보수집의 용이성을 환경품질로 고려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 II.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이용자 중심 제공

### 1. 이용자 중심주의

원칙적으로 정부의 서비스는 공무원에 의해 전달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또한 정부에 의해 전달

되는 서비스로 공무원 혹은 전문가가 제공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갖는 관료주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접근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관료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정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후 정부는 시민 중심 혹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각국의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기획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별화(personalisation)의 논의 또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를 전통적인 공공관리, 신공공관리, 개별화의 접근으로 개관하면 다음의 <표1>와 같다.

전통적인 공공관리에서 정부 서비스 공급의 핵심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해당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표1> 공공부문 서비스의 공급방식 변화

	전통적인 공공관리	신 공공관리	개별화
공공의 관심	정치인과 전문가에 의해 정의됨	소비자의 선택의 집합/ 소비자 조사	제공자, 재원자와 이용자가 같은 수준에서의 대화를 통해
수행목표	투입관리, 좋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투입과 산출 관리	이용자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중적인 동의
책임성	권력 위계에서 높은 부서로 올라갈수록	시장비교와 계약을 통한 정치인들과 이용자들에게	이용자뿐 아니라 납세자, 이해당사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전달체계 모델	공공 기관들 전문적인 자기규제 제공제도 조직	계약 서비스	제공자들의 혼합된 시장 이용자들의 욕구에 대한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모아진 해결책들
기본원칙	공공서비스 테크노크라틱	시장-기반	민주주의적, 개별화된,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 개념	공손함	소비자, 종종 셀프서비스	공동 생산,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 만들기
관리목표	정치적인 관리에의 만족, 전문가 자기규제	계약된 선택 대상을 만족시키는 것	이용자의 만족, 사회 편익
민간의 역할	소수, 독립되어 구분된	서비스 전달의 주요한 역할	공공과 개별화의 조합으로부터의 공공자원 생산
전문가 역할	자원의 결정과 재배치	위탁과 관리감독	조언자, 중개자, 옹호자, 해결수립자

출처: Leadbeater(2004)

가를 교육 및 양성하고 자격기준 등을 규제하는 공급자 측면의 관리를 중시하게 된다.

신공공관리에서 정부 서비스 공급의 핵심은 시민에게 선택받는 서비스가 되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을 강화한다. 즉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서비스이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여 마치 시장의 기업이 고객을 두고 경쟁하는 것과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료적,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실험되고 있는 개별화 접근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이용자를 서비스를 소비하는 집단으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기획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며 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종합하여 볼 때 전통적인 정부의 서비스 공급방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혹은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공급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중심주의란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개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공급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2. 서비스 품질 관리

### 1)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의 측정: SERVQUAL

Megivern 외(2007)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란 서비스 성과를 만들어내면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숙련되고 섬세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이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윤리적 원칙

에 따라 이용자 요구에 얼마나 민감히 반응하며 제공하는가의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성과(outcome)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성과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민감히 반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서비스 품질은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또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Garvin(1984)의 품질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적용해 보면 우선 선형적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은 절대적으로 엄격한 표준 즉 현실에서 이용자의 경험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적이고 높은 성취의 상징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제품 중심의 관점에서는 서비스 내용이나 결과의 바람직한 특성의 총합을 의미한다. 또한 가치 중심의 관점에서는 비용과 가격에 의해 기능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이용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가 경험한 품질로 선형적 관점이나 제품 혹은 가치 중심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이란 서비스의 객관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한 서비스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PZB(1998)는 이용자가 인식하는 품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SERVQUAL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는 현재 가장 폭넓은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품질 척도일 것이다. (이유재, 라선아, 2006) SERVQUAL 모형에서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우수성에 대해 이용자가 인식하는 전반적인 판단이나 태도'로 규정된다. SERVQUAL 모형은 연구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분석한 결과로 개발되었으며, '신뢰성(reliability)', '응답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확신성(assurance)', '유형성(tangibles)'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 1998) 다음의 <표2>는 SERVQUAL 모형이 수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표2〉 1990년대 중반까지 SERVQUAL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한 연구들

연구	적용산업	표본의 크기	설문지 구성	주요 설문표현의 변경	원래 SERVQUAL 항목의 보유 정도
Parasuraman et al.(1985, 1988)	전화회사, 증권중개소, 보험회사, 은행, 수리업	298~487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부정적 표현	22개 항목
Carman(1990)	타이어 스토어, 대학 구직센터, 치과, 병원, 응급실	74~600	구직센터에서만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특정 거래에 적용되는 항목을 추가	10~17개 항목
Finn and Lamb (1991)	여러 종류의 소매점	58~69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변경 없음	22개 항목
Babakus and Mangold(1992)	병원	443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긍정적 표현으로 변경	15개 항목
Babakus and Boller(1992)	전기, 가스 시설회사	689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변경 없음	22개 항목
Cronin and Taylor(1992)	은행, 방역센터, 세탁소, 패스트푸드	660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기대를 측정 안 함	22개 항목
Brensinger and Lambert(1990)	차량운송 서비스	170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변경 없음	22개 항목
O'Connor et al. (1994)	병원	775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변경 없음	22개 항목
이유재 . 김주영 . 김재일(1996)	병원, 통신회사, 호텔, 백화점, 항공 등 10개 산업	1,577	Parasuman, Zeithaml, and Berry (1998)와 유사	변경 없음	10개 항목

연구	응답 척도	설문지 관리	자료분석	신뢰도 (Cronbach's $\alpha$ )	최종 차원의 수	타당성
Parasuraman et al.(1985, 1988)	7점 척도	우편조사	요인분석	0.87~0.90	5개 차원	10점 척도에서 5개 차원이 0.57~0.71의 차이를 설명
Carman(1990)	7점 척도	응답자에 의한 자기보고	요인분석	평균 0.75	6~8개 차원	검사 안 함
Finn and Lamb (1991)	5점 척도	전화조사	LISREL 요인분석	0.59~0.83	5개 차원 (fit가 좋지 않음)	검사 안 함
Babakus and Mangold(1992)	5점 척도	우편조사	요인분석 LISREL	0.89~0.97	5개 차원 (fit가 좋지 않음)	검사 안 함
Babakus and Boller(1992)	7점 척도	우편조사	요인분석 LISREL	0.67~0.83	명확하지 않음	전반적 품질과 0.59의 상관관계를 보임
Cronin and Taylor(1992)	7점 척도	면접조사	요인분석 LISREL	0.74~0.83	5개 차원	검사 안 함
Brensinger and Lambert(1990)	7점 척도	우편조사	요인분석	0.64~0.88	5개 차원	전반적 품질에 대해 0.39의 차이 설명
O'Connor et al. (1994)	7점 척도	우편조사	정준판별분석	0.79~0.92	5개 차원	검사 안 함
이유재 . 김주영 . 김재일(1996)	11 점 척도	면접 및 우편조사	LISREL, 분산분석	계산 안 함	5개 차원	검사 안 함

2) 결과품질로 서비스 만족도의 측정: CSI-K

품질을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를 잘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품질 평가에는 주관적인 인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품질의 주관적인 측면은 이용자의 주관적인 평가 중 하나인 '만족'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만족은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 또한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 품질과 만족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Rust and Oliver, 1994: 이유재, 라선아, 2006: 김은정·정소연, 2009: 조성숙·허만세2012)

이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뤄지고 있다. 김은정·정소연(2009)은 SERVQUAL 모형을 수정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이것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성숙·허만세(2012)도 SERVQUAL모형을 수정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을 측정하고 만족도가 재이용의사를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만족도는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만족스럽게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켰는지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만족도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

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 각 부처는 다각도로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여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평가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를 성과 측면의 품질 즉 결과품질로 해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김용석 외(2007)는 다수의 만족도 측정이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1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만족도 측정 모형 CSI를 수정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판 이용자 만족도 척도 CSI-K(Client Satisfaction Inventory-Korea)로 개발하였다. CSI-K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효과에 대한 만족도' 2개 차원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김용석 외(2007)의 CSI-K를 적용하여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 III.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품질 현황

#### 1. 서비스 이용 현황

다음의 <표3>는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세부 시설유형 별로 보여준다. 세종시

<표3> 세종시 세부 시설유형 별 서비스 이용 횟수, 기간, 본인부담금 (N=1,148)

구분	월 평균 서비스 이용 횟수	서비스 이용 기간(개월)	월 평균 본인부담금(천원)
노인복지시설 (n=279)	24.68	23.29	139.89
아동복지시설 (n=240)	17.23	19.33	35.41
청소년시설 (n=76)	6.49	10.26	0.00
장애인복지시설 (n=271)	14.24	25.97	57.96
정신보건시설 (n=46)	18.87	24.91	62.02
노숙인시설 (n=25)	30.00	19.40	186.40
사회복지관 (n=39)	9.77	23.95	21.54
지역자활센터 (n=22)	2.95	28.18	0.00
여성가족시설 (n=35)	3.69	13.11	0.00
기타 직능단체, 협회 (n=115)	10.21	12.38	97.47
총계	16.33	20.97	72.12

박수지

〈표4〉 세종시 세부 시설유형 별 이용자의 서비스 인지 경로 (단위: %, N=1,148)

구분	노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정신 보건 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여성 가족 시설	기타 직능 단체, 협회	총계
TV, 신문 등 언론매체	1.1	3.3	3.9	3.7	4.3	4.0	7.7	4.5	5.7	0.9	3.9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17.6	12.5	7.9	19.2	19.6	32.0	23.1	3.6	25.7	7.8	16.0
현재 이용 중인 복지시설의 홍보	17.6	12.1	22.4	18.8	17.4	0.0	10.3	40.9	11.4	32.2	18.1
다른 복지시설의 소개	16.1	3.3	3.9	15.1	4.3	48.0	7.7	0.0	2.9	9.6	11.0
인터넷 정보 검색	2.2	12.5	36.8	12.9	10.9	8.0	30.8	31.8	11.4	16.5	12.9
전화 방문 확인	12.2	12.1	2.6	10.0	8.7	8.0	2.6	4.5	31.4	8.7	10.5
주위 사람의 소개	33.3	27.1	19.7	19.6	32.6	0.0	17.9	4.5	11.4	24.3	24.5
학교	0.0	17.1	2.6	7.0	2.2	0.0	0.0	0.0	0.0	0.0	4.0
총계 (명)	100 (279)	100 (240)	100 (76)	100 (271)	100 (46)	100 (25)	100 (39)	100 (22)	100 (35)	100 (115)	100 (1148)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전체의 월 평균 서비스 이용 횟수는 약 16회, 본인부담금은 월 평균 약 7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은 평균 20.9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4〉는 이용자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를 시설유형 별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서비스를 알게 된 경우가 24.5%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시설과 사회복지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비중이 각각 36.8%, 30.8%로 높았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여성가족시설은 지역 주민 센터 공무원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19.2%, 32.0%, 25.7%로 가장 높았다. 지역자활센터는 시설 자체 홍보

〈표5〉 세종시 세부 시설유형 별 이용자의 기관 선택 이유 (단위: %, N=1,148)

구분	노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정신 보건 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여성 가족 시설	기타 직능 단체, 협회	총계
전문기관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11.5	16.7	7.9	18.8	8.7	32.0	33.3	27.3	22.9	20.9	16.7
담당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16.1	16.3	27.6	17.3	19.6	16.0	17.9	27.3	28.6	34.8	19.9
집에 오기 편해서	4.7	6.3	18.4	6.6	4.3	0.0	7.7	0.0	8.6	1.7	6.1
시설 환경이 좋아서	20.4	12.9	22.4	18.8	13.0	20.0	5.1	4.5	0.0	13.0	16.1
비용 부담이 적어서	6.1	7.5	10.5	5.9	4.3	0.0	2.6	9.1	8.6	0.0	5.8
업무처리가 편리해서	0.0	0.0	1.3	0.0	2.2	0.0	0.0	9.1	5.7	1.7	0.7
이용 시설의 홍보가 좋아서	6.8	6.3	6.6	3.7	10.9	4.0	7.7	0.0	8.6	2.6	5.6
주위의 추천이 있어서	33.3	29.2	5.3	26.2	32.6	20.0	25.6	18.2	17.1	23.5	26.6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 곳뿐이어서	1.1	4.2	0.0	2.6	4.3	8.0	0.0	0.0	0.0	1.7	2.3
경제적 활동참여	0.0	0.0	0.0	0.0	0.0	0.0	0.0	4.5	0.0	0.0	0.1
프로그램 다양함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0.1
전학가기 싫어서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0.1
총계 (명)	100 (279)	100 (240)	100 (76)	100 (271)	100 (46)	100 (25)	100 (39)	100 (22)	100 (35)	100 (115)	100 (1148)

〈표6〉 세종시 세부 시설유형 별 이용자의 이동 수단 (단위: %, N=1,148)

구분	노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정신 보건 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여성 가족 시설	기타 직능 단체, 협회	총계
도보(걸어서)	0.7	57.1	25.0	10.7	10.9	0.0	35.9	4.5	5.7	10.4	19.33.5
자전거	1.4	4.6	26.3	1.1	2.2	0.0	2.6	0.0	0.0	0.0	3.5
버스	3.2	2.1	47.4	16.2	8.7	0.0	20.5	45.5	65.7	13.9	13.5
택시	2.2	0.8	0.0	5.5	0.0	0.0	0.0	0.0	0.0	1.7	2.2
자가용(오토바이, 자동차)	2.9	19.2	1.3	26.6	21.7	0.0	35.9	36.4	28.6	43.5	19.1
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승합차 등)	24.7	12.1	0.0	15.5	0.0	0.0	5.1	9.1	0.0	4.3	13.0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	0.0	0.0	0.0	1.1	0.0	0.0	0.0	4.5	0.0	0.0	0.3
집에서 이용	10.8	0.0	0.0	6.3	0.0	0.0	0.0	0.0	0.0	26.1	6.7
시설에 입소하여 이용	54.1	4.2	0.0	17.0	56.5	100	0.0	0.0	0.0	0.0	22.5
총계 (명)	100 (279)	100 (240)	100 (76)	100 (271)	100 (46)	100 (25)	100 (39)	100 (22)	100 (35)	100 (115)	100 (1148)

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의 〈표5〉는 이용자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세부 시설유형 별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주변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현재의 서비스 기관을 선택한 경우가 26.6%로 가장 많았다. 지역자활센터, 여성가족시설은 담당인력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이 각각 27.3%, 28.6%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시설은 현재 이용 중인 시설을 전문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3%, 32.0%로 비중이 가장 컸다. 청소년시설은 시설환경이 좋아 선택했다는 경우가 2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의 〈표6〉는 이용자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기관으로의 이동 수단을 세부 시설유형 별로 보여준다. 주거 시설 이용자로 기관으로의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도보로 걸어서 오거나 자가용으로 온다는 경우가 각각 19.3%, 19.1%로 많았다.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을 이용하는 경우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시설은 자전거로 오는 경우가

〈표7〉 세종시 세부 시설유형 별 이용자의 이동 시간 (N=890)

구분	노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정신 보건 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여성 가족 시설	기타 직능 단체, 협회	총계
5분 이내	0.0	10.9	2.6	2.7	0.0	0.0	7.7	0.0	5.7	9.0	4.4
5~10분	18.8	40.4	48.7	28.9	40.0	0.0	51.3	31.8	5.7	32.2	32.9
10~30분	54.7	47.4	42.1	52.4	60.0	0.0	35.9	68.2	68.8	38.3	49.2
30~60분	3.1	1.3	6.6	7.6	0.0	0.0	5.1	0.0	20.0	3.5	4.7
1시간 이상	0.0	0.0	0.0	1.3	0.0	0.0	0.0	0.0	0.0	0.0	0.3
재가/시설서비스 이용	23.4	0.0	0.0	7.1	0.0	0.0	0.0	0.0	0.0	25.2	8.4
총계 (명)	100 (279)	100 (240)	100 (76)	100 (271)	100 (46)	100 (25)	100 (39)	100 (22)	100 (35)	100 (115)	100 (890)

〈표8〉 세종시 세부 시설유형 별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 (단위: %, N=890)

구분	노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정신 보건 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여성 가족 시설	기타 직능 단체, 협회	총계
한 번에 오는 것이 있다	36.7	64.3	52.6	54.2	75.0	0.0	38.5	50.0	65.7	46.1	53.3
한 번은 갈아타야 한다	9.4	15.7	28.9	21.8	25.0	0.0	28.2	36.4	25.7	8.7	18.2
두 번은 갈아타야 한다	1.6	0.0	0.0	1.3	0.0	0.0	2.6	0.0	0.0	0.0	0.7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다	0.0	7.0	2.6	0.4	0.0	0.0	5.1	4.5	2.9	2.6	2.9
모르겠다	28.9	13.0	15.8	15.1	0.0	0.0	25.6	4.5	5.7	16.5	16.3
집에서 서비스 이용	23.4	0.0	0.0	7.1	0.0	0.0	0.0	4.5	0.0	26.1	8.7
총계 (명)	100 (279)	100 (240)	100 (76)	100 (271)	100 (46)	100 (25)	100 (39)	100 (22)	100 (35)	100 (115)	100 (890)

2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의 〈표7〉는 세부 시설유형 별로 이용자의 평균 이동 시간을 보여준다.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할 때, 평균 이동 시간이 10분~30분인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시설로의 이동시간은 짧아 5분~10분인 경우가 48.7%, 5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의 〈표8〉는 세부 시설유형 별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오는 대중교통이 있는 경우가 53.3%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시설의 경우 대중교통을 한 번 갈아타야 하는 비중이 36.4%, 28.9%로 높았다.

## 2. 과정품질의 현황: SERVQUAL 측정 결과

### 1) 수정한 SERVQUAL 모형의 개관

SERVQUAL 모형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4개 차원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거주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성인 돌봄과 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상당수가 재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RVQUAL모형의 5개 구성차원 중 유형성(tangibles) 항목은 다른 4개의 차원과 다르게 본 연구 대상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유형성은 서비스 기관 외형에 관한 이용자의 평가로

시설 구조나 장비, 서비스 인력의 겉모습, 복장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그 결과 수정한 SERVQUAL 모형은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의 4개 차원 총 12개 항목으로 확정되었다. 신뢰성(reliability)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의 정도로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청구서의 정확도, 정확한 기록, 시간 엄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응답성(responsiveness)은 이용자의 요구에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에 관한 평가이다. 요구에 대한 즉각적 응대, 신속한 처리 등의 여기에 속한다. 공감성(empathy)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이익 중시, 개별적인 관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확신성(assurance)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과 인간 됨됨이를 신뢰하는 정도이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공손한 태도, 믿음직성 등이 속한다.

수정된 SERVQUAL 모형이 본 연구에 적합한 측정 도구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을 알아보았다. 신뢰성 분석으로는 내적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는 내적일관성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위의 〈표 9〉는 수정한 SERVQUAL 모형의 4개 영역과 각 영역 별 개별 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항목 별, 영역 별로 내적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일

〈표9〉 수정된 SERVQUAL 신뢰도 분석 결과 (N=1,148)

구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CITC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α	Cronbach-α
신뢰성	서비스 시작 시간을 지킨다	11.61	2.155	.438	.597	.656
	서비스 내용이 합의된 바와 동일하다	11.72	1.808	.592	.376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한다	11.77	2.273	.381	.669	
응답성	서비스 인력은 서비스 이용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지 혹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다	11.46	2.254	.359	.609	.617
	불만이나 고충이 신속히 처리된다	11.40	1.869	.544	.341	
	요구사항이 신속히 서비스에 반영된다	11.39	2.105	.385	.578	
공감성	서비스 인력은 이용자의 욕구를 이해한다	11.32	2.219	.367	.582	.606
	서비스 인력은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11.32	1.899	.567	.278	
	서비스 인력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11.32	2.409	.333	.623	
확신성	서비스 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11.49	1.980	.381	.646	.635
	서비스 인력을 인간적으로 신뢰한다	11.50	1.778	.497	.194	
	서비스 인력은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다	11.49	2.102	.384	.632	

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60이상, CITC가 .3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이종환, 2009) 4개 영역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656, .617, .606, .635로 모두 .60을 초과하였으며 개별 항목의 CITC 값도 .30을 초과하였다. 즉 수정한 SERVQUAL모형은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2) 과정품질의 주요 현황

다음의 〈표10〉는 지역 별, 시설유형 별 수정한 SERVQUAL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주고 있다. 지역 별로 보면 도시지역 동의 점수가 농촌지역 읍, 면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답성과 공감성 모든 항목에서 0.15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도시의

〈표10〉 세종시 동/읍·면 지역별, 시설유형별 수정한 SERVQUAL 항목의 평균 점수\*

구분		동/읍·면 지역별		시설유형별	
		동	읍면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신뢰성	서비스 시작 시간을 지킨다	5.97	5.92	5.94	5.88
	서비스 내용이 합의된 바와 동일하다	5.87	5.79	5.80	5.87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한다	5.79	5.76	5.75	5.79
응답성	서비스 인력은 서비스 이용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지 혹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다	5.77	5.59	5.69	5.50
	불만이나 고충이 신속히 처리된다	5.80	5.68	5.74	5.63
	요구사항이 신속히 서비스에 반영된다	5.87	5.65	5.73	5.67
공감성	서비스 인력은 이용자의 욕구를 이해한다	5.77	5.59	5.66	5.58
	서비스 인력은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5.76	5.59	5.69	5.52
	서비스 인력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5.75	5.60	5.67	5.55
확신성	서비스 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5.81	5.71	5.75	5.66
	서비스 인력을 인간적으로 신뢰한다	5.78	5.72	5.75	5.62
	서비스 인력은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다	5.83	5.71	5.76	5.67

\*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 박수지

동 지역 이용자의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 별로 보면 이용시설의 점수가 신뢰성을 제외한 3개 차원의 항목에서 생활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11>에서 나타난 지역 별, 시설유형 별 SERVQUAL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11>는 SERVQUAL 품질 각 영역별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평균 점수, 표준편차, ANOVA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성 영역의 점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 ( $p \leq .001$ ) 공감성, 확산성 차원의 이용시설의 점수 또한 생활시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leq .01$ )

다음의 <표12>는 SERVQUAL 품질 각 영역별로 도시 지역 동과 농촌지역 읍, 면의 평균 점수, 표준편차, ANOVA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응답성과 공감성 차원에서 동 지역의 점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읍, 면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확산성 영역에서도 도시지역 동의 점수가 읍, 면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 $p \leq .05$ )

다음의 <표13>는 수정한 SERVQUAL의 4개 영역 합산 점수를 세부 시설유형 별로 비교해 준다. 전반적으로 4개 영역 중 신뢰성의 점수가 17.5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확산성 17.24점, 응답성 17.12점, 공감성 16.98점으로 나타났다.

### 3. 결과 품질의 현황: 만족도 CSI-K 측정 결과

#### 1)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CSI-K) 개관

CSI-K는 CSI(Client Satisfaction Inventory)를 국내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번역 및 수정한 척도이다. (김용석 외, 2007) CSI-K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12개 문항과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표11> 세종시 사회복지 시설 유형별 SERVQUAL 품질 현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신뢰성	이용시설	872	17.55	2.02	.011	.918
	생활시설	276	17.53	1.91		
응답성	이용시설	872	17.22	1.99	10.241	.001
	생활시설	276	16.79	1.90		
공감성	이용시설	872	17.08	2.05	9.611	.002
	생활시설	276	16.65	1.88		
확산성	이용시설	872	17.33	1.89	8.479	.004
	생활시설	276	16.95	1.83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표12> 세종시 동/읍·면 지역별 SERVQUAL 품질 현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신뢰성	동	429	17.63	2.03	1.642	.200
	읍, 면	703	17.47	1.97		
응답성	동	429	17.43	1.99	17.666	.000
	읍, 면	703	16.92	1.94		
공감성	동	429	17.28	2.08	16.109	.000
	읍, 면	703	16.78	1.96		
확산성	동	429	17.42	1.94	6.266	.012
	읍, 면	703	17.13	1.83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표13〉 세종시 세부 시설유형 별 수정한 SERVQUAL 영역별 평균 점수 현황\* (N=1,148)

구분		노인 복지 시설 (n=279)	아동 복지 시설 (n=240)	청소년 시설 (n=76)	장애인 복지 시설 (n=271)	정신 보건 시설 (n=46)	노숙인 시설 (n=25)	사회 복지관 (n=39)	지역 자활 센터 (n=22)	여성 가족 시설 (n=35)	기타 직능 단체, 협회 (n=115)	총합
신뢰성	평균	17.50	17.78	17.26	17.20	17.69	17.68	17.05	17.77	18.22	17.97	17.54
	표준편차	1.83	2.15	1.68	2.03	2.29	1.51	2.08	2.22	1.59	1.97	1.99
응답성	평균	16.94	17.30	16.92	17.16	16.97	16.72	16.71	16.86	17.22	17.51	17.12
	표준편차	1.76	2.01	1.92	2.06	2.59	1.20	2.39	2.45	1.45	1.90	1.98
공감성	평균	16.77	17.36	17.10	16.81	16.97	17.04	16.12	15.77	17.22	17.41	16.98
	표준편차	1.81	2.01	2.10	2.05	2.48	1.13	2.11	2.56	2.14	1.95	2.02
확신성	평균	17.03	17.61	16.90	17.12	17.36	17.48	16.87	17.31	16.88	17.55	17.24
	표준편차	1.70	1.84	2.03	1.98	2.06	1.38	2.09	1.91	1.77	1.91	1.88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도' 8개 문항, 총 2개 영역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김용석 외(2007)는 CSI-K의 20개 문항 중 9개 문항의 총점으로 만족도를 계산하는 축약 CSI-K 모형 또한 소개하고 있다. 축약 CSI-K은 CSI-K문항 중 2번, 3번, 6번, 7번, 8번, 9번, 17번, 18번, 19번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CSI-K가 본 연구에 적절한 측정 도구였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신뢰성을 알아보았다. 신뢰성 분석으로는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가 산출되는 내적일관성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14〉는 CSI-K의 구성 차원과 항목 별 내적신뢰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60이상, CITC가 .3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이종환, 2009) 2개 영역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40, .882로 .60을 초과하

〈표14〉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N=1,148)

구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CITC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alpha$	Cronbach- $\alpha$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1. 이곳에서 받은 서비스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61.95	33.853	.580	.822	.840
	2. 이곳의 직원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	62.04	33.970	.565	.823	
	3. 만일 다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이용할 것이다.	62.10	33.928	.574	.822	
	4. 이곳의 직원은 나를 업무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62.08	34.228	.490	.829	
	5. 이곳에서 나는 나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많이 배웠다.	62.14	34.934	.425	.834	
	6. 내가 이곳에서 도움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62.18	34.018	.538	.825	
	7. 이곳의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한다.	61.98	34.629	.493	.828	
	8. 나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다.	62.05	34.362	.506	.828	

	9. 이곳의 직원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62.09	34.142	.531	.826	
	10.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62.21	35.393	.369	.838	
	12. 여기서 받은 도움은 내가 지불한 이용료 만큼의 가치가 있다.	62.18	34.735	.486	.829	
	13. 이곳의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	62.19	34.799	.487	.829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11.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39.59	15.859	-.024	.801	.882
	14. 이곳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38.81	14.253	.455	.636	
	15.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38.73	13.972	.498	.627	
	16.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38.72	13.780	.522	.621	
	17.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다.	38.78	14.099	.433	.639	
	18.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38.90	13.693	.492	.625	
	19. 내가 여기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이였다.	38.73	13.925	.465	.632	
	20.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	38.52	14.148	.566	.620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였으며 개별 항목의 CITC의 값도 .30을 초과하여 CSI-K 은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2) 결과품질 현황

다음의 <표15>는 지역 별, 시설유형 별로 CSI-K 각 항목의 점수를 보여준다. 지역 별로 보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의 모든 항목의 점수가 도시 지역 동이

농촌지역 읍, 면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11번, 18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도시지역 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 별로 보면 이용시설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1번, 2번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문항에서 생활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11번, 18번 문항을 제외하고

<표15> 세종시 동/읍·면 지역별, 시설유형별 만족도 평균 점수

구분		동/읍·면 지역별			시설유형별		
		동	읍면	총합	생활시설	이용시설	총합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	1. 이곳에서 받은 서비스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5.86	5.74	5.79	5.83	5.78	5.79
	2. 이곳의 직원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	5.77	5.66	5.70	5.72	5.70	5.70
	3. 만일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을 이용할 것이다.	5.68	5.62	5.65	5.62	5.65	5.65
	4. 이곳의 직원은 나를 업무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5.73	5.62	5.66	5.67	5.66	5.66
	5. 이곳에서 나는 나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많이 배웠다.	5.67	5.56	5.61	5.49	5.65	5.61

족도	6. 내가 이곳에서 도움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5.71	5.48	5.56	5.38	5.62	5.56
	7. 이곳의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한다.	5.83	5.72	5.76	5.67	5.79	5.76
	8. 나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다.	5.78	5.64	5.69	5.68	5.70	5.69
	9. 이곳의 직원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5.78	5.57	5.66	5.53	5.70	5.66
	10.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5.62	5.49	5.54	5.38	5.59	5.54
	12. 여기서 받은 도움은 내가 지불한 이용료만큼의 가치가 있다.	5.60	5.55	5.57	5.50	5.59	5.57
	13. 이곳의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	5.67	5.48	5.55	5.43	5.59	5.55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11.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4.39	5.06	4.80	4.95	4.76	4.80
	14. 이곳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나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5.69	5.52	5.58	5.45	5.63	5.58
	15.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5.73	5.63	5.67	5.52	5.71	5.67
	16. 이곳의 직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5.75	5.63	5.68	5.49	5.74	5.68
	17.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다.	5.73	5.55	5.62	5.52	5.65	5.62
	18.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5.47	5.51	5.50	5.51	5.49	5.50
	19. 내가 여기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이였다.	5.81	5.59	5.67	5.49	5.73	5.67
20.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	5.95	5.83	5.87	5.74	5.92	5.87	

\*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이용시설의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위의 <표15>에서 나타난 지역 별, 시설유형 별 CSI-K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16>는 CSI-K 영역 별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평균 점수, 표준편차, ANOVA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두 영역에서 이용시설의 점수가 각각 유의수준 .01, 그리고 유의수준 .001에서 생활시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 $p \leq .001$ ,  $p \leq .01$ ) 단축형

<표16> 세종시 시설 유형별 만족도 현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이용시설	872	68.01	6.40	6.744	.010
	생활시설	276	66.88	6.11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이용시설	872	44.62	4.12	10.820	.001
	생활시설	276	43.67	4.41		
단축형 총점	이용시설	872	51.03	5.03	7.095	.008
	생활시설	276	50.11	4.98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표17〉 세종시 동/읍·면 지역별 만족도 현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동	429	68.71	6.06	16.778	.000
	읍, 면	703	67.12	6.13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동	429	44.51	4.25	.616	.433
	읍, 면	703	44.31	4.18		
단축형 총점	동	429	51.56	5.22	16.239	.000
	읍, 면	703	50.33	4.84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표18〉 세종시 세부 시설유형 별 만족도 현황(N=1,148)

구분		노인 복지 시설 (n=279)	아동 복지 시설 (n=240)	청소년 시설 (n=76)	장애인 복지 시설 (n=271)	정신 보건 시설 (n=46)	노숙인 시설 (n=25)	사회 복지관 (n=39)	지역 자활 센터 (n=22)	여성 가족 시설 (n=35)	기타 직능 단체, 협회 (n=115)	총합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	67.31	68.79	66.30	67.04	67.89	68.52	66.43	67.63	70.20
	표준편차	5.56	6.82	5.24	6.35	7.91	2.88	7.22	9.83	6.02	6.43	6.35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균	43.78	44.48	43.86	44.38	43.56	45.6	44.84	45.09	46.88	45.09	44.39
	표준편차	4.06	3.93	3.95	4.28	5.11	2.79	5.38	6.10	3.68	3.91	4.21
단축형 총점	평균	50.43	51.42	50.21	50.32	51.02	52.00	49.58	51.09	52.51	51.51	50.81
	표준편차	4.65	5.27	4.19	4.99	6.28	2.92	5.39	7.80	4.32	5.05	5.03

\*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CSI-K에서 또한 이용시설의 점수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17〉는 지역 별로 CSI-K 영역 별 평균 점수, 표준편차, ANOVA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와 단축형 CSI-K의 경우 이용시설의 점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의 〈표18〉는 세부 시설유형 별로 CSI-K의 2개 영역 점수 현황을 보여준다. 위의 〈표〉에서 축약 CSI-K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여성가족시설이 서비스 공급자와 결과에 대한 만족도 또한 각각 70.02점, 46.88점으로 가장 높았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를 과정품질, 결과품질, 환경품질로 구분하여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 도시인 등이 농촌 지역인 읍, 면보다 서비스 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세종시 내 시설유형별,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용석 이은영 고경은 민은희. (2007).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Client Satisfaction Inventory)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한국사회복지학. 4(11). pp. 83~109.
- 김은정 정소연. (2009). "SERVQUAL 모형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과 서비스 만족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2). pp. 191~217.
- 박수지 정은희 김가희. (2013).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공급 특성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형준 장안서 김성철 남재현 박수지 이찬. (2020)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세종시 사회복지서비스원.
- 이유재 라선아(2006). 『한국기업의 서비스 품질 평가제도 변천 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성숙 허만세(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재이용의사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pp. 127~138.
- Garvin, David A. (1984). What Does Product Quality Reality Mean, Sloan Management Review. 26(1). pp. 25~44.
- Grönroos, C. (1984).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4). pp. 36~44.
- Leadbeater, C. (2004). Personalisation through Participation: A New Script for Public Services. London: Demos.
- Megivern, D. M., McMillen J. C., Proctor, E. K., Striley, C. W., Cabassa, L. J., Munson, M. R. (2007). Quality of Care: Expanding the Social Work Dialogue. Social Work. 52(2), pp.115~124.
- Parasuraman, A., Zeithaml, V.A. and Berry L. L. (1988). SERVQUAL: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 pp.12~40
- Rust, R. T. and Oliver, R. L. (1994). Service Quality: Insight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from the Frontier. pp.1~19, in Service Quality: New Directions in Theory

and Practice. Rust, R. T. and Oliver, R. L. (E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 Abstract

# User-centered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Susie Park(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user-centered qua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The user-centered quality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opened by dividing it into process quality, result quality, and environmental quality based on a new public management approach in the public service area. For process quality measurement, a total of 12 items in four dimensions of reliability, responsiveness, empathy, and certainty were used, which modified the SERVQUAL scale. In order to measure the quality of the results, a total of 20 questions in two dimensions were used for service providers of the CSI-K scale and 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which were translated and modified to apply CSI to domestic social welfare practice sites. As for environmental quality, it was outlined as the status of service use such as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ser-centered qua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facility and region. Th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equity in the future.

**Key words:** user-oriented evaluation, process quality, result quality, environmental quality, SERVQUAL, CSI-K

---

### 박수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독일 기이센(Gießen)시의 Justus-Liebig 대학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돌봄, 장애인복지, 사회적경제 등이다.

E-mail: susiepark@gwnu.ac.kr

##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나라\* · 김연희\* · 이희정\* · 임미연\* · 김윤희\* · 민유경\* · 김현성\*, 전재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사과정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놀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군 전후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원주시에 거주하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3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다. 연구도구는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우울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은 4주간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실험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paired t-test 또는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는 평균 연령 7.6세의 여자 7명, 남자 6명으로 총 13명의 아동이었다.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 시행 후 참여자의 우울감 정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과 후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정도도 전과 후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동기와 자기효능감 향상, 우울감 감소를 도모하고자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험 전, 후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우울감 정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프로그램 제공 시기의 변화, 소수 참여자 수, 프로그램 제공의 짧은 시간, 어려운 설문문항 등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에 향후 프로그램 제공 시 제한점을 보완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Key Word : 코로나19,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 취약계층 아동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전례 없는 개학 연기가 여러 차례 시행되었고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령기와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양극화, 학업에 대한 자신감 저하, 우울감 증가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코로나 발생 후 아동의 긍정 정서는 감소하고 부정 정서와 자살 생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성장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개학과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성장발달에 큰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소외계층 아동의 학습 손실은 일반 아동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일반 가정 자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수업을 경험하면서 전자기기 사용에 더욱 익숙해졌고,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줄 아는 반면, 집에서 학업을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 아동들은 스마트폰을 대부분 게임기로만 사용하고 검색기능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1). 또한 온라인 학습 시 스마트 기기 보유 및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가정 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어른의 학습지도가 어렵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이 확대됨에 따른 소외집단으로 저소득층 아동(49.0%)이 뽑혔다(기호일보,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모든 시점에서 저소득층일 경우 우울 정도가 높았으며,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우울 정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성준모, 2013).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행한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였다(아동권리연구소, 2021).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은 우울감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습동기는 학습자 개개인이 스스로가 학교학습을 위해서 학교수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에 대해서 주의력 집중·적절성·신뢰성·호기심·도전감·기대감·참

여성에 대한 신념과 의욕적인 노력의 정도이다(고경희, 2020). 하위 요인으로는 ‘수업동기’, ‘본질(내적)동기’, ‘계속동기’, ‘비본질(외적)동기’가 있으며, 특히 본질동기와 비본질동기는 자기주도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경희, 2020).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도 취약계층 아동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노혁, 2009). 즉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홍연란 외, 2016). 즉 아동의 학습동기와 우울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아동과 학습동기와 관련성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나 다양한 상황여건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기 능력에 관한 믿음으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저소득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며,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우성호, 2019). 코로나19 전 지역 아동센터 아동의 공격성, 우울 정도는 일반 아동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남현지 & 하은혜, 201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초,중,고 및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아동의 온라인 수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수업의 단점에 대한 답변으로 가정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학생들이 많았다(한경, 2022). 즉, 취약계층 아동일수록 학습동기, 자기효능감이 낮아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고 우울한 감정은 증가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성인과 청소년을 비교하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관해 다루는 연구(아동권리보장원, 2021)나 코로나19 상황이 아동의 일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정익중 외, 2020)는 있으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감에 미치

〈Table 1〉 Research Design

Clinical Trial			
Group	Pre-test	Intervention (4wks)	Post-test
Experiment	Ye1	X	Ye2

Ye1 : Pre-test (general characteristic, learning motivation, self efficacy, depression)

X : Learning, play,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during 4 weeks)

Ye2 : Post-test (learning motivation, self efficacy, depression)

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행연구에서 학습코칭 프로그램 등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운 & 정보현, 2012). 그러므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의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취약계층 아동 집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쳐 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정서, 신체 발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2)을 거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놀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학습, 놀이,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3. 용어정의

취약계층의 사전적 정의는 경제적, 정서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으로, 저소득가정, 농어촌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북한이

탈주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다(장명림 외, 2010).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을 말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실험군의 실험처치 전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군 전 후 비교 실험설계이다. 대상자는 실험처치 제공 전과 후 각 1회씩 전체 2번의 설문조사를 시행한다(Table1). 각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전후이다. 실험처치는 총 4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원주시 가족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3학년 중 본 연구에 대한 안내 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선정기준

첫째,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아동

둘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아동 중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아동

셋째, 원주시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한 아동 중 취약계층

넷째, 연구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읽고 쓰기, 문해력에 문제가 없는 아동

## 2) 대상자 제외기준

첫째,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아동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아동

둘째,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전, 사후 연구 도구(설문지) 응답에 제한이 있는 아동

셋째, 취약계층(저소득층 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이 아닌 아동

넷째, 개인적으로 학원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김광수 & 고영미, 2011; 성승민 & 여상인, 2021)를 참고하여 paired t-test 기준으로 large sized effect size를 기준으로 효과크기(Effect size) 0.80, 유의수준 0.05, 검정력(power) 0.80 기준으로 최소 필요인원수는 21명이었으나 센터의 동일한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전체 취약계층 아동은 16명으로 참여자는 16명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센터의 사정과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3명이 탈락하였고 최종 13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하였다.

## 3.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7문항, 학습동기 25문항(본질동기 7문항, 비본질동기 8문항, 수업동기 4문항, 계속동기 6문항), 자기효능감 24문항(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 우울 27문항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일반적 특성

선행 연구를 기초로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가족 유형, 일주일의 평균 등교 횟수, 학교생활 적응도, 학업에 대한 자신감 정도, 우울감 및 고립감 정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습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4개 영역으로 본질(내적)동기 7문항, 비본질(외적)동기 8문항, 수업동기 4문항, 계속동기 6문항의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부터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김용래(2000)의 연구에서 .92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7이었다.

###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도구를 김아영(1997)이 수정, 보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3개 요인으로,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부터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자신감 영역의 7문항 및 과제난이도 영역의 2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채점 처리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개발당시 .88이었고(김아영, 1997),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4) 우울

우울은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소아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1967)를 8~13세의 소아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의 기분상태를 자가평가법으로 반영토록 고안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그 정도에 따라서 0~2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총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검증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 .82, 반분법에 의한 신뢰도계수 0.71, 항목-전체간의 상관계수의 평균치 .44(0.19~0.60), Cronbach's  $\alpha$  .88을 나타내었고(조수철, 이영식, 19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 4. 연구절차

##### 1) 학습, 놀이,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도움, 놀이지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 사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은 배정된 즉시 자가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설문조사는 약 15분 소요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연구 대상자는 필요시 보호자 혹은 연구자, 센터의 돌봄교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3)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주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4주 동안 실험군에게 제공한다.

##### 4) 사후조사

4주 간의 실험처치 종료 후 실험군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설문조사는 약 15분 소요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연구대상자는 필요시 보호자와 연구자, 센터의 돌봄교사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프로그램 제공 및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학습성과, 우울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실험전과

후의 변수 점수의 차이는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 paired t-test를 분석하였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하였다.

####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진행한 연구자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 진행, 사전, 사후 설문지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프로그램 시작 전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자료가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통해 기여하는 점과 설문지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설명하였다. 도중에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철회의사를 밝힐 수 있음과 설문지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가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여학생 7명(53.8%), 남학생 6명(46.2%)로 여학생이 1명 더 많았다. 평균 나이는 7.6세로 8세 이상이 8명(61.5%)으로 8세 미만보다 많았다. 학년은 2학년 7명(53.8%), 1학년 6명(46.2%) 순이었다. 학교 적응도 정도는 매우 잘 적응이 6명(46.1%)로 가장 많았고, 보통 4명(30.8%), 잘 적응 3명(23.1%) 순이었다. 학습자신감 정도는 매우 자신있음, 자신있음이 각각 5명(38.5%)이었고 보통이 3명(23.0%)이었다 (Table 2).

#### 2. 대상자의 사전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감 정도

대상자의 사전학습동기 점수는 5점 만점에  $3.58 \pm 1.19$ 점이었다. 학습동기의 하위영역별로 비본질동기( $3.88 \pm 1.13$ ), 수업동기( $3.60 \pm 1.12$ ), 본질동기( $3.43 \pm 1.31$ ), 계속동기( $3.37 \pm 1.36$ ) 순이었다. 자기효능감 점수는 5점 만점에

3.15±0.50점이었다. 우울 점수는 54점 만점에 35.85±5.94점이었다(Table 3).

### 3. 대상자의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 효과 검증

프로그램 진행 후 대상자의 학습동기 점수는 5점 만점

에 3.63±1.02점이었다. 프로그램 전과 후의 학습동기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335$ ,  $p=.743$ ). 프로그램 진행 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5점 만점에 3.23±0.80점이었다.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 자기효능감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6 (46.2)
	Female	7 (53.8)
Age (years old)	< 8	5 (38.5)
	≥ 8	8 (61.5)
	M±SD	7.6±0.66
Grades	1st grade	6 (46.2)
	2nd grade	7 (53.8)
Degree of adaptation to school	Very well adapted	6 (46.1)
	Well adapted	3 (23.1)
	Moderate	4 (30.8)
Learning confidence	Very confident	5 (38.5)
	Confident	5 (38.5)
	Moderate	3 (23.0)

Table 3. Scores of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N=13)

Characteristics	Item	Total scores		Mean scores	
		Range	M±SD	Range	M±SD
Learning motivation (total)	25	25~125	89.62±29.68	1~5	3.58±1.19
Non-intrinsic motivation	8	8~40	31.00±9.04	1~5	3.88±1.13
Intrinsic motivation	7	7~35	24.00±9.17	1~5	3.43±1.31
Class motivation	4	4~20	14.38±4.48	1~5	3.60±1.12
Keep motivated	6	6~30	20.23±8.19	1~5	3.37±1.36
Self-efficacy	24	24~120	75.54±12.04	1~5	3.15±0.50
Depression	27	0~54	35.85±5.94		

Table 4. Comparison of subjects' pre and post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N=13)

Characteristics	Pre M±SD	Post M±SD	t or Z	p
Learning motivation (total)	3.58±1.19	3.63±1.02	-0.335	.743
Non-intrinsic motivation	3.88±1.13	3.97±0.95	-.0659	.522
Intrinsic motivation	3.43±1.31	3.48±1.12	-0.282	.783
Class motivation	3.60±1.12	3.48±1.09	0.632	.539
Keep motivated	3.37±1.36	3.45±1.19	-0.463	.652
Self-efficacy	3.15±0.50	3.15±0.46	0.031	.976
Depression	35.85±5.94	33.46±4.72	1.95	.074

다( $t=1.59, p=.139$ ). 프로그램 진행 후 대상자의 우울감 점수는 54점 만점에  $33.46 \pm 4.72$ 점이었다.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 우울감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95, p=.074$ )(Table 4).

## IV. 논의

본 연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처온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우울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정도도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 정도는  $3.63 \pm 1.02$ 점이었고, 자기효능감 정도는  $3.15 \pm 0.46$ 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려우나 코로나19 이전 같은 도구는 아니나 일반아동과 학습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동기와 자기결정성동기를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의 경우 일반 아동  $3.86 \pm 0.36$ 점에 비해 학습부진 아동은  $3.62 \pm 0.61$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박순길 & 조증열, 2011) 학습부진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는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 점수 결과와 비슷하였다. 4점 만점의 척도로 아동의 학습동기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2.75 \pm 0.54$ 점으로(조한숙 & 문혁준, 2009)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68.8점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72.4점으로 환산되어 본 연구에서의 점수가 오히려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동이 대상이 되었으므로 학년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3.02 \pm 0.23$ 점으로(주희진 외, 2012)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3, 4, 5, 6학년으로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연령대가 차이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소속의 아동이므로 이에 대한 환경적 차이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즉,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정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에 비교해도 그리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학습동기는 학생 스스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의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극과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조한숙 & 문혁준, 2009)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비대면 수업과 사회활동 감소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은 특히 외적인 교육환경이 팬데믹 이전보다 열악해졌으므로 아동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우울 정도는  $35.85 \pm 5.94$ 점 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팬데믹 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을 확인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26.14 \pm 6.89$ 점으로 나타났고(양숙미, 임원신, & 최미옥, 2005), 같은 도구는 아니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40점 만점에 14.55점으로(유정아 & 정익중, 2014)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36.4점이었고, 본 연구는 66.4점으로 본 연구에서 우울 점수가 선행연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 중에 있었던 아동에게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고 또는 취약계층 아동이었기 때문 일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와 비슷한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우울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대상자의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우울 정도는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로그램이 진행된 시기는 연구를 계획했던 시점과 달리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지침에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의 환경적 변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일부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과 병행되는 변화가 생겨 학생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관계 형성이 있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즉, 연구를 계획했던 시점과 진행시점의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연구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에 제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완료한 참여자의 수가 적었다. 연구를 계획했던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확정되었으나, 센터의 운영 사정 및 아동들의 설문지 분실 등의 이유로 최종적인 연구 대상자는 총 13명이 되었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제한점이 있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4주의 기간은 짧은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적용하여 시설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를 확인하고자 했던 선행연구에서 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총 20주를 적용하였고(양숙미 등, 200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기효능감,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 정서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총 7개월을 적용하였다(주희진 외, 2013). 즉, 아동에게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 이상의 꾸준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연구를 진행한 설문지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7.6세로 조직적인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으로 학령기에 해당한다(Choi, 2000). 학령기의 아동은 발달의 특징상 정서 조절 능력의 부적합, 학교의 스트레스 상황과 규칙에 따른 어려움 등 행동 및 정서지능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적응에 중요한 학습 능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Cho, 2007).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신체 발달단계부터 학습 능력까지 모든 상황이 과도기이며, 아직 한글 학습마저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호작용 능력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이수행, 2021). 따라서 설문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향상 및 우울 정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통계적인 연구결과에서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시 취약계층 아동의 반응을 살피며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적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아동중심 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시설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양숙미 등, 2005), 사회, 정서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효능감,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양숙미 등, 2005). 선행연구에서 저성취 및 위험군 아동의 학습동기를 탐색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저성취 및 위험군 학생은 학습동기가 낮아 학습동기를 향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있어(민수진, 2014) 향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저성취 및 위험군 아동의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능력신념 형성과 교수의 효능감이 중요하며, 교수설계의 전문성, 일반-특수교사 간 협력, 학교-가족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므로(민수진, 2014),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적은 참여자의 수와 짧은 프로그램 기간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더하여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문 문항 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한 후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고 연구 참여자 수의 확대와 프로그램 제공 시간을 충분히 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습, 놀이,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처온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 후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 자아효능감, 우울감 정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동기와 자기효능감 향상, 우울감 감소를 도모하고자 학습·놀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 있어 다양한 제한점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향후 프로그램 제공 시간과 구성을 점검하고 연구 참여자의 수를 늘리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지 문항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연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제안하며, 추가적으로 심층 면담 등 질적연구를 혼합하여 연구결과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강영하. (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Young Ha Kang. (2008). Exploring the constructs of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2), 159-177.  
강영하. (2019). 행복감 키우기 프로그램이 농촌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18(1), pp. 69-86.  
고경희.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과 학습행동전략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2020. 광주, 35p  
구제연. (2010). 웃음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운동재활학회지, 6(2), 3-12.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I  
김광수, 고영미. (2011). 긍정 심리학 기반의 행복 증진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교육, 22(3), pp. 129-152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2), 1-19.  
김용래. (2001).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17), pp. 3-37.  
김중운, & 정보현. (2012).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방과후아카데미 고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146-165.  
김혜진. (2007). NLP 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14(1), pp. 45-61.  
남현지, & 하은혜. (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공격성, 우울이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5), 1-21.  
노 혁 (2009).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 미래청소년학회지, 6(3), 23-43.  
민수진. (2014). 저성취 및 위험군 아동의 학습동기와 지원요구 고찰: 통합학급 교사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교육, 23(2), 91-110.  
박순길, & 조증열. (2011). 학습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동기와 자기결정성동기와의 관계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107-126.  
성승민, 여상인 (2021). 과학 탐구 키움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과학학습정서, 학습동기, 과학 관련 자아개념, 진로포부,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32( 3), 99-115.  
성준모. (201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요인. 사회과학연구, 24(2), 207-228., 16p

- 양숙미, 임원신, & 최미옥. (2005).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시 설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동복지 연구*, 3(1), 35-47.
- 우성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대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국내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4p
- 유정아, & 정익중. (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까?.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3.
-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민현숙, 이세원, 송윤정, 소수정. (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n.p.: 육아정책연구소.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pp. 59-90.
- 조수철, and 이영식.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1990): 943-956.
- 조한숙, & 문혁준. (2009).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아동의 학습동기와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30(5), 23-39.
- 주희진, 김종현, 이성한, 천희영, & 이승호 (2012). 지역아동 센터 이용 아동의 자기효능감,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정서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연구*, 21(-), 45-64
- 최준섭. (202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1년, 초등학생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59(2), pp. 159-189.
- 추미애, 박아청. (2006).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271-288.
- 하요상, & 광미규. (2020). 코로나(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활성화에 적응하는 초등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665-679.
- 한경. "코로나19 시대 중등학교 교사와 학습자의 온라인 영어 수업 실태 및 만족도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2. 충청북도
- 홍연란, 장군자, & 최청숙. (2016).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1), 179-189.
- H. Y. Cho, (2007), Effects of game activities which influence school age's sociality and peer relationships,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5(1), 1-24.
- M. M. Choi, (2000),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Group Program for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9(1), 67-97.
- [문해력 리포트] ③ 코로나 학습 단절, 취약계층 자녀에 더 가혹했다. (2021).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0131800501?section=search>
- 온라인쇼핑~학습 이용자 늘었지만 디지털 정보 격차·양극화 심해졌다. (2021)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675>

---

<Abstract>

## Effects of learning, play,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on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f vulnerable children after COVID-19 pandemic

Nara Shin\* · Yeonhee Kim\* · Huijeong Lee\* · Miyeon Lim\* · Yoonhee Kim\* · Yugyeong Min\* · Hyunseong Kim\*, Jaehee Jeon\*\*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a learning, play,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for vulnerable children who have gone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termine the effects on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ethods:** The design of this study is a single-group before-and-after experimental study.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voluntarily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living in Wonju. Study motiva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scales were used as research tools. As for the research progress, a study, play,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wa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for 4 weeks, and a survey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For data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percentage, paired t-test, or Wilcoxon signed-rank test were used using SPSS. **Results:** After implementing the study, play,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the degree of depression of the participants decreased slightly,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cores before and afte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ifference in scores before and afte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organized and provided learning, play,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to promote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reduction of vulnerable children in the COVID-19 situation.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is may be due to limitations such as changes in the timing of program provision,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short period of program provision, and difficult questionnair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repeat the study by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when providing the program in the future.

**Key Word :** COVID-19,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Depression, Vulnerable children

---

## 보건복지연구

인쇄일 : 2022년 12월 24일

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발행인 : 소장 박수지

편집인 : 학술부장 한종화

기획부장 유선영

위원 이한나

위원 이선영

발행처 :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주 소 : 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전 화 : 033-760-8907

팩 스 : 033-760-8861

이메일 : pr0489@gwnu.ac.kr

출판등록: 2016년 10월 4일 제 419-2016-000024호

ISSN : 2508-6529

※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